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5-01

#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의 문화적 치유 정책 구상

A Study on the Cultural Therapy Policy of Loneliness  
as a Social Disease

장세길 신지원 윤소영



##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 연구진 소개

### 장세길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박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지원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석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 윤소영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문학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5-01

#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의 문화적 치유 정책 구상

A Study on the Cultural Therapy Policy Tackling Loneliness  
as a Social Disease

장세길 신지원 윤소영



####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

|      |     |                     |                      |
|------|-----|---------------------|----------------------|
| 연구책임 | 장세길 | 선임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제4장 ~ 제5장 |
| 공동연구 | 신지원 | 연구원                 | 제2장~4장               |
|      | 윤소영 | 초빙연구위원              | 제2장                  |
|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br>선임연구위원 |                      |

---

연구관리 코드 : 24JU2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연구목적 및 방법

### ■ 연구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현대사회의 위험에서 비롯된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북도의 문화적 치유 정책 방향과 과제를 구상하여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연구 범위 및 방법

- 전북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외로움의 실태를 온라인 조사함. 조사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 지표를 기반으로 구성함. 응답자 417명에 대하여 지역·성·연령별 국가 인구통계(2024.10)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함

## 2. 결론 및 정책제언

### ■ 사회적 연결 척도 분석 결과

- 문체부가 개발한 사회적 연결 척도 유형화에 따른 전북도민의 사회적 연결지수는 39.6점으로, 지역문화진흥원 조사(2024)에 따른 전국평균 31.0점보다 높음. 즉 전북도민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연결이 약하고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도민의 5개 그룹별 응답률: 1그룹(심각 집단) 17.3%, 2그룹(경계 집단) 18.5%, 3그룹(주의 집단) 26.1%, 4그룹(관심 집단) 29.2%, 5그룹(자립 집단) 8.9%
- 전국평균 값과 비교하였을 때, 전북도민은 사회적 관계(특히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회적 자본)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획득하는 자기 가치감의 상대적 악화로 이어지면서 외로움 지수를 더 높게 만들

## ■ 외로움의 문화적 치유 방향과 과제

- 정책 비전은 “문화로 연결, 외롭지 않은 전북”으로 설정함. 목표는 사회적 연결지수 개선으로 설정하고 전국 평균 수준인 30점 이하를 세부 목표로 제시함

- 문체부의 정책은 치료를 제외한 문화적 연결에 집중함. 이에 반해 전북의 정책 방향은 치료를 전제로 하는 보건정책과 연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체부 정책 방향과 다름



전북도의 외로움 대응 정책의 비전 체계

-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전략은 정책 기반 마련임. 두 번째 전략은 예방과 치유임. 외로움에 따른 정신·신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외로움에 처한 사람을 발굴하여 치유하는 사업을 지원함. 세 번째 전략은 연결망 강화임.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과 더불어, 외로움의 해소방법이 연결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제고되도록 사회적 인식·활동을 개선·확산하는 데 목표를 둠
- 발굴된 정책과제 중에서 광역 단위의 외로움 치유 플랫폼인 ‘문화로안녕센터(가칭) 조성 사업’,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지원체계와 문체부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체계를 융합한 ‘외로움 치유 보건 시범사업’ 등의 국가 사업화를 제안함
- 농업치유,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에 따른 치유 정책이 추진되나, 문화 분야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일반적인 문화 활동처럼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바, 문화 치유, 특히 외로움과 관련한 문화적 치유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함

|           |   |
|-----------|---|
| 요 약 ..... | i |
|-----------|---|

---

|     |       |
|-----|-------|
| 제1장 | 연구 개요 |
|-----|-------|

|                     |   |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3 |
| 가. 연구 배경 .....      | 3 |
| 나. 연구 목적 .....      | 6 |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 7 |
| 가. 연구 범위 .....      | 7 |
| 나. 주요 연구 내용 .....   | 7 |
| 다. 연구 체계 .....      | 8 |

---

|     |                |
|-----|----------------|
| 제2장 | 외로움의 개념과 정책 동향 |
|-----|----------------|

|                          |    |
|--------------------------|----|
| 1. 개념 검토 .....           | 11 |
| 가. 외로움의 개념 .....         | 11 |
| 나.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 .....   | 16 |
| 2. 국내·외 정책 및 사업 사례 ..... | 20 |
| 가. 해외 정책 사례 .....        | 20 |
| 나. 국제 정책의 과정과 특징 .....   | 26 |
| 다. 정부별 정책 동향 .....       | 29 |
| 라. 지역 계획 및 사업 사례 .....   | 36 |

---

### 제3장      전북도민 외로움 실태 분석

|                          |    |
|--------------------------|----|
| 1. 조사 및 분석 개요 .....      | 45 |
| 가. 문체부의 ‘사회적 연결척도’ ..... | 45 |
| 나. 전북도민 조사 개요 .....      | 49 |
| 2. 조사 결과 .....           | 52 |
| 3. 사회적 연결척도 분석 결과 .....  | 65 |
| 가. 분석 방법 .....           | 65 |
| 나. 분석 결과 .....           | 67 |

---

### 제4장      외로움 대응 정책방향과 과제

|                                             |     |
|---------------------------------------------|-----|
| 1. 외로움 대응 정책 방향 .....                       | 77  |
| 가. 방향 설정 .....                              | 77  |
| 나. 비전과 목표 .....                             | 80  |
| 2. 외로움 대응 추진 과제 .....                       | 83  |
| 가. 전북도민 외로움 예방·치유 조례 제정 .....               | 83  |
| 나. 전북형 외로움 지수 개발과 실태조사 .....                | 85  |
| 다. 외로움 치유 플랫폼 : 가칭문화로안녕센터 조성 및 운영 .....     | 86  |
| 라. 의료기관의 사회적 처방 연계, ‘외로움 치유 보건 시범사업’ .....  | 91  |
| 마. RISE 연계, 외로움 치유 사회적 처방 활동가 양성 및 지원 ..... | 94  |
| 바. 심리방역 안전기지 발굴 : ‘마음챙김, 우리동네 마음 둘 곳’ ..... | 95  |
| 사. 외로움 없는 주간(Loneliness-Free Week) 개최 ..... | 97  |
| 아. 외로움의 문화적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 99  |
| 자. 전담부서 지정 및 종합계획 수립 .....                  | 101 |

---

### 제5장      요약 및 제언

|               |     |
|---------------|-----|
| 요약 및 제언 ..... | 105 |
|---------------|-----|

|                      |     |
|----------------------|-----|
| 참고문헌 .....           | 111 |
| 영문요약 (Summary) ..... | 114 |

##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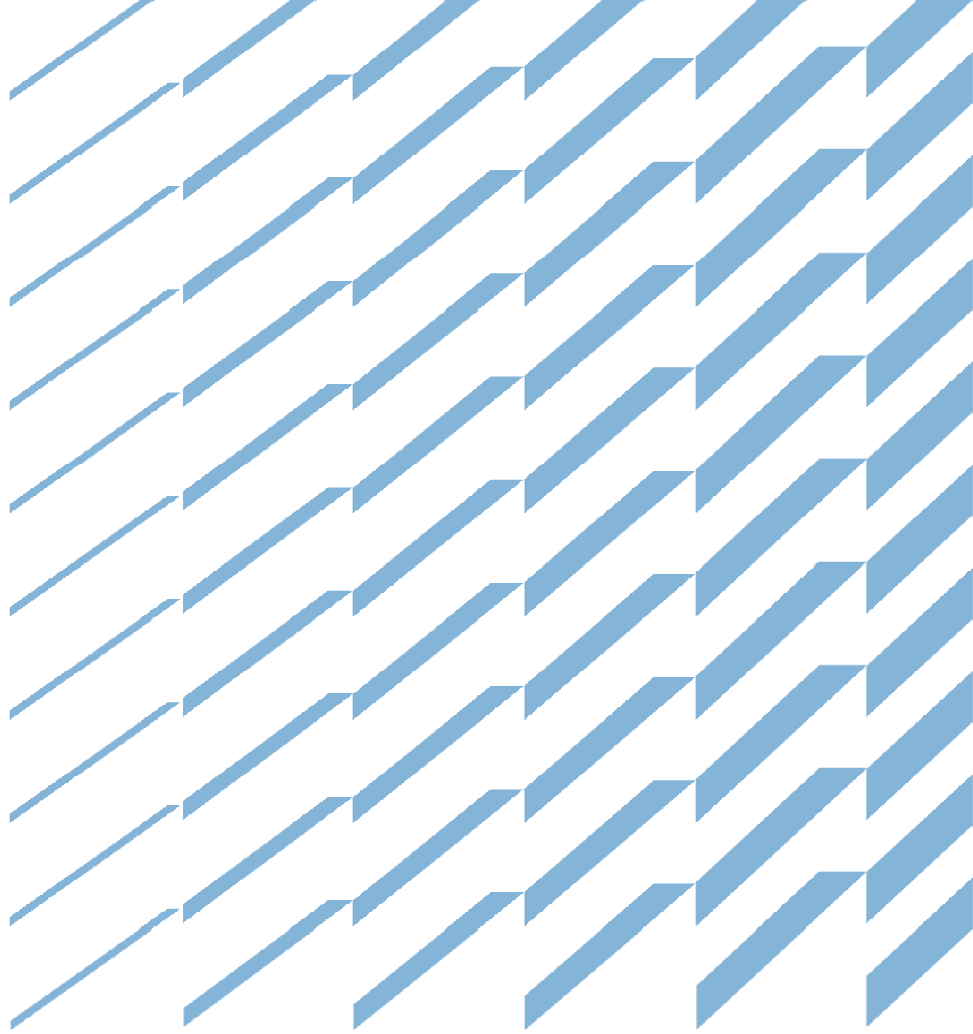
### LIST OF TABLES

|                                                   |    |
|---------------------------------------------------|----|
| [표 2-1] 일반적인 예술치유 관점에서 바라본 치료와 치유의 관계 .....       | 18 |
| [표 2-2] 외로움 관련 정책 : 관련 부처들의 정책 업무 내용 .....        | 26 |
| [표 2-3]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         | 27 |
| [표 2-4]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요 .....             | 29 |
| [표 2-5] 제2차 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 중 위로와 공감을 위한 정책 내용 ..... | 30 |
| [표 2-6] 문화로 사회연대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                | 32 |
| [표 2-7]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 세부사업 .....      | 37 |
| [표 2-8] 부산시 외로움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                | 40 |
| [표 2-9] 횡성군 외로움 정책 .....                          | 41 |
| [표 3-1] 사회적 연결척도 사회적 연결지수 .....                   | 70 |
| [표 3-2] 사회적 연결척도 유형별 특징 .....                     | 70 |
| [표 3-3] 사회적 연결지수 영향요인 분석 .....                    | 72 |
| [표 3-4] 인구집단별 사회적 연결지수 변인 차이 분석 .....             | 74 |
| [표 4-1] 전북도 외로움 대응 정책의 비전 설명 .....                | 80 |
| [표 4-2] 외국의 외로움 관련 행사 사례 .....                    | 98 |

## 그림 차례

###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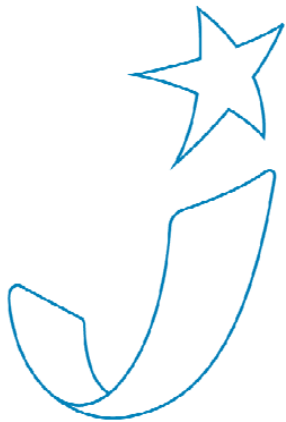
|                                                  |     |
|--------------------------------------------------|-----|
| [그림 2-1] 외로움과 유사 개념의 구분 .....                    | 14  |
| [그림 2-2] 외로움과 정신건강 문제의 유형화와 측정도구 .....           | 16  |
| [그림 2-3] 문화적 치유의 범위 .....                        | 19  |
| [그림 2-4] 사회적 연결 지표와 국가 간 수준 비교 .....             | 25  |
| [그림 2-5]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 .....                      | 27  |
| [그림 2-6]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계획의 비전과 목표 .....        | 36  |
| [그림 2-7] K-외로움 대책 체계도 .....                      | 38  |
| [그림 2-8] 대화기부 운동 홈페이지 홍보 .....                   | 39  |
| [그림 2-9] 대화기부 운동 홈페이지 홍보 .....                   | 41  |
| [그림 2-10] 군산문화재단의 문화로 사회연대 주관 사업 .....           | 42  |
| <br>                                             |     |
| [그림 3-1] 전북도민의 외로움 관련 사회적 연결지수 .....             | 67  |
| [그림 3-2] 전북평균 및 전국평균 값의 세부 지표 비교 .....           | 68  |
| [그림 3-3] 사회적 연결척도 유형별 응답 분포 .....                | 69  |
| [그림 3-4] 사회적 연결척도 유형별 사회적 연결지수 .....             | 69  |
| <br>                                             |     |
| [그림 4-1] 희망하는 사회적 관계의 유형화 .....                  | 79  |
| [그림 4-2] 전북도 외로움 정책의 대상과 범위 .....                | 79  |
| [그림 4-3] 전북도의 외로움 대응 정책의 비전 체계 .....             | 82  |
| [그림 4-4] 매개 인력 활용 지역의료와 지역자산의 연계 모델(영국 사례) ..... | 91  |
| [그림 4-5] 사회적 연결 척도에 따른 사회적 처방 예시 .....           | 92  |
| [그림 4-6] '사회적 처방 연계, 외로움 치유 보건 시범사업' 체계도 .....   | 93  |
| [그림 4-7] 완주 문화도시 사업의 문화치유 프로그램 사례(2023년) .....   | 99  |
| [그림 4-8] 치유 효과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방향 사례; 원예치유 활동 .....  | 100 |
| <br>                                             |     |
| [그림 5-1] 사회적 연결척도 유형별 응답 분포 .....                | 107 |
| [그림 5-2] 전북도의 외로움 대응 정책의 비전 체계 .....             | 108 |



# 제 1 장

##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1장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 배경<sup>1)</sup>

#### ■ 현대사회의 위험과 사회적 질병

-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사회적 신뢰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무너진 채 파편화되어 있음. 공동체가 개인을 보호하는 국가의 ‘공인된 처방’이 사라진(Bauman, 2000) 개인은 쉽 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예전보다 더, 자주 불안해하며 ‘피로사회’(한병철, 2012)를 살아감(장세길, 2022)
- 사회적 연결이 단절된 상태에서 성과 달성에 매달리는 현대인 대부분은 정신적 문제, 특히 외로움(loneliness)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 외로움은 사회적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겪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질병이자 위험임
-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전염병’(epidemic)으로 규정함. 몇 가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만큼이나 해롭고, 알츠하이머병 앓았을 확률이 두 배 이상 높다고 함(송인주 외, 2018).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질병으로서 외로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조 원에 달함
-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외로움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조사(2021)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13.6%) 자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더욱 심화한 외로움·고립감·인간관계 단절이었음”(이려정 외, 2022: 49)
- 고독사 등 노인의 외로움이 이슈화되었으나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외로움은 아동·청

---

1) 장세길·이중섭·이주연(2023), “사회적 질병 ‘외로움’과 사회적 처방 ‘연결사회’”(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86호)에서 주요 내용을 전재(轉載)함

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이 경험함. 여러 국가의 16~99세 주민 대상 연구 결과뿐 아니라, 국내 조사에서도 젊을수록 외로움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60대 이상의 경우 17%만 ‘자주’ 또는 ‘거의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하였고, 20대의 경우 40%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밝힘(정한울, 2018)

| 외로움과 수명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결과                                                                                                                                                                                                                                                                                                                                                                         |
|------------------------------------------------------------------------------------------------------------------------------------------------------------------------------------------------------------------------------------------------------------------------------------------------------------------------------------------------------------------------------------------------|
|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 혈액 내 단백질 175종과 사회적 고립 간에 연관성을 발견했으며, 외로움과는 단백질 26종이 연관된 것으로 확인했다. ... 해당 단백질 수치가 높은 이들은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실제 수명이 더 짧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 연구진은 이러한 높은 단백질 수치와 외로움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과정도 거쳤으며, 그 결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높은 단백질 수치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단백질 수치를 높이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외로움은 특히 5개 종류의 단백질 수치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 중 4개는 뇌가 정서적, 사회적 작업을 수행하고 신체의 상태에 대해 인지하는 부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노컷뉴스, 2025.1.4) |

## ■ 외로움의 처방으로서 사회적 연결

- 인간은 사회의 그물망 안에서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자기를 실현하는 사회적 존재임(이상현, 2021). 이러한 관계가 무너져 사회적 상호작용이 작동하지 않으면 구조적 고립에 처하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재적 불안감이 심해짐
- 기든스(Giddens, 1991)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익명과 상호작용이 확장되는 반면, 가족과 친족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친밀성 등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현대인은 존재론적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됨”(장세길 외, 2021: 111). 바우만(Bauman, 2022)은 “정치·경제·사회에서 주체가 되지 못한 개인에게 공포와 불안이 내재화되는데, 불안은 생활 곳곳에서 끈적거리며 항상 이어진다”(ibid., 112)라고 강조함
-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유대감은 사회적 차원의 정신건강을 논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Holt-Lunstad, Robles, & Sbarra, 2017), 코로나19 멘탈데믹(mentaldemic) 같은 시대에 더욱 유용함. 즉 현대사회의 위협에서 비롯된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데 사회적 연결이 중요함(이려정, 2022: 50)
-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사회적 외로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을 추진함. “사회적 처방은 정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약물적 치료보다는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통한 비약물적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장세길 외, 2021: 35)

- 스코틀랜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사회연결망의 형성을 강조함. 관계형 사람 중심의 접근으로 건강과 복지 향상, 환경개선, 교통접근성 강화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방지하려고 노력함. 이와 달리 일본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문제 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1인 가구 지원법)이 통과되고, 2021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을 추진함. 고독사 및 은둔형 외톨이에 집중하는 일본 정책처럼 한국에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영국 사례처럼 외로움의 대응으로서 사회적 관계망을 강조하는 정책을 구상함
- 문체부의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로 사회연대’임. 2023년 시범사업으로 ‘외로움과 연결 사회 거점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 예산을 증액하면서 사업명을 ‘문화로 사회연대’로 바꾸어 추진하였음

## ■ 외로움에 관한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과 전복의 실태

- 외로움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처방을 처음 추진한 영국에서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예산투입을 공식화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외로움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영국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우리나라의 문체부에 해당하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DCMS) 부처가 ‘외로움부’ 역할을 맡고, 차관이 외로운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겸직함
- 영국에서의 외로움에 대한 접근은 문화적이며, 2018년 10월 “연결사회: 외로움 해결 전략” 보고서에서 강조하듯 외로움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연결을 강조함.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로 사회연대’처럼 영국의 사례를 적용한 정부 사업과 더불어, 지역에서도 외로움의 문화적 접근을 강조하는 정책이 구상됨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지역별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또

는 청년·노인 등 특정 계층의 고립에 관한 조례(2023.8.31. 기준 30개)가 제정되었는데, 부산시와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조례 외에 '외로움'을 직접 다룬 조례가 따로 제정됨. 이 두 지역의 조례는 특정 계층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외로움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음

- 부산시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 조례(2019년),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2022년)

- 전북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만 제정됨. '전북도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문화의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이 강조되었으나 외로움을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지는 않음
- 행복지표 연구를 통해 도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일부 내용을 조사한 바가 있으나 외로움의 실태를 직접 조사한 사례는 없음. 2024년에 문체부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군산문화재단이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이 외에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 나. 연구목적

### ■ 도민의 외로움 실태에 기반한 문화적 정책 방향 설정과 과제 발굴

- 이 연구는 현대사회의 위험에서 비롯된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북도(이하 전북도)의 문화적 치유 정책 방향과 과제를 구상하여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을 분석하고, 전북도민의 외로움 실태를 조사하여 전북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이 연구의 첫 번째 의의는 도민의 외로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 대응한다는 점임. 또한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 영역의 고립 대응 정책과 달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외로움에 대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적 접근 방식을 새롭게 모색한다는 점에 또 다른 의의가 있음
-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전북에서 추진되지 않은 새로운 문화정책을 제안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제3차 전북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주요 과제로 제안할 계획임

---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5~2029년
  - 제3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기간(2025~2029)과 연계하여 정책 방향과 과제 구상
- 공간적 범위 : 전북도
- 내용적 범위 : 외로움에 관한 전북도의 문화적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발굴

### 나. 주요 연구 내용

#### ■ 외로움의 개념과 국내·외 정책 분석

- 기존 외로움, 또는 고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에 대한 국내·외 정책적 대응 분석
- 전북도에 적용이 가능한 시사점과 정책 방향 분석

#### ■ 전북도민의 외로움 실태조사 및 분석

- 전북도민 대상 외로움에 대한 실태조사
- 문체부의 사회적 연결 척도에 따른 외로움 실태조사의 유형 분석

#### ■ 외로움의 문화적 해소 정책·사업 사례

- 정부(문체부)의 정책 및 사업(문화로 사회연대) 사례 분석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의 외로움 대응 정책과 사업 사례 분석

#### ■ 전북의 외로움 정책 방향과 전략 과제 발굴

- 전북도민의 외로움 실태에 따른 전북의 해소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
- 외로움의 문화적 치유를 위한 전북도의 정책 과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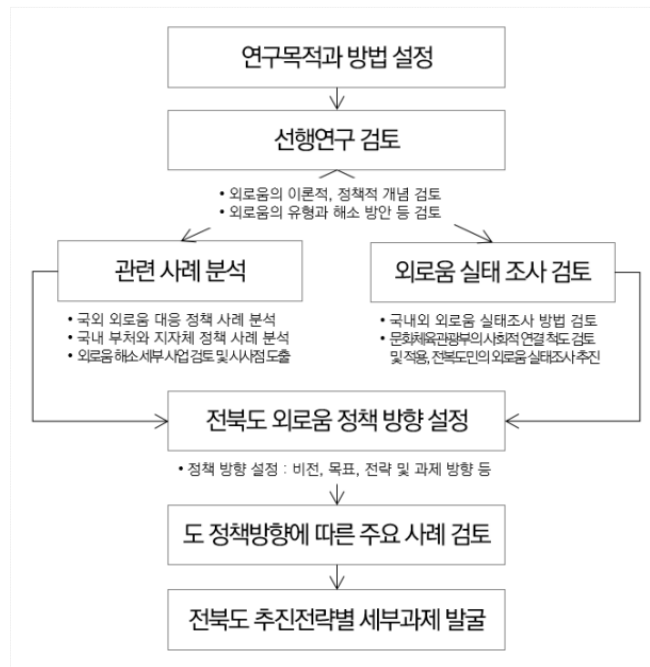
## 다. 연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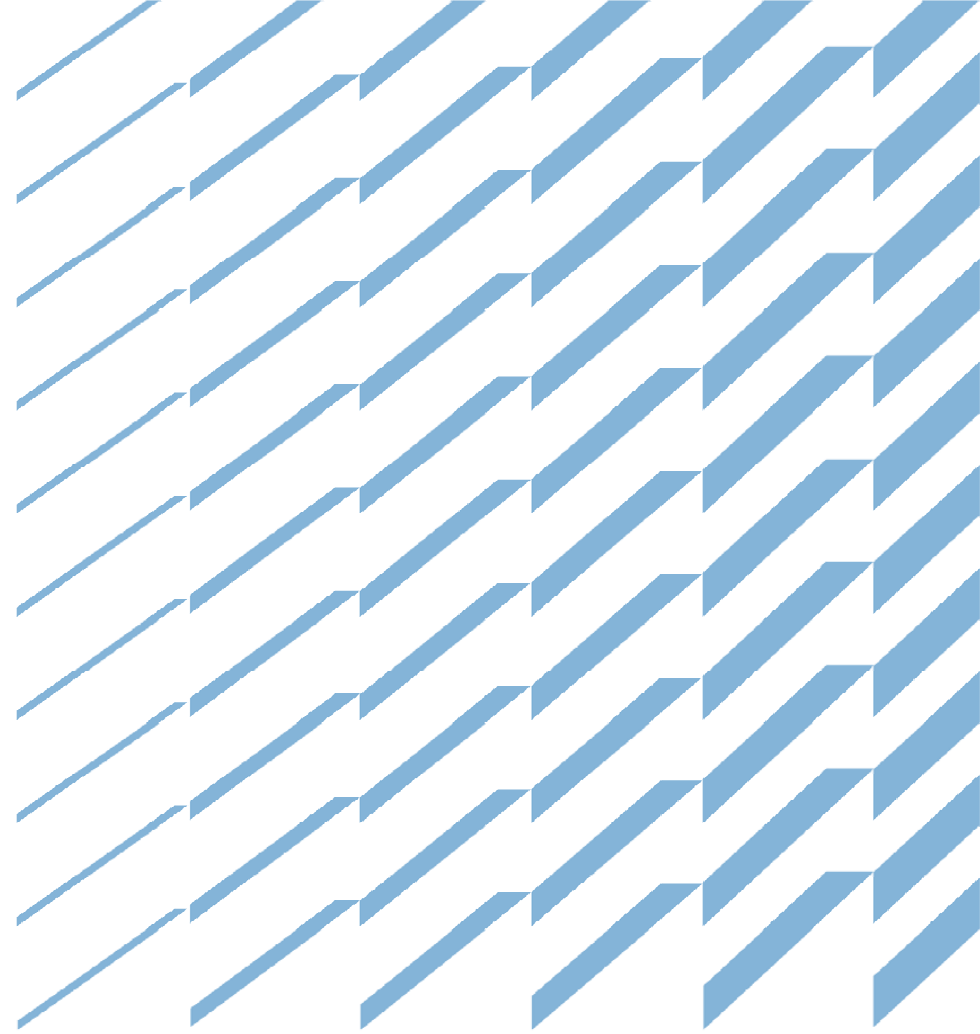
### ■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 동향 분석

- 외로움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검토하여 주요 개념을 분석하고, 외로움 예방과 해소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을 검토함

### ■ 사례 분석과 도민의 외로움 실태 조사

- (사례 분석) 외로움에 관한 국외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실행되는 외로움, 고독, 사회적 고립 등의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함
- (실태 조사) 전북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외로움의 실태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 조사하였음. 조사 내용은 문체부의 ‘사회적 연결 척도’ 측정 지표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음. 조사에 응답한 417명에 대하여 지역·성·연령별 국가 인구통계(2024년 10월 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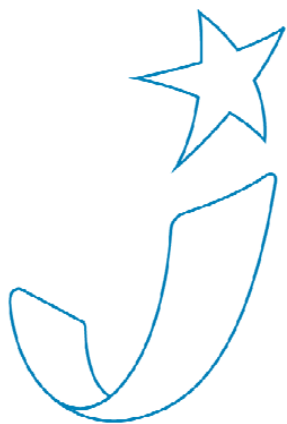




## 제2장

### 외로움의 개념과 정책 동향

1. 개념 검토
2. 국내·외 정책 및 사업 사례





## 제2장 외로움의 개념과 정책 동향

### 1. 개념 검토

#### 가. 외로움의 개념

##### 1) 유사 개념과의 비교

##### ■ 외로움과 고독(solitude)

- 외로움은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매우 불쾌한 경험”(Sullivan, 1953), “대인관계 양상이 양적 및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지각할 때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Perlman & Peplau, 1981), “관계의 결핍으로 인한 좌절 반응으로서 애착, 사회적 통합, 양육, 가치의 재확인, 의지할 수 있다는 감각, 문제 상황에 대한 도움과 같이 6가지의 관계적 기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Weiss, 1987),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격리”(Gierveld, D.J., 1989) 등으로 정의됨(황수진 외, 202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고독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 매우 쓸쓸함”으로 정의됨. 학술적으로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거의 접촉이 없는 것으로 동료로부터 따돌림, 관심의 부족 또는 상실에 의한 반갑지 않은 감정인 고독과 구분”(Townsend, 1974), “사회적 관계의 결핍에서 생긴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 불안, 자아개념 등을 수반하는 주관적인 경험인 외로움과 현재 행동상태인 고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Vincenzi & Grabosky, 1987) 등이 있음(황수진 외, 2021)
- 여러 연구에서도 설명하듯이 외로움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한 것을 말하며, 고독은 자발적으로 홀로 있음(voluntary aloneness)을 의미한다. 즉 고독은 “자신의 욕구와 의지를 품은 채 신중하게 선택한 결과”(Larson & Lee, 1996)로서, “스스로 ‘홀로 있음’으로써 그 시간을 자아 성찰, 여가 즐기기 등 생산적으로 꾸려나간다면 이를 ‘고독의 시간’이라 부를 수 있음”(Buchholz, 1997; Marcoen & Goossens, 1993; 서영석 외, 2020에서 재인용)

- ‘(즐거운) 고독’으로 해석되는 solitude는 자기 의지로 신중하게 ‘홀로 있음’을 선택한 결과(서영석 외, 2020)로, 개인의 성찰 및 성장과 밀접히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긍정적인 능력 개념임(강대선 외, 2021). 개인의 성장과 창조성에 도움을 주는 자발적 고독과 달리 비자발적 외로움은 홀로 있음에 대한 고통의 경험임
- 이런 이유에서 사회문제인 ‘고독사’는 ‘고립사’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 외로움과 고립(isolation)

- ‘고립’은 외로움이나 고독과 관련성 높은 개념이나 사회적 현상으로서 차이가 분명함. 고립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교류와 접촉이 결여된 상태”를 말함. 특히,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지닌 ‘홀로 있음’과 달리 고립은 ‘외톨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인기 없는’(Hymel & Rubin, 1985) 등 부정적인 단어로 정의됨
- 외로움과 고립은 첫째 주관성과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구분됨. 외로움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스러운 감정 상태, 주관적인 감정과 인식에 기반함(박민진 외, 2022). 고립은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사회적 관계의 부재나 결핍을 말함. 실제로 타인과의 접촉이 적거나 없는 상태를 뜻함(서영석 외, 2020). 즉,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에 대한 객관적 측면,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주관적 측면과 관련된 개념임(박민진 외, 2022)
- 정서적 측면에서 보면 외로움의 경우 고통스럽고 쓸쓸한 정서를 동반하며, 공허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경험이 핵심임. 이에 반해 어떤 사람이 고립된 것으로 지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서적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님
- 사회적 관계의 질에 초점을 두는 외로움과 달리,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양이 중요함. 외로움이 관계의 수보다 만족도와 관련되지만, 고립은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나 접촉 빈도와 관련됨
- 이러한 차이에서 각각의 대응 방식도 달라짐. 외로움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고립은 사회관계망 형성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자기관리나 건강관리에 더 관심을 보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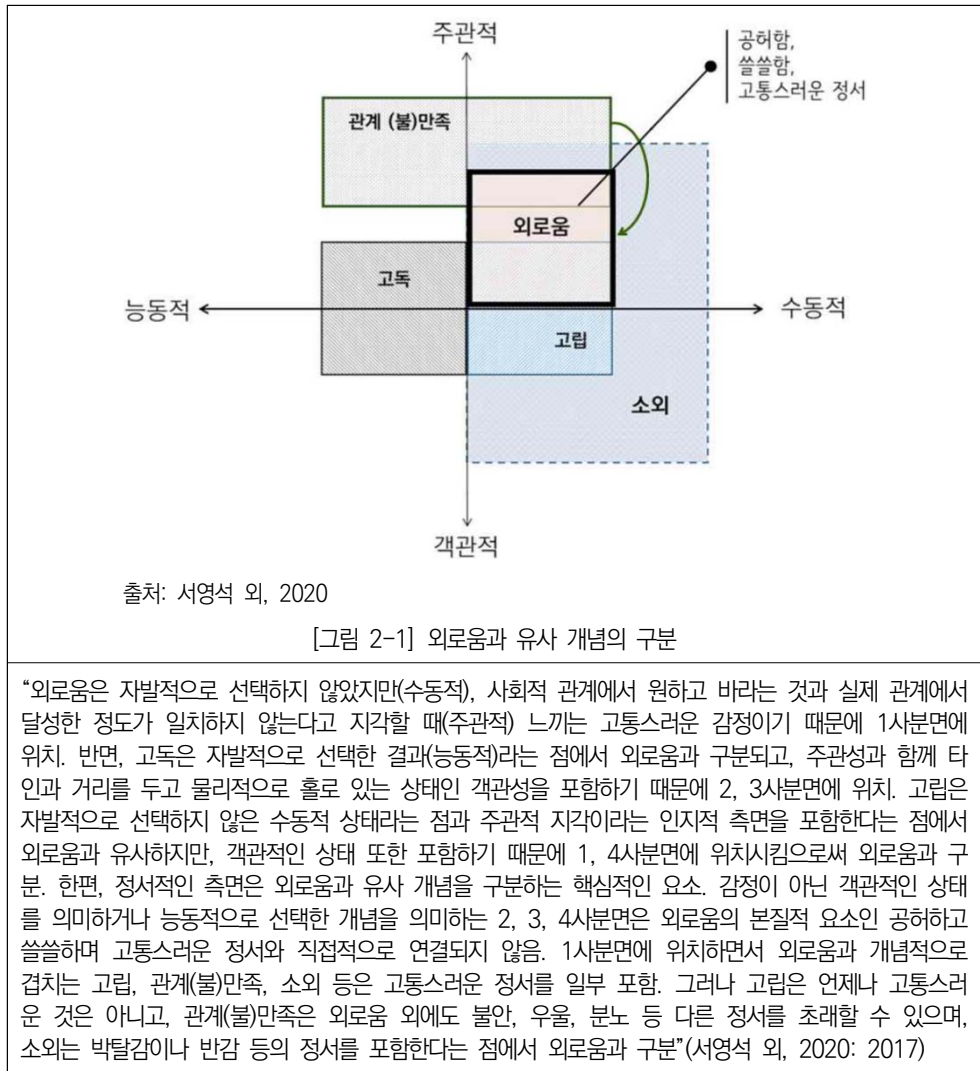
| 구분       |                           | 정의                                                                                                                                                                                                                                    |
|----------|---------------------------|---------------------------------------------------------------------------------------------------------------------------------------------------------------------------------------------------------------------------------------|
| 외로움      | Sullivan(1953)            |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매우 불쾌한 경험                                                                                                                                                                                                    |
|          | Perlman & Peplau(1981)    | ·현재의 대인관계 양상이 양적 및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지각할 때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                                                                                                                                                                                   |
|          | Weiss(1987)               | ·관계의 결핍으로 인한 좌절 반응으로서 애착, 사회적 통합, 양육, 가치의 재확인, 의지할 있다는 감각, 문제적 상황에 대한 도움과 같이 6가지의 관계적 기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br>·외로움은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으로 구분<br>·정서적 외로움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가깝고 친밀한 애착이 부족해서 발생하고 사회적 외로움은 공통된 관심과 활동을 공유하는 친구집단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에서 발생 |
|          | Gierveld, D.J(1989)       |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격리                                                                                                                                                                                                                     |
| 고독감      | Townsent(1974)            | ·가족과 지역사회에 거의 접촉이 없는 것으로 동료로부터 따돌림, 관심의 부족 또는 상실에 의한 반감지 않은 감정인 고독과 구분                                                                                                                                                                |
|          | Vincenzi & Grabosky(1987) | ·사회적 관계의 결핍에서 생긴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 불안, 자아개념 등을 수반하는 주관적인 경험인 외로움과 현재 행동상태인 고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          | 황수진 외(2021)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모두 사회적 관계의 부족에서 시작하지만 외로움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부족 자체를 의미하는 객관적 상태                                                                                                                                     |
| 사회적 고립가구 | 조례                        |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경북, 충남, 충북)                                                                                                                                                                                  |
| 고독사      | 법률 및 조례                   |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법률, 경상북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등)<br>·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전라북도,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시 등)            |

출처 : 황수진 외(2021), 법제처 및 지방자치단체(2023) 법률, 자치법규(행정안전부)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

## ■ 외로움의 개념적 정의

- 외로움을 다른 개념과 구분하는 첫 번째 조건은 ‘선택’임.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원치 않는 결과로 주어진 것인지를 의미하는 ‘선택’(능동적-수동적) 차원으로 각 개념을 구분할 수 있음. 두 번째 조건은 ‘인식’(주관적-객관적)임. 현실을 지각하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외로움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임

- 서영석 등(2020)은 이 두 가지 조건을 기반으로 외로움과 유사 개념을 구분하고 외로움을 개념적으로 정의함([그림 2-1] 참조)



- 결국 외로움은 “무의식적이며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 구체적으로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원하는 바와 실제 관계를 통해 달성한 정도가 일치하지 못함을 자각함으로써 나타나는 주관적인 고통의 경험”을 말함

## 2) 외로움의 유형

### ■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

- 외로움은 사회적 욕구 이론에 기초하여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으로 구분됨

| 종류      | 외로움의 원인                                                                                                    | 외로움의 해결방안                                                               |
|---------|------------------------------------------------------------------------------------------------------------|-------------------------------------------------------------------------|
| 정서적 외로움 | 부모, 배우자, 친한 친구 등 애착 대상이 없어서 나타나는 쓸쓸함의 감정, 불안함 또는 불안정한 느낌의 상태                                               | 애착 대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정서적 친밀감 제고                            |
| 사회적 외로움 | 공동된 관심과 활동을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인 친구나 동료집단, 이웃에 소속되지 못하는 것처럼 원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없거나 무너졌을 때 개인에게 나타나는 상실감, 지루함, 사회적 배제의 감정 |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거나 무너진 것이므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사회적 통합감을 형성하도록 지원 |

출처 : 최현영 외, 2016; 서울연구원, 2019 재인용 내용을 참조

### ■ 외로움의 요인

- 외로움의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족 요인, 직업 및 경제적 상황 요인, 주거 요인, 건강 요인, 사회관계 요인 등이 제시됨

| 구분             |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요인                                                                                                                                 |
|----------------|-----------------------------------------------------------------------------------------------------------------------------------------------|
| 사회인구학적 요인      | 성, 연령, 학력이 주요 요인. 여성, 노인, 청소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학령층에서 외로움의 수준이 높고 더 흔하게 경험                                                                       |
| 가족 요인          | 비혼, 사별, 이혼한 사람이 외로움을 더 느낌. 가족 구성원과 높은 사회적 접촉의 빈도가 외로움의 수준을 낮춤. 가족과의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음                                                   |
| 직업 및 경제적 상황 요인 | 직업의 유무, 이직, 소득(부적절한 경제적 상황: 한 달 전기세, 수도세, 식료품 등의 지출-노인).                                                                                      |
| 주거 요인          | 주거의 특성화 변화.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주거지 이동이 외로움 증가.                                                                                |
| 건강 요인          | 빈약한 건강상태.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이 낮은 노인이 외로움이 더 큼.                                                                                                       |
| 사회관계 요인        | 사회적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람(어려운 문제 해결 등)의 수와 빈도, 대인관계, 사회관계의 질에 대한 인식 (친한 친구가 있다, 사회관계 질이 높다는 인식). 즉 접촉의 양(사회적 관계의 크기)과 질(접촉과 관계에서의 만족감과 충족감) 모두 중요한 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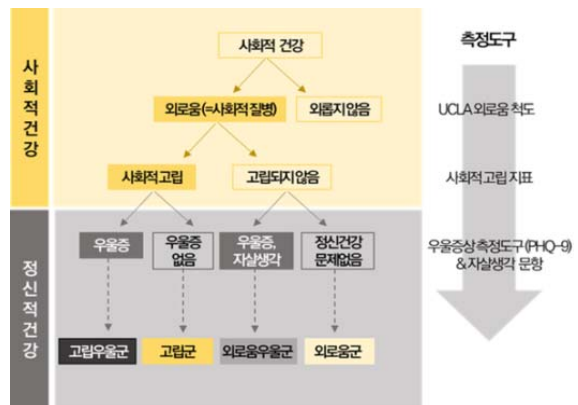
출처 : 강대선 외, 2021: 208-210 내용을 재구성

## 나.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

### 1)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 외로움과 정신적 건강

- 외로움은 우울증 등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과거에는 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외로움을 다뤘으나, 최근에는 신경과학계 같은 분야에서 외로움이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건강 측면에서 접근함
- “지속적인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 면역 기능, 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약물 복용과 같은 위험한 습관에 탐닉할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불안, 편집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외로움은 자살 위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iffin, 2010; 박민진·김성아, 2022: 130에서 재인용)
- 구체적으로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이 촉발되며(안명희, 2014; 여종일, 2016; Wei, Russell, & Zakallik, 2005), 심할 경우 자살 충동 및 행동으로 이어지거나(Heinrich & Gullone, 2006) 죽음이 앞당겨지는 것처럼(Murthy, 2020), 외로움은 현대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잠식시키는 위험요소임(서영석 외, 2020; 안수정 외, 2023: 132에서 재인용)
- 박민진·김성아(2022)는 사회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구분하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이 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알고리즘과 측정 도구를 제시함. 이 체계에 따르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건강에서 문제가 있고, 사회적 고립이 되지 않은 외로움이더라도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출처 : 임주애 외, 2023

[그림 2-2] 외로움과 정신건강 문제의 유형화와 측정도구

## ■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의 결과

- 이러한 측정 도구를 통해 파악된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처방이 중요해짐. “영국에서 실시된 사회적 처방 연구를 보면, 사회적 처방이 우울증의 임상적 치료의 보완책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Fancourt, Opher, & de Oliveira, 2020), 사회적 처방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증진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함”(Chatterjee, Camic, Lockyer, & Thomson, 2018; 임주애 외, 2023: 25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에서도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처방 연구가 이뤄졌음. 임주애 외(2023)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농촌 노인이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줌.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처방으로 외로움과 관련된 정신질환이 줄어들 수 있으며, 실제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에서 진행된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으로 외로움이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Reinhardt, Vidovic, & Hammerton., 2021)와 크게 다르지 않음

## 2) 문화적 치유

### ■ 치유의 개념<sup>2)</sup>

- 치유 개념은 다양함. 때로는 치유, 치료, 힐링이 연구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활용되며, 영어 표현에서도 healing, therapy, curing 등 다양함
- 여러 개념을 종합하면 대체로 전문적 의료행위라는 측면에서 치유와 치료가 구분됨. 예를 들어, 노은정(2005: 37)은 “치료가 진단·처방이라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와 관련된다면 치유는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적 환경의 의미를 넘어서 주변 환경을 치료적인 도구의 하나로서 여기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환자의 스트레스 극복을 도와주고 나아가 질병 치유에 효과적이며 건강 상태가 호전되게 도와주는 환경까지 포함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재인용)라고 설명함

---

2) 장세길(2021),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기능에 관한 사례 연구」 최종보고서 93-98쪽 내용을 발췌함

- 의료 분야 외적으로 법제화된 개념은 치유농업과 해양치유이며,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산림치유라는 개념도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됨. 이러한 개념을 종합하면, 정책에서 사용되는 치유는 치료보다 덜 전문적임. 하지만 치료농업에서는 치료가 중요한 기능에 포함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유농업에서는 치료-회복-예방을 모두 포괄하지만, 해양치유와 산림치유에서는 직접적 치료보다 예방적 성격이 강함
- 문화적 치유는 지금까지 예술치료 또는 예술치유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음. 문화계에서 말하는 예술치유는 하나의 장르로서 인식되지 않았음. 처방이나 진단에 근거한 예술치료처럼 분명한 영역이 아니라, 예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 중 하나로 이해되면서 “예술적 개입과 활동 과정”으로 개념화되었음.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예술‘치료’로서 활동을 검증하거나 효과를 측정하기보다 예술 자체의 과정에 집중하였는데,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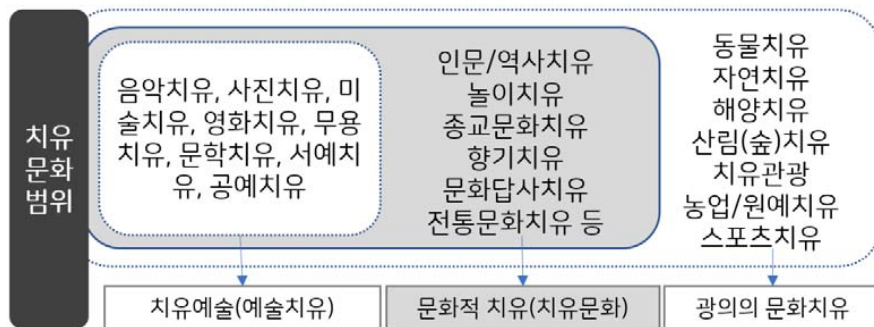
[표 2-1] 일반적인 예술치유 관점에서 바라본 치료와 치유의 관계

| 구분  | 치료(therapy)                                                          | 치유(healing)                                               |
|-----|----------------------------------------------------------------------|-----------------------------------------------------------|
| 개념  | ·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낮게 함<br>· 질병, 장애 또는 문제를 치료, 치유, 완화하려는 계획된 체계적 과정과 활동 | · 건강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 제공<br>·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행동 및 갈등 완화 |
| 요소  | · 진단(진찰), 처치(개입), 고침                                                 | · 예방, 안정, 회복, 치료 후 재발방지                                   |
| 목적  | · 외부 개입이 우선<br>· 회복(질병으로부터의 회복)                                      | · 회복(전인적 상태 회복, 관계 회복)<br>· 자생적 변화 과정                     |
| 출발점 | · 환자의 질병 또는 장애                                                       | · 정서, 감정, 심리적 문제<br>· 사회/환경과의 조화/균형 깨진 상태                 |
| 관점  | · 의료적 처치나 방법 측면: 약복용, 식이요법, 외과수술, 요양을 통한 치료                          | · 감성적인 부분과 자기 치유력의 의미를 더 많이 내포                            |
| 접근  | · 과학적 성격(객관적 진단, 인과관계)                                               | · 주관적 감정/정서의 활동을 포함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27쪽

- 치유농업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측정하면서 치유라는 전문 영역을 구축함. 이 연구에서 말하는 문화적 치유는 치유농업처럼 치유문화, 즉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독자적 영역으로 이해함.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유형·무형의 활동을 생활문화로 정의하여 독자 영역으로 정책화하였듯이, 치유문화, 즉 문화적 치유는 개인적이면서 사회적 문제를 문화로 치유하는 하위문화(영역)라고 할 수 있음

- 문화를 통한 치유가 목적인 문화적 치유는 “농업생산 중심 치유농업과 치유 중심 치유농업이 영역에 따라 다른 특징”(Hine 외, 2008; 김경미 외, 2013 재인용)을 보이는 예와 같음. “농업생산 중심의 치유농업은 농장주의 주도로 전원의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을 통해 치유가 이루어지고, 치유 중심의 치유농업은 외부기관이나 자선 단체와 연계된 농장에서 치료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농업과 치유 활동이 진행됨”(김경미 외, 2013: 915)
- 이 연구에서 말하는 문화적 치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문화 현장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예술치유는 미술, 사진, 공연, 음악, 무용과 같은 예술을 활용하는 치유적 활동임(교육, 창작, 관람, 체험 등). 문화적 치유는 더 넓은 개념으로, 예술 분야와 더불어 인문(역사, 철학, 문학 등), 종교문화, 유무형 문화재 등 문화유산, 음식 등 전통 생활문화 등까지 포함함.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치유를 예술치유를 포함하여 전통문화와 정신문화, 인문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설정함



출처: 고창군, 2019을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2-3] 문화적 치유의 범위

---

## 2. 국내·외 정책 및 사업 사례

### 가. 국외 정책 사례

#### 1) 영국의 외로움 정책<sup>3)</sup>

##### ■ 외로움을 사회문제로 인식,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

- 영국 사회는 외로움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다양한 연구 기관 및 비영리재단에서 외로움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강조하였음
  - 영국 신경재단(New Economic Foundation)은 외로움으로 인한 결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영국 기업이 치러야할 비용을 연간 25억 파운드로 추정.
  - 영국 적십자사(British Red Cross)는 900만 명 이상의 성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영국 아동지원센터(Action for Children)는 과반수의 부모가 자녀 양육 시 외로움에 따른 문제를 겪고,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 또한 매우 빈번한 것으로 발표
  - 비영리단체인 외로움 끝내기 캠페인(Campaign to End Loneliness)에 따르면 2013년 실시된 조사에서 영국 일반의 4명 중 3명이 하루에 진료하는 1~5명의 환자가 외로움 때문에 방문한다고 응답
- 조 콕스 외로움대책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이하 조 콕스 위원회)를 중심으로 외로움을 정책 문제로 정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조 콕스 위원회는 외로움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종합하여 2017년 ‘외로움 퇴치에 관한 행동 촉구 보고서(Combating loneliness one conversation at a time: A call to action)’ 발표함
  - 조 콕스 위원회 보고서는 외로움이 노인과 같은 특정 연령층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등 전 국민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임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외로움 정책을 제안함. (1) 국민의 외로움 수준을 매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 도구와 국가 지표를 개발할 것 (2) 외로움 퇴치를 주요 직무로 하는 담당 책임자를 지정하고 국가적 리더십을 세울 것 (3) 외로움 감소를 위한 불특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프로젝트와 노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것

---

3) 정보탐·윤소영·이성우(2022),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현안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함

- 2018년, 영국정부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 퇴치 전략을 발표함. 영국정부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써 외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주관적 감정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핍감, 동료애의 상실감”으로 정의함
- 2018년 10월,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조 콕스 의원 최종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로움에 대한 차관급 리더십을 구축하였고, 연결사회: 외로움 대처 전략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er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을 발표하였음
- 외로움(loneliness)을 고독(solitude),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구분하고, 일시적으로 느끼는 외로운 감정이 아닌 사회적 네트워크에 속해있음에도 느끼는 만성적인 외로움에 대한 경험을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설정함

## ■ 외로움에 대한 정책 방향 : 관련 부처의 협업, 예방과 사회적 연결

- 외로움차관 임명과 부처 협업을 진행함
  - 외로움 정책을 전담하도록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부(DCMS)를 주관부처로 지명하고, DCMS 내 스포츠·관광·문화유산·시민사회 차관(Minister for Sport, Tourism, Heritage and Civil Society)을 외로움 차관(Minister for Loneliness)으로 겸직하도록 임명
  - DCMS 주도로 9개 정부부처 협업하여 추진되는 범정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연결사회: 외로움 대처전략), 크게 3가지 목표를 설정: ①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② 국가정책 전반에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고려, ③ 외로움에 대한 근거 기반 개선 및 사례 발굴
- 외로움이 심각한 건강 악화 및 기타 부정적인 결과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는 데 관심을 둠
  - 2023년까지 국립보건서비스와 함께 ‘사회적 처방’ 사업 실행 주요 주체인 커뮤니티 커넥터(community connector)들이 영국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모범 사례와 평가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화 계획함
  - 주로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지자체, 기업, 보건 및 자원봉사 영역, 지역사회 등에서 사회적 연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중요 사례를 제공함
  - 런던을 포함하는 잉글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이 실행 중이며,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 지역은 각각 독자적인 외로움 대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함

## ■ 주요 정책 내용

- 사회적 연결 구축 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을 조성함
  - 외로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 연결 구축 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을 정부가 조성함. 이 기금은 외로움 퇴치를 위해 국립 복권기금과 협동조합 공동체 투자 재단(Co-op foundation)의 지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약 183억원(1,150만 파운드) 규모임
  -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봉쇄조치로 외로움 정도가 심화되자 외로움 해소 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DCMS는 2020년 말 외로움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예술, 도서관, 자선사업, 라디오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약 120억 원(750만 파운드)의 추가예산 편성함(DCMS, 2020)
- 외로움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조사연구를 진행함
  - UCLA 외로움 척도를 바탕으로 외로움 측정지표(간접 및 직접 지표 등 4개 문항)를 개발하고 배포함. DCMS는 외로움 참여 기금(loneliness engagement fund) 지원을 받은 단체와 협력기관이 외로움 측정 지표를 사용하여 대내외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외로움 퇴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함
  -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지역사회 삶 조사(community life survey)' 등의 관련 사회조사를 통해 외로움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겪고 있는 외로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확보함
-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함
  - '외로움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Let's talk loneliness)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이에 대해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불편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목표로 함
  - 매년 외로움 인식 주간(loneliness awareness week)을 운영하고, 캠페인 실시 배경, 목표, 로고, 다양한 참여방식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함
- 민간 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성화함
  - 외로움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을 시민사회 참여로 바라보고, 개인, 지역 자원봉사단체부터 전문자선단체까지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정부 부처뿐 아니라 70여 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외로움 대처 네트워크(Tackling loneliness network)를 구성함
  - '외로움 극복 허브'(The Tackling Loneliness Hub) 온라인 포털(tacklinglonelinesshub.org)을 개설함

○ 정신건강케어 프로그램(사회적 처방)에 문화예술기관 연계가 확대되도록 노력함

- 국립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2006년부터 정신건강케어 서비스를 약물 위주의 치료에서 문화예술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하는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사업을 추진함. 또한 친교모임, 예술·체육활동 등과 같은 여가 형태의 사회적 처방이 사람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효과적이었다는 영향을 확인하면서, ‘사회적 처방’ 사업의 확대 차원에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과 같은 문화예술기관 연계를 강화함(UK Government, 2021)
- 사회적 처방의 핵심적 작동방식은 지역자원을 잘 알고 있는 매개인력(link-connector)이 상담을 통해 환자가 특정 활동에 참여하도록 제안·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 문화예술 연계 프로그램에서 매개 인력은 전문예술인이기보다는 제3섹터 등에서 오래 활동하여 지역 내 프로그램이나 자선활동 정보에 익숙한 시민활동가가 대부분임(최보연, 2019)

영국의 ‘Compassion Frome Project’

- (추진 배경)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영국 서머셋의 프롬 마을에서 사회적 관계 강화를 통한 고립감 해소를 5년(‘13~’18)간 추진
- (추진 내용) 상담해주는 사람(헬스 커넥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커뮤니티 커넥터)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카페’를 운영
- (성과) 프롬 마을 응급실 입원 비율은 14% 감소(같은 기간 서머셋의 응급실 입원 비율은 29% 상승)

## 2) WHO 사회적 연결 위원회 구성과 글로벌 지수<sup>4)</sup>

### ■ 사회적 연결 위원회 구성

- WHO에서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코로나 19이후의 새로운 긴급한 건강 위협으로 규정짓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사회적 연결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Connection)를 구성함
- 외로움의 문제가 노인이나 청소년 등에 국한된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연령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인식함. 또한 충분한 사회적 연결이 없는 사람이 뇌졸중, 불안, 치매, 우울증, 자살 등의 신체나 정신 건강의 위협에 더욱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함

4) 정현진. “WHO, ‘고립문제’ 대응 위한 글로벌 지수 만든다”, 아시아경제, 24.05.18.  
(<https://v.daum.net/v/20240518063529004>) 내용을 정리함

- 미국, 짐바브웨, 일본, 스웨덴, 칠레 등 세계 각 지역의 주요 정책 입안자 등 10여 명이 모인 이 위원회는 3년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함
- "외로움은 하루 15개비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미국 공중보건 수장인 비백 머시 의무 총감과 치도 음팜바 아프리카연합(AU) 청년 특사가 공동 의장으로 위원회를 이끌게 됨

#### ■ 사회적 연결 글로벌 지수(Global index on social connection) 개발 작업 착수

- 글로벌 지수가 있으면 세계적으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규모를 비교하는 정보로 만들 수 있고, 이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음.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사회적 연결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연결상태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수(index)를 만드는 것을 위원회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임
- 외로움, 사회적 고립을 막고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 작성 계획도 포함됨

### 3) OECD Social Connections 지표

#### ■ ‘How’s Life?’ 의 ‘사회적 연결’ 지표

- OECD는 37개 OECD 국가와 4개 파트너 국가 국민의 웰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구성하고 2010년 이후 그 변화양상과 그 실태를 파악하는 보고서인 ‘How’s Life? 2020’을 발표함
- 이 보고서는 건강, 주관적 웰빙, 사회적 연결, 자연 자본 등을 포함한 OECD Better Life Initiative의 15가지 차원을 자세히 다룸. 이중 ‘사회적 연결’ 지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과 질,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모두 다룸

#### ■ 사회적 지지 :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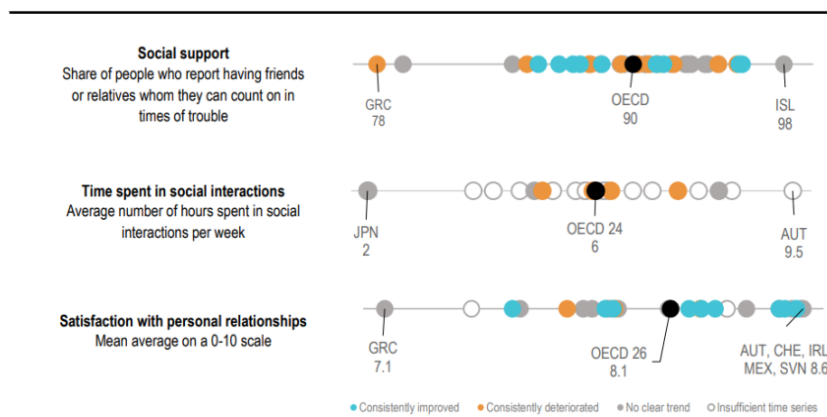
-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10명 중 9명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됨
- 그리스의 78%에서 아이슬란드의 98%에 이르는 분포

## ■ 사회적 상호작용에 소요된 시간 : 주당 사회적 상호작용에 소요된 평균 시간

- 사회적 상호작용에 소요된 시간은 주당 가족 및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주요 활동으로 간주함(즉, 유급 일, 돌봄 또는 공부와 같은 다른 주요 활동과 함께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제외)
- OECD 전체에서 15세 이상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6시간을 가족 및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데 보냄
  - 일본 주당 2시간에서 오스트리아 9시간 이상의 분포

## ■ 개인적 관계의 만족도 : 사회적 연결의 지각된 질

-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OECD 국가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관계의 질에 만족하며, 평균 평점(0-10점 척도)은 8.1임
- 국가 간 차이는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에 걸쳐 있으며, 국가 평균은 그리스의 7점에서 스위스, 아일랜드, 멕시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의 8.6점까지임



출처: OECD(2020), "Social Connections", in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2090ea8-en>

[그림 2-4] 사회적 연결 지표와 국가 간 수준 비교

## 나. 국내 정책의 과정과 특징

### 1) 외로움 정책 과정

#### ■ 인구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 약화

- 1인 가구나 고령화 비율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특정 대상에 대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로 나타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구 증가와 외로움의 문제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강조됨
-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사회적 고립 인구의 비율은 4.7%였으나 팬데믹 이후인 2021년은 6.0%로 증가하였음(통계청, 2019; 통계청, 2021d; 김성아, 2022에서 재인용)

#### ■ 정책대상별 외로움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 : 관련 부처들의 정책 대응

- 복지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문체부에서는 외로움과 관련된 대상을 1인 가구, 독거노인, 고립 은둔 청소년이나 청년, 전체 국민 등 다양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해 고립, 은둔,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고독 등의 개념을 통해 대응해 옴

[표 2-2] 외로움 관련 정책 : 관련 부처들의 정책 업무 내용

| 부처  | 소관과     | 정책 내용       |                                          |
|-----|---------|-------------|------------------------------------------|
|     |         | 대상과 개념      | 주요 업무 내용                                 |
| 복지부 | 지역복지과   | 고독사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실태조사, 교육·홍보 및 상담·교육 등       |
|     | 인구정책총괄과 | 고립·은둔 청년    | 고립·은둔 청년 실태파악, 전담인력 배치 등                 |
|     | 노인정책과   | 독거노인        | 독거노인 자립지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등               |
| 여가부 | 가족정책과   | 1인 가구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
|     | 청소년정책과  | 고립·은둔 청소년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포함, 은둔형 청소년 실태파악 연구           |
| 문체부 | 문화정책과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 외로움·고립감 사례관리,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사회적 연결성 척도 |

- 복지부는 은둔형이나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에 집중한 업무를 추진해 옴
- 고독사 예방사업('22.8~'23.11)을 통해 9개 시도 39개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전달체계 활용)에서 ① 안부확인형, ② 생활지원형, ③ 심리지원형, ④ 사후 관리형 등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평균 2개 이상 서비스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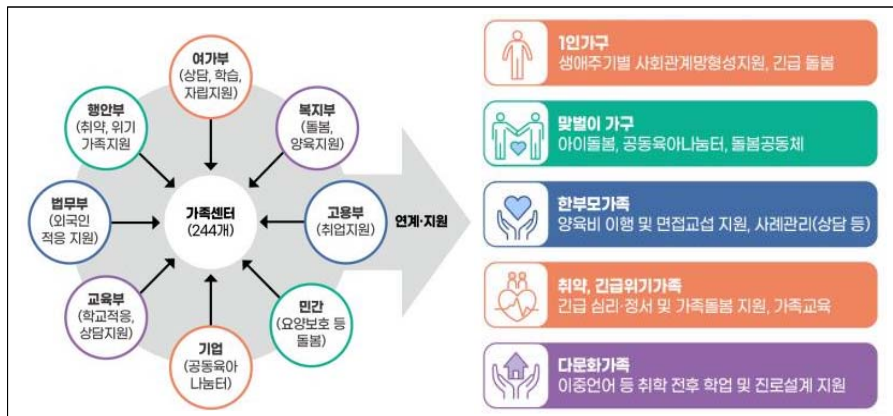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 고독사 감소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3개 핵심과제 수립

[표 2-3]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 추진전략(4대)                | 핵심과제(13개)                                                        |
|-------------------------|------------------------------------------------------------------|
| ①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 ①인적 안전망 활용 발굴, ②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발굴, ③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
| ②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 ①지역주민 연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②사회관계망 형성 ③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확인  |
| ③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 ①청년 정서·취업 지원, ②중·장년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③노인 지역사회 돌봄 지원, ④사망자·유가족 사후지원 |
| ④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 ①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②지역 주도형 서비스 지원 ③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

○ 여가부는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지원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식을 강조함

- 2023년 여가부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여가부를 포함한 타 부처의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제시함



출처: 2023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2023. 1. 9)

[그림 2-5]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

○ 문체부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에서 정의하여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정의하여 접근함

- 2022년부터 외로움·고립감 사례 관리,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사회적 연결성 척도 개발과 적용 등 사업을 추진함

## 2) 외로움 정책 특징

### ■ 외로움 정도와 대상을 구분, 부처별로 접근

- 외로움과 관련한 용어상의 차이가 있음. 외로움과 관련하여 정책용어로 사회적 고립감, 고립, 은둔, 고독 등의 개념이 혼용 또는 차별적으로 활용됨
  - 일반적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의 개념이 같은 정도로 사용되며, 고립이나 은둔, 고독(사)의 개념은 좀 더 특정 대상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해 정의하는 개념임. 또한 일반적으로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이 위험군이나 치료가 요하는 수준의 원인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음
- 정책 대상별로 접근하면서 관련 용어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도 함
  - 특정 대상별로 노인은 고독(사), 청소년과 청년은 고립이나 은둔 등으로 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함. 최근에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특정 대상별로 접근하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외로움에 대한 접근이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적 치유의 개념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며, 이를 위해 외로움의 정도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나 척도 개발이 중요한 정책 내용이 되고 있음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분산 추진되는 개별 부처의 정책 사업 간 연계 및 협업의 강화가 요구됨. 이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과 사업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함
  - 부처 간에 다양한 방식과 서비스로 외로움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국민 건강의 회복과 건강한 삶을 위한 차원에서 종합적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부처 간의 통합 서비스 개발이 미비함

### ■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정책 제안 발표

-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사회문화분과의 상반기 과제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를 채택하여 관련 부처의 정책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을 제안한 바 있음(2023.09.06. 보도자료)
  - 국민 대상 고립 및 은둔자 실태조사,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고립·은둔 예방을 위해 고립·은둔자 발굴 및 상담 지원 강화,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립 및 은둔 정책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성 등의 내용이 제안됨

## 다. 정부별 정책 동향)

### 1) 문재인 정부 : 문화치유 정책

#### ■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 2015년부터 문체부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처 치유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심리·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 2019년 WHO는 노인의 예술 및 문화 참여는 노화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에 따라 의료비용을 줄이고 입원 및 의료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어린이의 예술 및 문화 참여는 정서 발달을 향상시킨다는 임상연구를 발표함(Fancourt & Finn, 2019)
- 문화예술치유는 음악·미술·무용 등 예술매체와 심리·상담기법이 융합된 사업으로 문체부(사업 운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가 예술치유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국방부·법무부·여가부·교육부·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관련 시설에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음

[표 2-4]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 목적 | · 학교폭력·가정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처럼 심리적 상처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 지원 대상 | · 범죄 사전 발생 지역 거주 주민(가정폭력 포함) : 경찰서 및 치안센터, 문화파출소(경찰청)<br>· 군대부적응 병사 : 국군병원, 육군 그린캠프, 해군 블루캠프(국방부)<br>·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 wee프로젝트 관련 시설(교육부)<br>· 학교 부적응 학생 : 소년원학교(법무부) / 가정폭력 피해자 : 보호시설(일반)(여가부)<br>·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위험군에 있는 어르신 및 가족 : 문화시설, 치매안심센터<br>·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일반 국민(찾아가는 예술처방진) |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arte.or.kr/business/society/healingprogram/intro/index.do>

#### ■ 인문치유 프로그램

- 문체부는 2022년부터 ‘제2차 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2022~2027)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확대’ 사업을 추진 중임

5) 정보람·윤소영·이성우(2022),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현안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함

- 인문가치를 통해 코로나 관련 업무 종사자, 사회취약계층 등의 우울감, 혐오편견의 감정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인문강좌’ 운영, ‘여행길 인문학’, ‘치유순례길’ 조성,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

[표 2-5] 제2차 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 중 위로와 공감을 위한 정책 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기반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외로움 실태조사</li> <li>· 한국형 외로움 측정 척도 개발</li> <li>· (가칭) 외로움포럼 창립지원</li> </ul>                                                                        |
| 프로그램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에 맞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관리프로그램 운영('22년 4개 → '26년 20개)</li> <li>· 인문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지역센터 인력교육 지원 등</li> </ul>                                              |
| 지역센터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광역 단위 외로움 상담 종합지원 거점센터 지정('22년 2개, 기재부 협의 후 확대)</li> <li>·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li> <li>· 느슨한 공동체 프로그램</li> <li>· 정체감 회복을 위한 상담심리 프로그램 등</li> </ul> |

## ■ 관광 및 종교 분야의 치유 프로그램

- 관광영역에서는 치료중심의 의료관광에서 나아가 치유 즉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휴양, 건강관리, 뷰티, 스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관광(요가 명상, 숲 체험 등 심신안정을 돕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함
  - '20년 ①중대본 '문화예술을 통한 의료진 치유 추진방안'(4.25.), ②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 내수 시장 활성화 대책'(5.26.), ③중대본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8.9.)에 포함·발표됨
  -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로 지친 사회구성원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 우울 극복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코로나 심신안정 치유관광 체험 지원 추가됨
- 종교문화 체험에서 마음돌봄 치유를 기대하여 정책사업을 재구성한 경향을 보임
  - 종교계의 전문 분야(예: 사찰음식, 명상 등) 지식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직군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해소하는 '마음돌봄 치유 프로그램(신규)'. 종교시설 치유여행(순례길)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등을 추진함

## ■ 타 부처의 수동적 참여나 특정 대상의 낙인효과로 인한 효과성 문제 제기

- 기존 문화정책에서 외로움에 대한 정책은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치유와 웰빙을 목적

으로 문화예술, 인문학, 관광, 종교 등을 콘텐츠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함

- 그런데 문화치유 사업이 문체부의 프로그램을 다른 부처의 시설이나 거점의 대상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함. 실질적인 차원에서 외로움의 문제나 치유 대처에 대해 부처 간의 협력이나 종합적인 대응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또한 정책 대상을 소외계층으로 한정한다거나 특정 교정시설이나 특수시설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 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체험이나 교육 이외의 치유라는 고유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됨

## 2) 윤석열 정부 :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 ■ 외로움 대상의 독자적인 사업

- 국정과제인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과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제2차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개발 추진함

| 정부              | 국정기조·국정과제 | 문체부                                 | 인문학법 | ‘24년 문체부 업무계획                                       |
|-----------------|-----------|-------------------------------------|------|-----------------------------------------------------|
| 56.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br>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      | 4. 문화로 지역소멸, 고립감 등 사회문제해결<br>사회문화해결형 인문 문화 관련 추진 계획 |

### ■ 2022년 시범사업 및 2023년 사업의 성과 확대

- 문체부는 외로움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 ‘연결사회 지역거점’ 사업, 2024년 9개 거점센터 중심의 ‘문화로 사회연대’사업을 진행함
  - (2022년, 예산 290백만원) 외로움 척도 개발 및 실태조사, ‘외로움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 (2023년, 예산 1,285백만원) 5개 거점센터 중심 ‘연결사회 지역거점’ 사업을 추진
  - (2024년, 예산 1,718백만원) 사업명을 ‘문화로 사회연대’로 바꾸고, 전년 5개 거점센터를 9개 거점센터로 확대 운영, ‘외:로움이의 집’ 등 대국민 인식제고 캠페인을 본격 추진

## ■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지역거점센터 지정 운영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체부의 정책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문화를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 확산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
- (지역거점센터 지원) 7개 광역, 9개지역의 거점센터 사업운영 지원/(부처 간 협력 확장)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처방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마련/(지역거점센터 성과관리) 지역거점센터 교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사업 성과관리 및 확산

[표 2-6] 문화로 사회연대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 추진체계              |                                                                                        | 추진방법                                                                                           |
|-------------------|----------------------------------------------------------------------------------------|------------------------------------------------------------------------------------------------|
| 문체부               | - 사업 총괄 관리 및 감독                                                                        | 참여자 발굴<br>(외로움을 느끼는 누구냐)<br>↓<br>인문·문화상담<br>(사회적연결성척도검사, 심리상담)<br>↓<br>맞춤형 처방<br>(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지역문화진흥원           | - 전체 사업 운영 운영 및 성과관리 총괄<br>- 지역거점센터 운영지원 및 성과분석<br>- 사업성과 확산 및 외로움 인식제고 홍보             |                                                                                                |
| 지역거점센터<br>(+협력기관) | -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br>-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br>- 사회적 처방 프로세스 계획 및 운영<br>- 성과관리 및 외로움 인식제고 홍보 |                                                                                                |

| 구분     |    | 광역거점형                           |                          | 거점확산형                                |      |
|--------|----|---------------------------------|--------------------------|--------------------------------------|------|
| 운영방식   |    | 여러 기초지역에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전사적인 연결망 형성 |                          | 주요 사업지역에 거점센터를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으로 확산 |      |
| 운영장소   |    | 4개 이상 기초지역                      |                          | 1개 이상 기초지역                           |      |
| 지원예산   |    | 180백만원                          |                          | 110백만원~130백만원                        |      |
| 구분     | 지역 | 운영기관                            | 사업지(기초)                  | 관할지역                                 | 운영센터 |
| 광역 거점형 | 서울 |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양천구, 송파구 | 5개                                   | 6개   |
|        | 강원 | 춘천문화재단                          |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속초시       | 4개                                   | 4개   |
|        | 충남 | 충남문화관광재단                        | 공주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 4개                                   | 4개   |
| 거점 확산형 | 강원 | 연세대학교(원주)                       | 원주시                      | 1개                                   | 3개   |
|        | 전북 | 군산문화재단                          | 군산시                      | 1개                                   | 2개   |
|        | 전남 | 영암문화관광재단                        | 영암군                      | 1개                                   | 1개   |
|        | 경북 | 포항문화재단                          | 포항시                      | 1개                                   | 3개   |
|        | 경남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창원시                      | 1개                                   | 2개   |
|        |    | 김해문화관광재단                        | 김해시                      | 1개                                   | 6개   |

출처: 2024 문화로 사회연대 결과자료집

○ 체험형 반짝공간 <외:로움이의 집>

- 일시 및 장소: 2024. 12. 20.(금) ~ 12. 21.(토), 세원정밀 창고(서울 성수 소재, 약170평 규모)
- 참여대상: 고립·은둔 청년 및 일상 속 외로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 주요내용: 외로움을 주제로 한 공연·체험·전시·이벤트 프로그램 등
- 참여인원: 총 방문객 1,478명(사전예약자 862명, 현장방문객 6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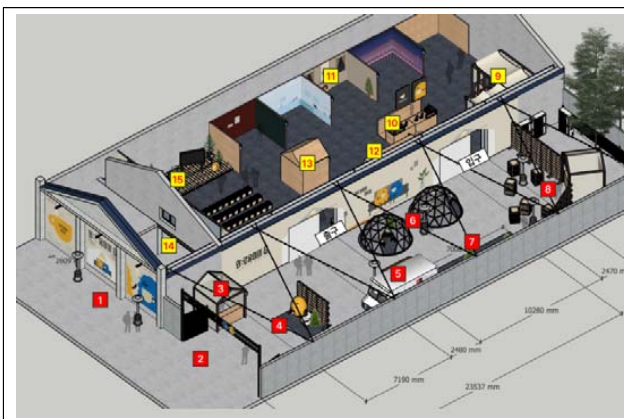


축제 컨셉트

저마다의 외로움이 연결되는 곳, 체험형 반짝공간 <외:로움이의 집> 이곳은 '가장 보통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집 '외:로움이의 집'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외로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방구석 가벼운 멋지처럼, 때로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외로움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 \* (로움이) 외로움을 의인화한 캐릭터로 청년층 등 대중의 관심 유도
- \* '집' 컨셉을 통해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아늑한 공간의 이미지 선사
- ✓ 중의적 의미: '로움이의 집' 방문을 통해 각자의 '각자의 외로움에서 벗어나다'(바깥 외, 외)는 의미 함축

- 공간 운영 현황



- 세원정밀 창고(서울 성동구 성수 이로18길 20)
- 약 170평(실내 약 90평, 실외 약 80평)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                                                                                                                                                                                                                                                                                                                                                                                                                                                                                                                                                                                                                                                                                                                                                                                                                                                                                                                                                                         | 현장사진                                                                                 |           |      |          |                                                                                                                                    |           |          |                                                                                                        |             |         |                                                                                                              |          |          |                                                                                      |          |          |                                                                                                            |        |                                                                                                                                                                                                                                                            |
|----------|------------------------------------------------------------------------------------------------------------------------------------|------------------------------------------------------------------------------------------------------------------------------------------------------------------------------------------------------------------------------------------------------------------------------------------------------------------------------------------------------------------------------------------------------------------------------------------------------------------------------------------------------------------------------------------------------------------------------------------------------------------------------------------------------------------------------------------------------------------------------------------------------------------------------------------------------------------------------------------------------------------------------------------------------------------------------------------------------------------------------|--------------------------------------------------------------------------------------|-----------|------|----------|------------------------------------------------------------------------------------------------------------------------------------|-----------|----------|--------------------------------------------------------------------------------------------------------|-------------|---------|--------------------------------------------------------------------------------------------------------------|----------|----------|--------------------------------------------------------------------------------------|----------|----------|------------------------------------------------------------------------------------------------------------|--------|------------------------------------------------------------------------------------------------------------------------------------------------------------------------------------------------------------------------------------------------------------|
| 1        | [메인]<br>공감콘서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적) 외로움 관련 문화·심리·인문·복지·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을 통한 대국민 외로움 공감의 장 마련</li><li>· (구성) 콘서트별 적정 관람인원(3개 콘서트x55명=155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부-청년일기장] 은둔경험 청년의 “나의 은둔 이야기”</li><li>- [2부-현장돌보기] “문화로 다시 연결되는 우리”</li><li>- [3부-인문콘서트] 인문과 예술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외:로움이의 수다”</li></ul></li></ul>                                                                                                                                                                                                                                                                                                                                                                                                                                                                                                                                                                                                                                 |    |           |      |          |                                                                                                                                    |           |          |                                                                                                        |             |         |                                                                                                              |          |          |                                                                                      |          |          |                                                                                                            |        |                                                                                                                                                                                                                                                            |
| 2        | [메인]<br>해소의 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적) 외로움을 다독이고 위로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li></ul> <table><tr><th>구분</th><th>주요 체험프로그램</th><th>협력기관</th></tr><tr><td>로움이네 다락방</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 사람만을 위한 음악과 낭독회 &lt;김쌤의 음악상담실&gt;</li><li>· 연결 그림 그리기 &lt;이어지는 마음, 함께하는 그림&gt;</li></ul></td><td>경남문화예술진흥원</td></tr><tr><td>로움이네 연구실</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디지털 의료기기 건강정보 측정</li><li>· 원격상담 기기 통한 전문상담 및 감정카드 제공</li></ul></td><td>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td></tr><tr><td>로움이네 거실</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성필사&lt;‘수취인불명’ 릴레이 크리스마스카드 전하기&gt;</li><li>· 마음:뜨개(뜨개 체험)</li></ul></td><td>영암문화관광재단</td></tr><tr><td>로움이네 옥탑방</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미로 즐기는 타로 심리상담</li><li>· 미니땃발 꾸미기</li></ul></td><td>김해문화관광재단</td></tr><tr><td>로움이네 산책길</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로움 안녕 나무 - 참여형 전시</li><li>· 추천 인문도서 감상, 안녕키트(반려식물) 선물 등</li></ul></td><td>춘천문화재단</td></tr></table> | 구분                                                                                   | 주요 체험프로그램 | 협력기관 | 로움이네 다락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 사람만을 위한 음악과 낭독회 &lt;김쌤의 음악상담실&gt;</li><li>· 연결 그림 그리기 &lt;이어지는 마음, 함께하는 그림&gt;</li></ul>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로움이네 연구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디지털 의료기기 건강정보 측정</li><li>· 원격상담 기기 통한 전문상담 및 감정카드 제공</li></ul> |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 로움이네 거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성필사&lt;‘수취인불명’ 릴레이 크리스마스카드 전하기&gt;</li><li>· 마음:뜨개(뜨개 체험)</li></ul> | 영암문화관광재단 | 로움이네 옥탑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미로 즐기는 타로 심리상담</li><li>· 미니땃발 꾸미기</li></ul> | 김해문화관광재단 | 로움이네 산책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로움 안녕 나무 - 참여형 전시</li><li>· 추천 인문도서 감상, 안녕키트(반려식물) 선물 등</li></ul> | 춘천문화재단 |    |
| 구분       | 주요 체험프로그램                                                                                                                          | 협력기관                                                                                                                                                                                                                                                                                                                                                                                                                                                                                                                                                                                                                                                                                                                                                                                                                                                                                                                                                                         |                                                                                      |           |      |          |                                                                                                                                    |           |          |                                                                                                        |             |         |                                                                                                              |          |          |                                                                                      |          |          |                                                                                                            |        |                                                                                                                                                                                                                                                            |
| 로움이네 다락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 사람만을 위한 음악과 낭독회 &lt;김쌤의 음악상담실&gt;</li><li>· 연결 그림 그리기 &lt;이어지는 마음, 함께하는 그림&gt;</li></ul>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      |          |                                                                                                                                    |           |          |                                                                                                        |             |         |                                                                                                              |          |          |                                                                                      |          |          |                                                                                                            |        |                                                                                                                                                                                                                                                            |
| 로움이네 연구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디지털 의료기기 건강정보 측정</li><li>· 원격상담 기기 통한 전문상담 및 감정카드 제공</li></ul>                             |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                                                                                      |           |      |          |                                                                                                                                    |           |          |                                                                                                        |             |         |                                                                                                              |          |          |                                                                                      |          |          |                                                                                                            |        |                                                                                                                                                                                                                                                            |
| 로움이네 거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성필사&lt;‘수취인불명’ 릴레이 크리스마스카드 전하기&gt;</li><li>· 마음:뜨개(뜨개 체험)</li></ul>                       | 영암문화관광재단                                                                                                                                                                                                                                                                                                                                                                                                                                                                                                                                                                                                                                                                                                                                                                                                                                                                                                                                                                     |                                                                                      |           |      |          |                                                                                                                                    |           |          |                                                                                                        |             |         |                                                                                                              |          |          |                                                                                      |          |          |                                                                                                            |        |                                                                                                                                                                                                                                                            |
| 로움이네 옥탑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미로 즐기는 타로 심리상담</li><li>· 미니땃발 꾸미기</li></ul>                                               | 김해문화관광재단                                                                                                                                                                                                                                                                                                                                                                                                                                                                                                                                                                                                                                                                                                                                                                                                                                                                                                                                                                     |                                                                                      |           |      |          |                                                                                                                                    |           |          |                                                                                                        |             |         |                                                                                                              |          |          |                                                                                      |          |          |                                                                                                            |        |                                                                                                                                                                                                                                                            |
| 로움이네 산책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로움 안녕 나무 - 참여형 전시</li><li>· 추천 인문도서 감상, 안녕키트(반려식물) 선물 등</li></ul>                         | 춘천문화재단                                                                                                                                                                                                                                                                                                                                                                                                                                                                                                                                                                                                                                                                                                                                                                                                                                                                                                                                                                       |                                                                                      |           |      |          |                                                                                                                                    |           |          |                                                                                                        |             |         |                                                                                                              |          |          |                                                                                      |          |          |                                                                                                            |        |                                                                                                                                                                                                                                                            |
| 3        | [메인]<br>니트컴퍼니 작은 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적) 니트컴퍼니(백수들의 가상의 회사놀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의 작은 시도. 대중과 함께 공감하는 소규모 장 마련</li><li>· (구성) 워크숍별 정원 5~6명 소규모 운영(5개 프로그램x5명=25명(적정인원))</li></ul>                                                                                                                                                                                                                                                                                                                                                                                                                                                                                                                                                                                                                                                                                                                                                                              |  |           |      |          |                                                                                                                                    |           |          |                                                                                                        |             |         |                                                                                                              |          |          |                                                                                      |          |          |                                                                                                            |        |                                                                                                                                                                                                                                                            |
| 4        | [부대]<br>시간의 방 with 니트 생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적) 은둔·고립 청년들의 고립의 백 가지 이유, 고립 기간의 회로애락, 고립에서 벗어나는 나만의 방법 등 고립 기간 동안의 기록과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 공유</li><li>· (구성) “시간이 더디게 흐르고 중력이 희박한 공간에서 버티는 방법’ 무업기간, 고립·은둔을 겪었던 청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고립에서 연결로 나아갔는지 그 흔적을 담은 전시</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부대]<br>감정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다양한 환경에서 외로움을 깨닫는 감정형 체험 전시</li> <li>· (구성) 시간 속 외로움, 날씨의 외로움, 상황 속 외로움, 세 가지의 감정지도 터널을 지나며 나의 마음속 숨은 외로움을 찾고, 다양한 감정 스티커로 나만의 감정 컵홀더 완성하기</li> </ul> |  |
| 6                                                                                                | [부대]<br>로움이네<br>찾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은둔·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별명: 사원)이 직접 참여자들에게 차를 제공하고, 환대하는 마주침 경험의 장 마련</li> <li>· (구성) 감정지도에서 완성된 컵홀더를 로움사원에게 전달하면, 따뜻한 위로와 메시지가 담긴 웰컴티 제공</li> </ul>          |  |
| <p>** 상시 프로그램: 해소의 방, 로움이네 우편함, 감정지도, 시간의 방, 로움이네 찾집, 로움이네 방<br/>→ 2일 간, 상시운영(30분 단위, 총 21회)</p> |                    |                                                                                                                                                                                                     |                                                                                    |

### ○ 추진성과

- 외로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각과 활동 제안으로 대국민 대상 인식개선 및 제고 : 외로움, 고립·은둔 등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다분야의 시각과 활동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다양한 분야 간 협업을 통해 외로움,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시너지 창출
- 체험형 팝업 축제를 통한 국민의 외로움 인식 개선 및 확산
- 외로움,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제시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창의적 시각 확산

### ○ 기존 문화예술 사업과의 차별성

- (기존 예술치유 사업) 외로움의 이유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접근하고자 하는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과 연관된 '사회적 외로움'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개인적 차원의 예술치유 사업과 차별
- (기존 문화향유 사업) 일반적 문화향유 사업은 문화활동은 참여자에게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효과 검증이 어려우나, 문화로사회연대 사업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의 특성으로 사회적연결적도 등을 활용한 증거기반 사업
- (기존 생활문화 사업)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등 생활문화사업은 공동체 등 관계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여러 문제들과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문화로사회연대 사업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 문제에 대해 문화영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며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짐

## 라. 지역 계획 및 사업 사례

### 1) 서울특별시\_‘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

- 서울시에서는 2024년 10월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인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하였음. 본 대책에는 “서울시민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를 내세우며 고독사를 포함한 외로움 예방, 재고립·재은둔 방지를 위한 3대 전략 7대 핵심과제를 제시함
- “전략1. 함께있다, 함께 활력 넘치는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24시간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기찬 일상을 지원하는 동시에, 맞춤형 신체 및 정신 건강 관리를 제공하여 외로움이 만성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을 제안함
- “전략2. 연결있다, 촘촘한 연결 든든한 서울”에서는 고립이나 은둔에 처한 시민들을 찾아내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단계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이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시함
- “전략3. 소통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며, 시민 간 소통을 통해 외로움과 고립·은둔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그림 2-6]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계획의 비전과 목표

[표 2-7]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 세부사업

| 구분                               | 세부사업                                                                                                                                                                                                                                                                                                                                                                                                                                                                                                                                                                                                                             |
|----------------------------------|----------------------------------------------------------------------------------------------------------------------------------------------------------------------------------------------------------------------------------------------------------------------------------------------------------------------------------------------------------------------------------------------------------------------------------------------------------------------------------------------------------------------------------------------------------------------------------------------------------------------------------|
| 전략1<br>함께있다,<br>함께 활력 넘치는<br>서울  | ①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하는 '똑똑 24 플랫폼'<br>-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똑똑 24 플랫폼<br>-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외로움 전담 콜센터 외로움 안녕 120<br>- 취약 고립가구발굴 및 미원을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설립한 사회적고립가구지원 센터의 외로움 상담 등의 연계 업무를 맡아 (가칭)고립예방센터로 확대 개편<br>-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서울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 시범운영<br>② 외로움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몸·마음 챙김'<br>- 공공·민간 심리상담기관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는 '서울시 심리지원 플랫폼'과 자치구 내 확대 설치 예정인 마음상담소<br>-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소셜 다이닝 등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건강동행밥상<br>- 권역별 어르신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장수센터<br>③ 일상 활력 통해 외로움 예방하는 '365서울챌린지'<br>- 자연힐링나들이, 책읽는 야외도서관, 잠수교 두박두박 축제 등 서울 대표행사와 연계한 챌린지 프로그램 구성 |
| 전략2<br>연결있다,<br>츠츠한 연결<br>든든한 서울 | ① 고립은둔 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진단<br>-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고립은둔가구를 찾아내고 고립가구가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업종을 고립가구 지원 신청의 창구로 활용<br>② 일상 회복을 돕는 서울연결처방<br>- 정원처방은 마음치유 처방 중 하나로 고립청년이나 난임부부등에게 정원과 산림을 활용한 원예 활동 프로그램 제공<br>- 15분 외출처방은 은둔·지원거부 시민들이 집 밖을 나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br>- 자립처방은 고립과 은둔을 벗어난 사람들이 재고립과 재은둔을 반복하지 않도록 돌봄공동체를 구축하고 자립하는 지원 실시<br>- 생애주기별 처방은 생애로 확대된 고립은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대별 맞춤형 처방<br>- 고립은둔 청년 대상의 서울청년기자개센터 운영 실시                                                                                                                                                                                                                             |
| 전략3<br>소통있다,<br>모두에게 열린<br>공간 서울 | ① 하드웨어(hardware)를 하트웨어(heartware)로 열린 도시공간 조성<br>-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이벤트를 잇는 하트웨어 개념 도입, 도시개발과 정비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복합문화공간도 적극 확보할 계획<br>② 시민과 공감, 세계와 연대<br>- 외로움 없는 주간을 신설 운영하여 서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외로움, 고립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주요도시와의 국제협력을 추진                                                                                                                                                                                                                                                                                                                                             |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2) 경상북도\_K-외로움 대책사업

- 지역 내 1인가구 및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4차 산업 발달 등의 사회적 변화로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이 대두됨. 동시에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 중심의 물질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최저계층의 복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됨
-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022년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따뜻한 동행 「K-외로움 대책」”을 추진함

| 목표              | 외로움을 채우는 심리적 공동체 조성                                                                                                                                                                         |                                                                                                                                                            |
|-----------------|---------------------------------------------------------------------------------------------------------------------------------------------------------------------------------------------|------------------------------------------------------------------------------------------------------------------------------------------------------------|
| 심리적 공동체 인식확산    | <b>① 외로움 인식개선 홍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로움 극복 홍보</li> <li>- 홍보대사 위촉 → 홍보활성화</li> <li>▶ 오픈특강</li> <li>▶ 어울림 한마당 축제</li> </ul>                                         | <b>② 마음 건강 스크리닝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체크데이</li> <li>- 매월 10일, 온오프라인 겸진</li> <li>▶ 외로움 실태조사</li> </ul>                          |
|                 | <b>③ 대화기부운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기부 POOL 구축</li> <li>▶ 대화기부 홈페이지 운영</li> </ul>                                                                                    | <b>④ 청년 소통회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고민상담소</li> <li>- 35개소(대학생, 근로자, 공무원)</li> <li>- 정신건강 콘텐츠, 대화기부연계</li> </ul>                   |
| 소통회복 프로젝트       | <b>⑤ 중장년 소통회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셜다이닝 「즐거운 한끼」</li> <li>- 은퇴자, 퇴직 준비자 등</li> <li>- 대화활동 및 정보기, 요리교실</li> </ul>                                                   | <b>⑥ 노년 소통회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로움예방 스토리텔링</li> <li>- 기용 아재와 찾아가는 대화나누기</li> <li>▶ 마음건강백세</li> <li>- 마음검진 및 경로당 프로그램</li> </ul> |
| 외로움 위험군 지원 강화   | <b>⑦ 외로움 극복 환경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 공감 우체통</li> <li>- 카페 업무협약</li> <li>- QR코드 활용 마음검진 → 상담</li> </ul>                                                         | <b>⑧ 마음건강 안전망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로움 등대지기 양성</li> <li>- 심화 전문인력 양성(300명)</li> <li>- 외로움 지킴이 활동 수행</li> </ul>                  |
|                 | <b>⑨ 사회관계 형성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회복 프로젝트</li> <li>- 위기가족 / 가족갈등, 정서적 문제 관련 프로그램</li> <li>▶ 통합사례 관리자 교육</li> <li>- 외로움 위험군 / 통합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li> </ul> |                                                                                                                                                            |
| 외로움 산업 기반 관계 회복 | <b>⑩ 메타버스 기반 「마음건강 스퀘어」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메타버스혁신과 연계 플랫폼 구축 → 마음검진, 상담</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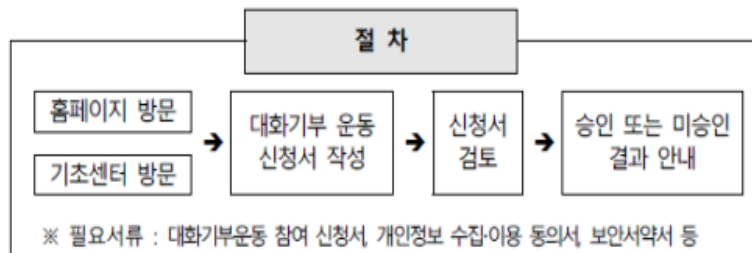
출처: 경상북도 외로움 종합대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고찰

[그림 2-7] K-외로움 대책 체계도

-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022년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따뜻한 동행 『K-외로움 대책』”을 추진함

## ■ 대화기부 운동

- 「K-외로움 대책사업」의 주요 사업인 ‘대화기부 운동’은 대화기부자와 대화요청자가 서로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외로움 극복 운동으로 기부자와 요청자가 1:1로 매칭되어 소통기술, 진로/취업, 취미, 대인관계 등과 관련한 대화주체에 맞춰 대화를 나누도록 함
- 2023년 기준 대화기부자는 총 2,079명으로 요청자는 1,484명, 대화기부 활동건수는 4,011건으로 나타남
- 대화기부 운동은 캠페인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정서적 돌봄을 실천하는 사례로서 외로움이라는 현대사회의 보편적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로 지역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출처: 경상북도 외로움 종합대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고찰

[그림 2-8] 대화기부 운동 홈페이지 홍보

### 3) 부산광역시\_부산 시민의 외로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 2019년 「부산 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부산 시민의 외로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2020)” 기초연구를 통해 부산 시민 외로움 실태조사 및 정책 과제들을 제시함
- 부산시의 외로움 예방 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제시됨. 첫 번째는 지원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들임. 본 사업은 외로움을 개인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외로움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임
- 둘째, 외로움 대응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업으로 외로움이 미치는 4가지 요인을 구분하여 해당 사업을 제시함
- 셋째, 외로움 고위험군 집단 등을 포커싱한 사업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개별적 특성에 맞춘 집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표 2-8] 부산시 외로움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 분야                          | 정책과제                                 |                                    |
|-----------------------------|--------------------------------------|------------------------------------|
| 외로움 예방<br>지원 기반 구축          | 외로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홍보 강화                |                                    |
|                             | 외로움 치유센터 설치 및 외로움 컨설턴트 양성            |                                    |
|                             | 외로움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                      |                                    |
| 외로움 예방을<br>위한 사회적<br>서비스 확대 | 가족관계 강화                              | 가족 관련 프로그램 확대                      |
|                             |                                      | 가족 해체에 대한 상담 서비스 강화                |
|                             | 주거환경 개선                              | 주거지역 커뮤니티 확장 및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공급     |
|                             | 경제적 자립 지원                            |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재무 컨설팅                 |
|                             | 사회적 관계 형성                            | 카페, 마트 등 일상적 공간을 활용한 대화서비스         |
|                             |                                      | 친구를 빌려주는 서비스                       |
|                             |                                      | 일상의 소통을 확장하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            |
|                             |                                      | 반려동물·식물, 반려로봇 등 외로움 케어 산업을 활용한 서비스 |
| 외로움 고위험<br>집단에 대한<br>지원     | 외로움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 사회성과보상사업 등 |                                    |

출처: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20), 부산 시민의 외로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 4) 황성군\_외로움 정책 수립

- 황성군은 2020년 군단위 최초로 외로움 관련 조례를 제정함. 당시 외로움정책 부서를 새롭게 구성하고 황성군 외로움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외로움 예방을 위한 공감적 치유를 강조하며 주민주도형 정책을 추진함
- 2021년 수립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서는 중점 추진사업으로 외로움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여 진행함



출처: 황성군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sg\\_3402114](https://blog.naver.com/hsg_34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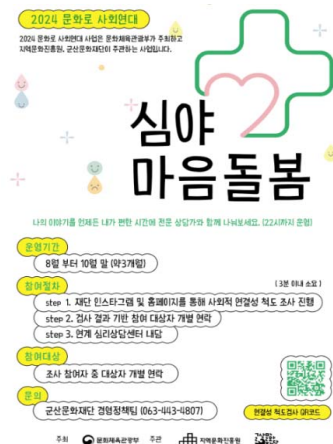
[그림 2-9] 대화기부 운동 홈페이지 홍보

[표 2-9] 황성군 외로움 정책

| 사업명                   | 주요내용                                                                                                                                                                                                                                                |
|-----------------------|-----------------------------------------------------------------------------------------------------------------------------------------------------------------------------------------------------------------------------------------------------|
| 청년학교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관내 만19세~60세 미만 청장년층</li> <li>- (내용)황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담당하며 청·장년층의 외로움공감과 해소를 위한 취미그룹 프로그램 운영</li> </ul>                                                                                                  |
| 외로움공감 콜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황성군민 대상</li> <li>- (내용)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외로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베프 활동가 정보를 제공</li> </ul>                                                                                                           |
| 외로움공감단 베스트프렌드 지역활동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관내 만19세~60세 미만 청장년층</li> <li>- (내용)사회적 고립·위기 가구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읍면별 모임을 통해 교육과정 수료 후 지역활동가(베프)구성</li> <li>- 9개 읍·면 1,356가구(황성 인구의 2.9%)를 조사하여 276명의 외로움 취약층을 발굴, 취약층 대상 자조 모임 추진 및 베프 사랑방 프로그램</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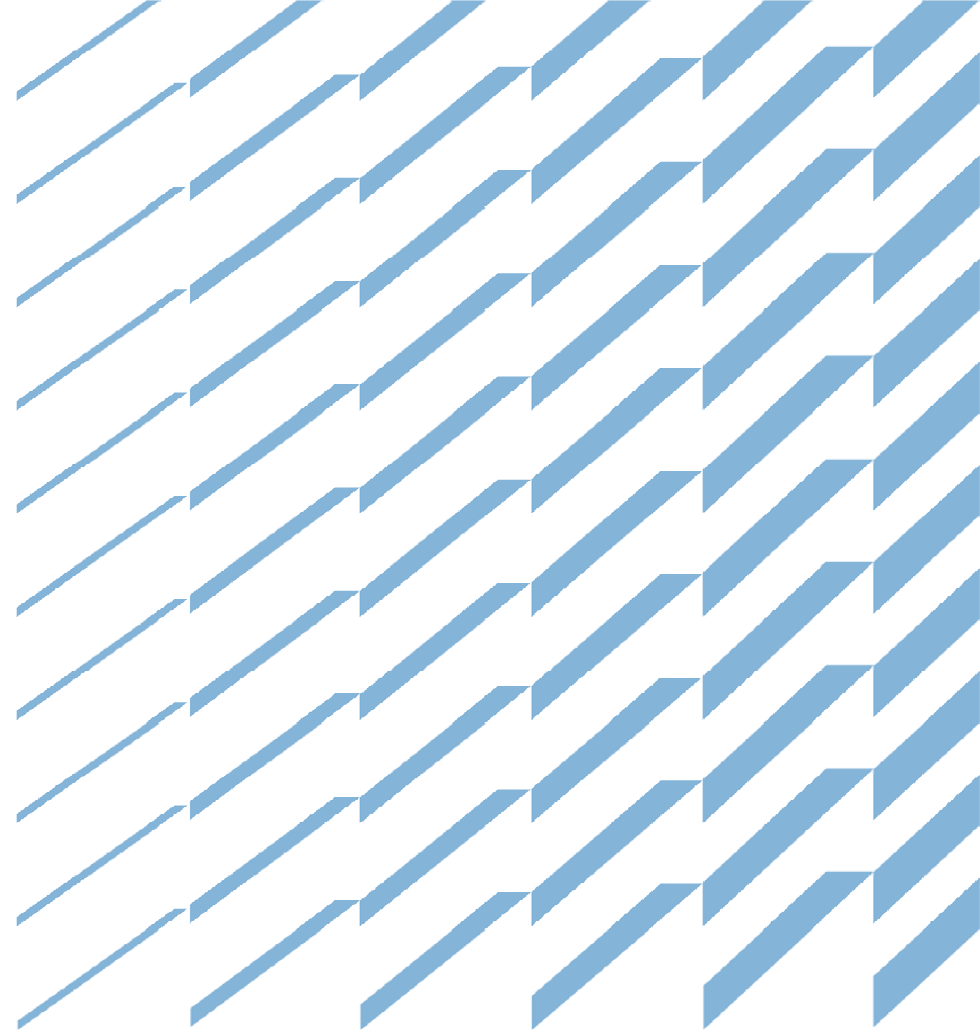
## 5) 군산시\_문화로 사회연대 사업(군산문화재단)

- 전북에서는 군산문화재단이 ‘문화로 연대’ 사업의 거점기관으로 운영되었음. 지역 내 자원과 협력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함. 민간 상업 공간과의 협력을 통해 목공예, 낭독회, 그림책 테라피 활동을 실시함
-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활동 시간대가 맞지 않아 상담 자체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심야마음돌봄’ 운영을 통해 야간시간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 사업으로 진행된 ‘심야마음돌봄’ 사업은 인문상담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시간에 전문 상담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사업임
- 상담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사회적 연결성 척도 검사’를 실시함. 이 검사를 통해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및 연결정도를 측정하여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심리적·정서적 상태에 따라 전문가 상담 혹은 맞춤형 처방을 받아 볼 수 있음. 맞춤형 처방은 개인의 감정과 상황,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하여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추천함



출처: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그림 2-10] 군산문화재단의 문화로 사회연대 주관 사업



## 제3장

### 전북도민 외로움 실태 분석

1. 조사 및 분석 개요
2. 조사 결과
3. 사회적 연결척도 분석 결과





## 제3장 전북도민 외로움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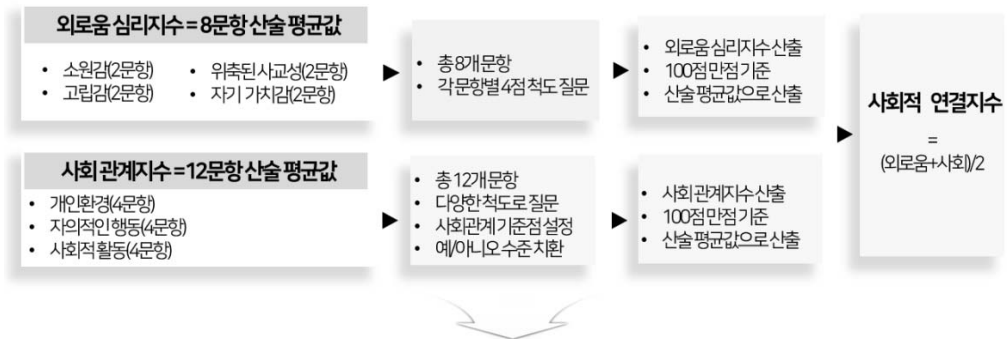
### 1. 조사 및 분석 개요

#### 가. 문체부의 ‘사회적 연결척도’<sup>6)</sup>

##### ■ 추진목적

-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참여자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을 ‘사회적 연결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함으로써 대상자별 사업 대상 범위 구분을 위한 그룹별 유형화로 효과적인 맞춤형 처방을 위한 기초자료 및 근거자료로 활용함

##### ■ 척도구성



| 문항구분        |     | 구분범위          | 구분 (Low) ← 사회 관계 → (High)        |      |      |      |
|-------------|-----|---------------|----------------------------------|------|------|------|
| 외로움<br>심리지수 | 1단계 | 31점 미만        | 1단계                              | (1)  | (2)  | (3)  |
|             | 2단계 | 31점 이상~39점 미만 | 2단계                              | (5)  | (6)  | (7)  |
|             | 3단계 | 39점 이상~51점 미만 | 3단계                              | (9)  | (10) | (11) |
|             | 4단계 | 51점 이상        | 4단계                              | (13) | (14) | (15) |
| 사회<br>관계지수  | 1단계 | 8점 미만         | (Low)<br>↑ 외로움<br>심리 ↓<br>(High) | (4)  | (8)  | (12) |
|             | 2단계 | 8점 이상~25점 미만  |                                  | (1)  | (5)  | (9)  |
|             | 3단계 | 25점 이상~34점 미만 |                                  | (16) | (15) | (14) |
|             | 4단계 | 34점 이상        |                                  | (12) | (11) | (10) |

6) 지역문화진흥원이 제작한 문체부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설명 자료집에서 발췌함

| 구분             | 조작적 정의                       | 개념적 정의                                                |
|----------------|------------------------------|-------------------------------------------------------|
| 1그룹<br>(심각집단)  | 외로움 심리지수와 관계지수가 매우 높은 상태(16) | 심리적인 외로움 수준과 사회적 관계 모두 심각한 수준이므로 치유를 위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집단  |
| 사업<br>주요<br>대상 | 2그룹<br>(경계집단)                | 심각단계 직전이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 처방에 의해 심각한 수준을 모면할 수 있는 집단       |
|                | 3그룹<br>(주의집단)                |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사회관계가 문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터치가 수월한 집단    |
|                | 4그룹<br>(관심집단)                | 사회적 연결 관리를 위한 관심이나 주의를 가지기 시작해야하는 집단                  |
|                | 5그룹<br>(자립집단)                | 사회적 연결 차원에서 자발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집단 |

## ■ 측정방법

- (조사대상) 지역거점센터별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 (조사방법) 각 문항은 최근 3개월 간의 생활, 생각, 느낌 등의 경험의 정도를 체크함
- (결과해석) 점수가 높을수록 유형별 연결성 정도가 낮으며, 평균점수 이상일 경우 외롭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비교적 강함

## ■ 산출방법

### ① 외로움 심리지수(8문항)

| 문항 구분           |                                  | 척도                                     | 환산 방법                                       |
|-----------------|----------------------------------|----------------------------------------|---------------------------------------------|
| 소원감             | 고민을 상의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 ① 전혀 아니다<br>② 아니다<br>③ 그렇다<br>④ 매우 그렇다 | 4점 척도를<br>100점 만점으로<br>환산<br>(응답 값-1)/3*100 |
|                 | 가까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                                        |                                             |
| 고립감             |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모른 채하는 것 같다        |                                        |                                             |
|                 | 나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                                        |                                             |
| 위축된<br>사회성      | 사람들이 교류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                                        |                                             |
|                 |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를 꺼리는 편이다           |                                        |                                             |
| 자기<br>가치감<br>7) | 나는 누군가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낀다 |                                        |                                             |
|                 | 나는 누군가의 행복해지는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

7) 자기가치감 항목의 경우 분석 시 역문항이므로 코딩 후 점수 환산이 필요함

② 사회적 관계지수(12문항)

- 외로움 심리지수 문항들은 인식이나 생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라면, 사회 관계 지수 문항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재 상황, 환경이나 행동, 활동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됨

| 문항 구분     |                                                                 | 원칙도                                                                               | 환산 척도                           | 환산 방법                                                      |
|-----------|-----------------------------------------------------------------|-----------------------------------------------------------------------------------|---------------------------------|------------------------------------------------------------|
| 개인<br>환경  |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외부인(동거가족 이외)의 방문 빈도는?                               | ① 하루 한 번 이상<br>② 1주 한 번 이상<br>③ 2주 한 번 이상<br>④ 한 달 한 번 이상<br>⑤ 월 1회 이하<br>⑥ 거의 없음 | ① 월 1회 이상<br>② 외부인 출입<br>거의 없음  | 각 환산된<br>척도를<br>100점<br>만점으로<br>환산<br><br>(①→0점<br>②→100점) |
|           | 현재 일(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① 예 ② 아니오                       |                                                            |
|           | 귀하의 현재 가구 내 일(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본인포함)                    | OPEN 질문                                                                           | ① 1인 이상<br>② 없음                 |                                                            |
|           | 최근 1년 이내에 경제적인 부담에 의해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① 아니오 ② 예                       |                                                            |
| 자의적<br>행동 | 지난 1개월간 얼마나 집 밖으로 외출하십니까?                                       | ① 하루 한 번 이상<br>② 1주 한 번 이상<br>③ 2주 한 번 이상<br>④ 한 달 한 번 이상<br>⑤ 월 1회 이하<br>⑥ 거의 없음 | ① 한달 2회 이상<br>② 한달 1회 이하        |                                                            |
|           | 일주일에 혼자서 식사하는 빈도는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 ① 하루 한 번 이상<br>② 1주 한 번 이상<br>③ 2주 한 번 이상<br>④ 한 달 한 번 이상<br>⑤ 월 1회 이하<br>⑥ 거의 없음 | ① 매일은 아니다<br>② 거의 매일 혼자 식사한다    |                                                            |
|           | 여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① 하루 한 번 이상<br>② 1주 한 번 이상<br>③ 2주 한 번 이상<br>④ 한 달 한 번 이상<br>⑤ 월 1회 이하<br>⑥ 거의 없음 | ① 한달 1회 이상<br>② 여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음 |                                                            |
|           | 주말 시간의 비율(혼자 ox)                                                | OPEN 질문                                                                           | 50% ① 이하<br>② 초과                |                                                            |
| 사회적<br>행동 | 평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사람(가족·친척·친구·이웃·동료)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① 있다 ② 없다                       |                                                            |

|                                                 |           |                     |  |
|-------------------------------------------------|-----------|---------------------|--|
| 최근 3개월 간 1달 평균 활동하신 대면/비대면 모임 활동 횟수는?           | OPEN 질문   | ① 1회 이상<br>② 없음(0회) |  |
| 경/조사시 연락이 오는 지인의 수는 몇 명쯤 되십니까?                  | OPEN 질문   | ① 1회 이상<br>② 없음(0회) |  |
|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거주하는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① 예 ② 아니오           |  |

## ■ 척도의 활용 방법

- 사회적 연결 척도를 통해 개인별 연결 척도를 다섯 그룹으로 설정하고, 2~4그룹을 대상으로 문체부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추진함
- 1그룹은 심각한 집단으로 문체부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복지부의 지원 대상자로 이관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5그룹은 말그대로 외로움과 무관한 집단임. 하여 외로움 관련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라기보다 문의사항에 대해 해결해주는 수준의 응대로 해결되는 집단으로 규정함

| 구분            |               | 대응 방안                                                                                                                 |
|---------------|---------------|-----------------------------------------------------------------------------------------------------------------------|
| 1그룹<br>(심각집단) |               | · 사회적인 문제성 정도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복지부의 지원 대상으로 이관 및 혜택 수급 방법 안내가 필요해 보임                                              |
| 사업 주요 대상      | 2그룹<br>(경계집단) | · 사회적 연결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실무적인 상담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 관련 구체적인 수요 파악 및 그에 대한 해결책을 염두해 둔 상태에서 응대가 필요함               |
|               | 3그룹<br>(주의집단) | ·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사회적 관계가 문제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적 연결 차원에서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경계집단과 마찬가지로 수요 파악 및 그에 대한 해결책을 염두해 둔 상태에서 응대가 필요함 |
|               | 4그룹<br>(관심집단) | · 사회적 연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해결책을 통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연결을 위한 가이드 및 단순 상담에 의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별적 대응 필요함             |
| 5그룹<br>(자립집단) |               | · 외로움에 대한 평소 인식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집단이며, 대국민 응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문의사항에 대해 해결해주는 수준의 응대로 요구 사항이 해결되는 집단임                |

## 나. 전북도민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과 내용

#### ■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전북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정책 구상을 위하여 일상에서 느끼는 외로움에 관한 실태와 외로움 해소 정책 방안을 조사함

#### ■ 조사 설계

| 구 분    | 내 용                                            |
|--------|------------------------------------------------|
| 조사 대상  | · 전북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
| 조사 기간  | · 2024년 11월 7일 ~ 2024년 11월 11일                 |
| 조사 건수  | · 총 417건                                       |
| 응답률    | · 12.0%                                        |
| 표본오차   |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pm 4.5\%p$                 |
| 가중치 보정 | · 2024년 10월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가중치 적용      |
| 조사 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통한 온라인조사 |
| 조사 기관  | ·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                                 |

#### ■ 조사 내용

| 구분        | 조 사 내 용                                                                                                                                                                                                                                                                                                                                           |
|-----------|---------------------------------------------------------------------------------------------------------------------------------------------------------------------------------------------------------------------------------------------------------------------------------------------------------------------------------------------------|
| 응답자<br>특성 | · 지역/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형제 유무/ 1인 가구 여부/ 직업/ 직장 지위/ 가구소득/ 계층 구분                                                                                                                                                                                                                                                                                 |
| 조사<br>항목  | · 최근 한 달간의 감정 상태<br>· 외로움 심리지수<br>· 개인 환경 : 외부인 방문빈도, 경제활동 여부, 가구 내 경제활동 인원수, 경제적 부담 식사 못한 경험<br>· 자의적 행동 : 혼자 식사하는 빈도, 한 달간 외출 여부, 평소 여가 활동 빈도, 주말 혼자 보내는 비중<br>· 사회적 관계 : 우울할 때 도움 요청 가능한 지인 여부, 경조사 시 연락이 오는 지인 수, 거주지역 내 도움 요청 이웃 여부, 상황별 도움 요청 지인 여부, 대면 및 비대면 모임 횟수<br>· 소속집단과 외로움 대처 및 해소 방법 : 소속집단, 외로움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 외로움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 |

##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온라인 조사로 진행함.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접촉표본에 대해서는 최종 통계처리에서 제외하며, 의견표명 유보 표본에 대해서는 유효 표본으로 포함하여 통계 처리함
- 전체 문항에 대해 끝까지 응답한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국가인구통계(2024년 10월) 기준으로 Weight 처리함. 단, 100점 평점의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아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SPSS를 통해 빈도 및 교차 분석함. SPSS로 자료처리 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계산하여 일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우선순위는 각 항목의 빈도에 우선순위별 점수를 곱한 값으로 순위를 산출함
  - 우선순위별 점수 =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 $S_n = \text{항목별}[(1\text{순위 빈도} \times 3\text{점}) + (2\text{순위 빈도} \times 2\text{점}) + (3\text{순위 빈도} \times 1\text{점})]$

## 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 응답자 특성 |         | 사례수(명) | 비율(%) |
|--------|---------|--------|-------|
| 전체     |         | (417)  | 100.0 |
| 지역     | 전주시 완산구 | (77)   | 18.4  |
|        | 전주시 덕진구 | (72)   | 17.3  |
|        | 군산시     | (62)   | 14.9  |
|        | 익산시     | (65)   | 15.6  |
|        | 정읍시     | (25)   | 6.0   |
|        | 남원시     | (19)   | 4.6   |
|        | 김제시     | (21)   | 5.0   |
|        | 완주군     | (24)   | 5.8   |
|        | 진안군     | (6)    | 1.4   |
|        | 무주군     | (5)    | 1.2   |
|        | 장수군     | (4)    | 1.0   |
|        | 임실군     | (6)    | 1.4   |
|        | 순창군     | (6)    | 1.4   |
|        | 고창군     | (13)   | 3.1   |
|        | 부안군     | (12)   | 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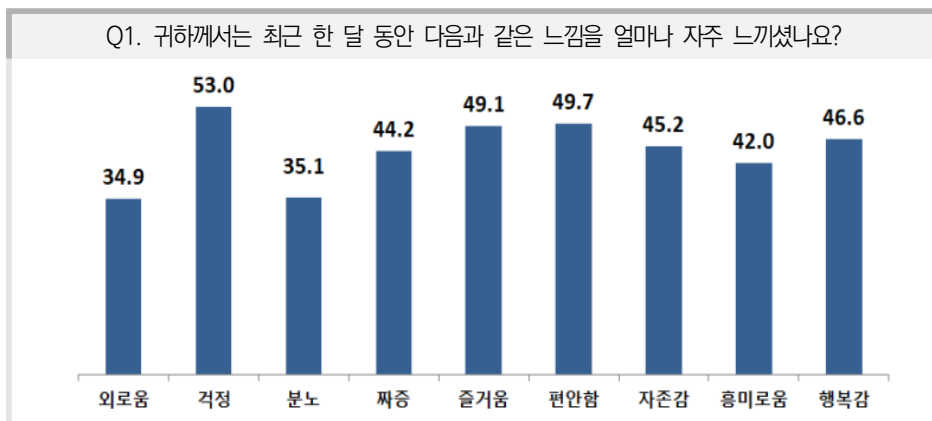
|          |                     |       |      |
|----------|---------------------|-------|------|
| 성별       | 남성                  | (208) | 49.9 |
|          | 여성                  | (209) | 50.1 |
| 연령       | 20대                 | (57)  | 13.7 |
|          | 30대                 | (45)  | 10.8 |
|          | 40대                 | (64)  | 15.3 |
|          | 50대                 | (88)  | 21.1 |
|          | 60대 이상              | (163) | 39.1 |
| 최종<br>학력 | 고졸 이하               | (136) | 32.6 |
|          | 대학 재학 이상            | (281) | 67.4 |
| 혼인<br>상태 | 미혼                  | (102) | 24.4 |
|          |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 (277) | 66.5 |
|          | 기타(별거/이혼/사별)        | (38)  | 9.1  |
| 형제<br>유무 | 형제 있음               | (388) | 93.1 |
|          | 형제 없음               | (29)  | 6.9  |
| 1인<br>가구 | 1인 가구               | (59)  | 14.1 |
| 직업       | 1인 가구 아님            | (358) | 85.9 |
|          | 농/임/어업              | (19)  | 4.5  |
|          | 자영업                 | (17)  | 4.1  |
|          | 판매/영업/서비스           | (34)  | 8.2  |
|          | 생산/기능/노무            | (51)  | 12.3 |
|          | 사무/관리/전문            | (112) | 26.8 |
|          | 주부                  | (52)  | 12.5 |
|          | 학생                  | (23)  | 5.6  |
|          | 기타                  | (17)  | 4.0  |
|          | 무직/퇴직               | (92)  | 22.0 |
| 직장<br>지위 | 정규직 임금근로자           | (158) | 37.8 |
|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67)  | 16.1 |
|          | 자영업자                | (18)  | 4.4  |
|          | 비경제활동               | (174) | 41.7 |
| 가구<br>소득 | 200만원 미만            | (68)  | 16.4 |
|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01) | 24.3 |
|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87)  | 20.8 |
|          |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50)  | 12.0 |
|          |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57)  | 13.6 |
|          |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17)  | 4.1  |
|          | 700만원 이상            | (37)  | 8.8  |
| 계층<br>구분 | 중상층                 | (143) | 34.4 |
|          | 하층                  | (198) | 47.4 |
|          | 모르겠다                | (76)  | 18.2 |

## 2. 조사 결과

### ■ 최근 감정 상태

- ‘최근 한 달 동안의 감정 상태’에 대해 ‘걱정’이 53.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남
- 45점 이상으로 조사된 감정 상태는 편안함(49.7점) > 즐거움(49.1점) > 행복감(46.6점) > 자존감(45.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40점 이상으로는 짜증(44.2점) > 흥미로움(42.0점) 순으로 나타남. 40점 미만으로는 분노(35.1점) > 외로움(34.9점) 순임
- 여성이 남성보다 ‘외로움’, ‘걱정’, ‘분노’, ‘짜증’, ‘즐거움’, ‘행복감’의 감정 상태 점수가 높은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편안함’, ‘자존감’, ‘흥미로움’의 점수가 높았음. 연령의 경우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걱정’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60대 이상에서는 ‘편안함’과 ‘자존감’이 가장 높게 조사됨. 1인 가구에서 ‘외로움’, ‘걱정’, ‘분노’, ‘짜증’에 대한 점수가 ‘다인 가구’ 점수보다 높았으며, 계층으로 보면 하층에서 ‘외로움’, ‘걱정’, ‘분노’, ‘짜증’에 대한 점수가 중상층보다 높았음

(n=417,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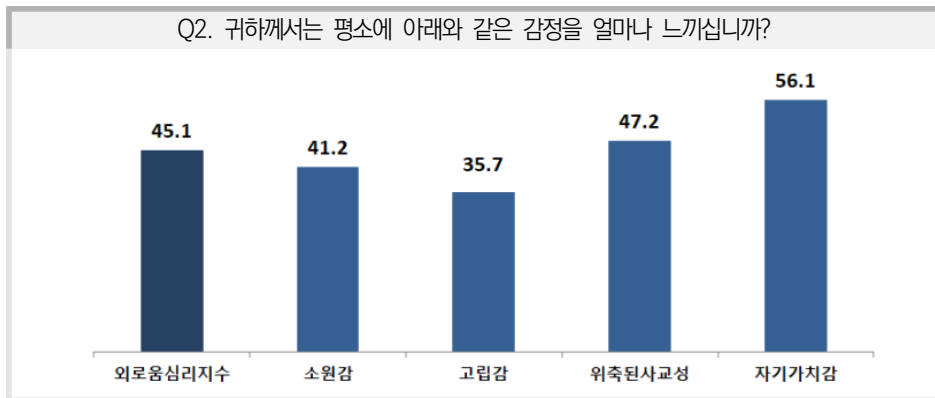
### ■ 외로움 심리지수

- 외로움 심리지수는 45.1점 수준으로 나타남. 구성 요소별로 보면 별 점수는 ‘소원감’

41.2점, ‘고립감’ 35.7점, ‘위축된 사교성’ 47.2점, ‘자기 가치감’ 56.1점이었음

- 남성의 외로움 심리지수(46.1점)가 여성(44.3점)보다 높았으며, 40대에서 49.4점으로 가장 높고, 20대에서 42.3점으로 가장 낮았음. 1인 가구의 경우 51.8점으로 다인 가구(43.5점) 대비 외로움 심리지수가 다소 높게 나타남. 직업별로 보면 농/임/어업의 심리지수가 5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의 심리지수가 41.3점으로 가장 낮았음. 이 조사에서도 하위 계층(47.6점)의 심리지수가 중상층(42.1점)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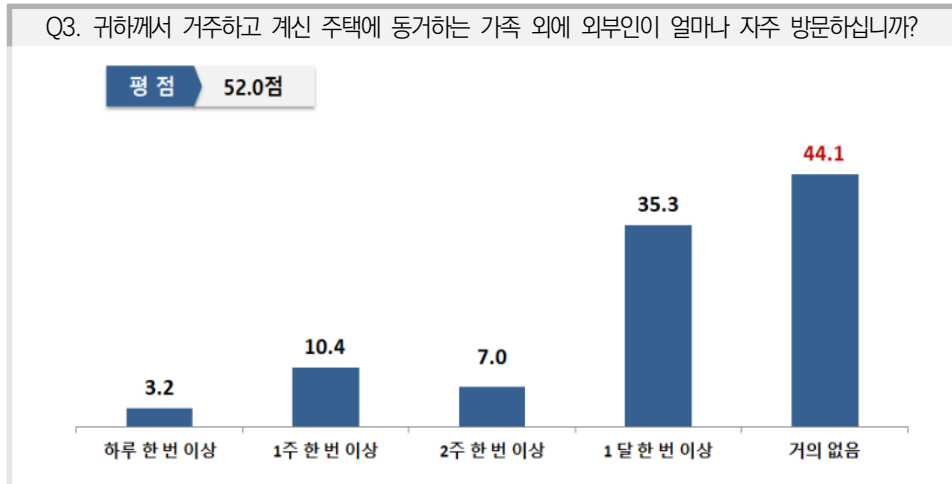
(n=417, 단위: 점)



## ■ 외부인 방문빈도

- 자기 집으로 외부인이 방문한 빈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1%가 ‘거의 없다’라고 응답함. 외부인 방문이 있는 경우, 1달 한 번 이상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주 한 번 이상(10.4%) > 2주 한 번 이상(7.0%) > 하루 한 번 이상(3.2%) 순으로 높게 조사됨. 외부인 방문 빈도의 평점은 52.0점임
- 여성의 경우 외부인 방문 빈도에 대해 ‘거의 없음’이 53.0%로 나타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연령이 낮을수록 외부인 방문이 ‘거의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50대의 경우 ‘거의 없음’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직업별로 보면 판매/영업/서비스에서 외부인 방문이 거의 없다라는 응답이 73.9%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계층 구분에 따라서는 하층에서 ‘거의 없음’의 비율이 48.6%로 중상층(40.1%) 대비 외부인 방문 빈도가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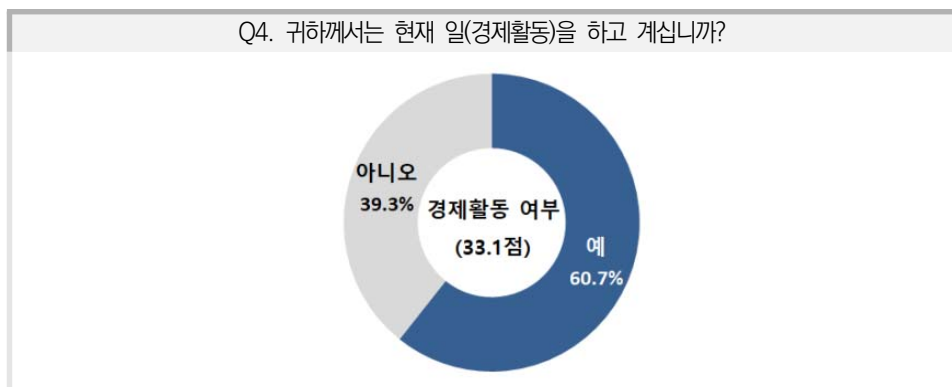
(n=417, 단위: %, 점)



## ■ 경제활동 여부

- 전체 응답자의 60.7%가 '현재 경제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점은 33.1점임
- 남성은 65.4%, 여성은 56.0%가 경제활동 중이라고 응답함. 20대의 경제활동 비율은 51.7%로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으며,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50대의 경우 78.7%로 가장 높았음. 1인 가구의 경우 경제활동 비율이 73.2%로 다인 가구(58.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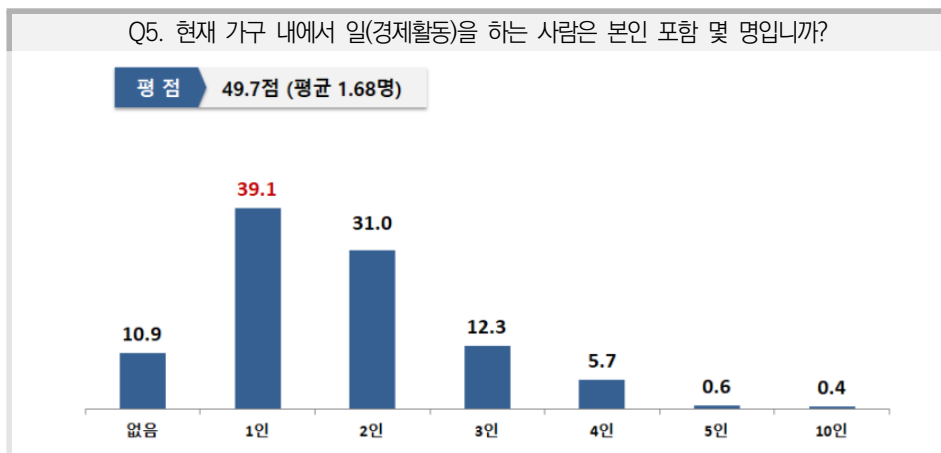
(n=417, 단위: %, 점)



## ■ 가구 내 경제활동 인원수

- ‘가구 내 경제활동 인원수’는 평균 1.68명으로 조사됨. 경제활동 인원수로 1인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2인(31.0%) > 3인(12.3%) 등 순으로 나타남. 현재 가구 내 경제활동 인원이 ‘없음’의 비율은 10.9%이었음
- 가구 내 경제활동 인원이 없음(‘0명’)을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14.6%로 여성(7.3%) 대비 다소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 21.0%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기타(별거/이혼/사별)의 경우 32.0%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가구소득별로 5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1인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았으며, 5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2인의 비율이 45% 이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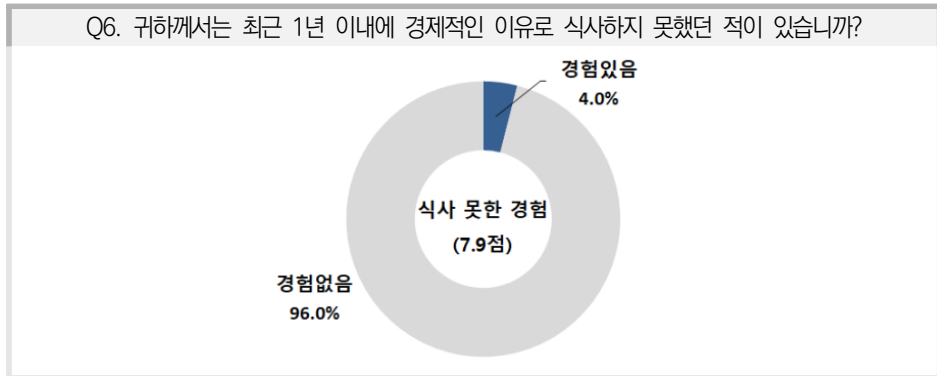
(n=417, 단위: %, 점)



## ■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 못한 경험

- 전체 응답자의 4.0%가 ‘최근 1년 이내에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질문에 대한 평점은 7.9점으로 나타남.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하지 못한 경험은 10% 이내이었음
- 1인 가구의 경우 식사하지 못한 경험이 14.7%로 다인 가구(2.2%)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에서 12.3%로 다른 특성보다 다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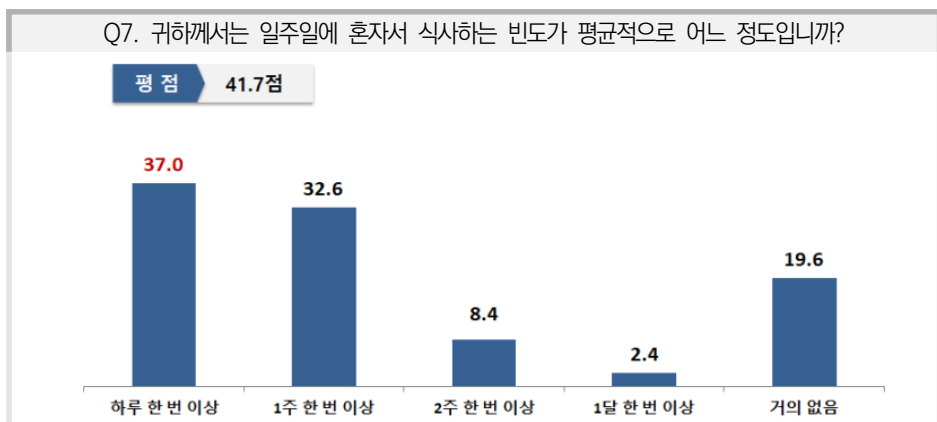
(n=417, 단위: %, 점)



## ■ 혼자 식사하는 빈도

- ‘혼자서 식사하는 빈도’에 대하여 ‘하루 한 번 이상’이 37.0%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1주 한 번 이상(32.6%) > 거의 없음(19.6%) > 2주 한 번 이상(8.4%) > 1달 한 번 이상(2.4%) 순이었음. 혼자 식사하는 빈도의 평점은 41.7점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혼자 식사하는 빈도에 대해 하루 한 번 이상이 48.0%로 나타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음. 남성의 경우 1주 한 번 이상(36.0%)의 응답이 가장 높았음. 20~50대에서 하루 한 번 이상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1주 한 번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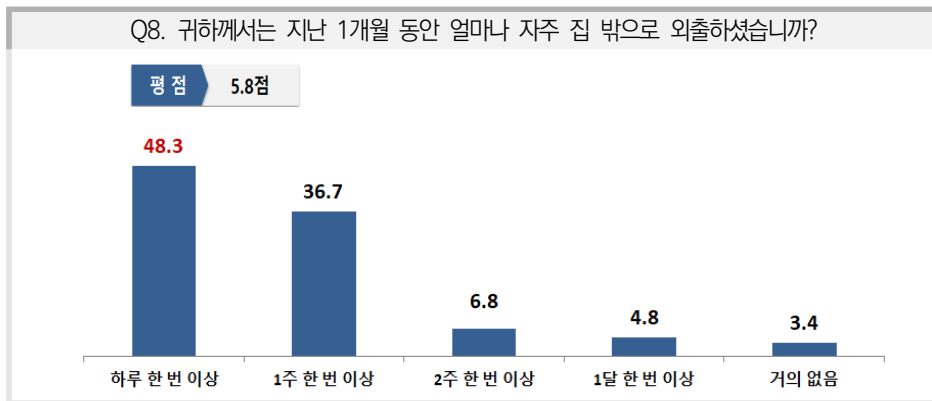
(n=417, 단위: %, 점)



## ■ 한 달간 외출 여부

- 한 달간 외출 여부에 대하여 ‘하루 한 번 이상’이 48.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다음으로, 1주 한 번 이상(36.7%) > 2주 한 번 이상(6.8%) > 1달 한 번 이상(4.8%) > 거의 없음(3.4%) 순으로 나타남. 한 달간 외출 여부 평점은 5.8점이었음
-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1번 이상이 90% 이상으로 나타남. 다만, 직업별에서 ‘기타’의 경우 한 달간 외출 여부가 ‘거의 없음’의 응답 비율이 12.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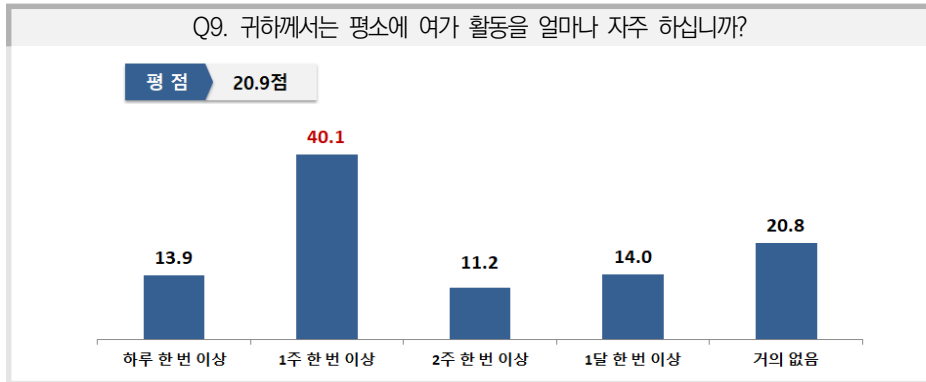
(n=417, 단위: %, 점)



## ■ 평소 여가 활동 빈도

- ‘평소 여가 활동 빈도’에 대하여 ‘1주 한 번 이상’이 40.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다음으로, 거의 없음(20.8%) > 1달 한 번 이상(14.0%) > 하루 한 번 이상(13.9%) > 2주 한 번 이상(11.2%)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평소 여가 활동 빈도에 대해 ‘거의 없음’이 33.7%로 나타나 남성(7.9%)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임. 남성의 경우 ‘1주 한 번 이상’(51.0%)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40대의 경우 여가 활동 빈도로 ‘거의 없음’(35.9%)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1주 한 번 이상’의 응답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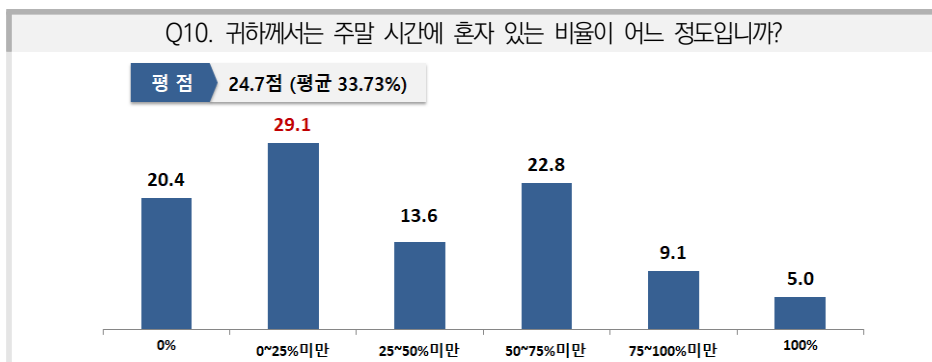
(n=417, 단위: %, 점)



## ■ 주말 혼자 보내는 비중

- ‘주말 시간에 혼자 있는 비율’은 평균 33.73%로 조사됨. 주말에 혼자 있는 비율의 경우, 0~25% 미만인 29.1% > 50~75% 미만인 22.8% > 0%가 20.4% 등 순으로 나타남. 주말 시간에 혼자 있는 비율이 100%인 응답은 5.0%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주말 시간에 혼자 있는 비율의 평균 수준이 35.66%로 남성(31.79%)보다 높게 나타남. 20대에서 42.66%로 혼자 있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대 이상에서 26.51%로 가장 낮았음. 20대 다음으로 50대(41.05%) > 30대(38.67%) > 40대(30.59%) 순으로 나타남.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있는 비율의 평균 수준이 71.75%로 다인 가구(27.47%)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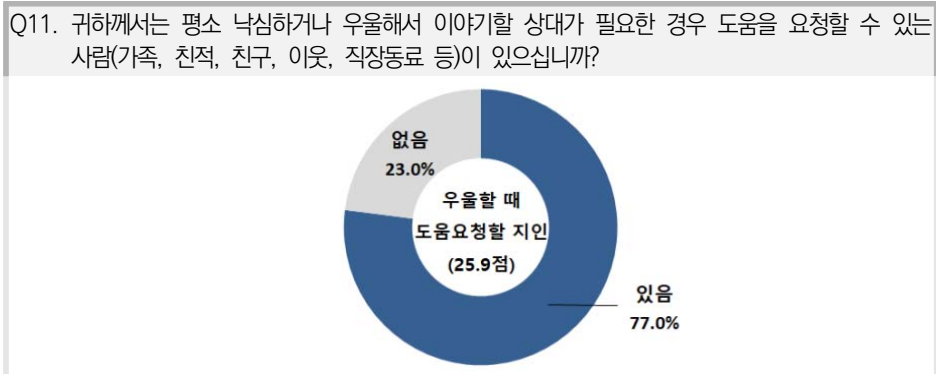
(n=417, 단위: %, 점)



## ■ 우울할 때 도움 요청 가능한 지인 여부

- 전체 응답자의 77.0%는 ‘우울할 때 도움 요청 가능한 지인’이 있다고 응답함
- 남성과 여성 모두 우울할 때 도움 요청 가능한 지인이 ‘있다’ 응답 비율이 각 78.3%, 75.7%이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도 ‘있다’의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남. 다만, 혼인상태에 따라 기타(별거/이혼/사별)의 경우 ‘없다’의 비율이 46.3%로 다소 높게 나타남. 직업별로 살펴보면, 판매/영업/서비스에서 도움 요청 가능한 지인이 ‘없다’의 응답 비율이 3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부가 32.4% 높았음. 자영업의 경우 ‘있다’의 비율이 92.2%로 다소 높게 나타남

(n=417,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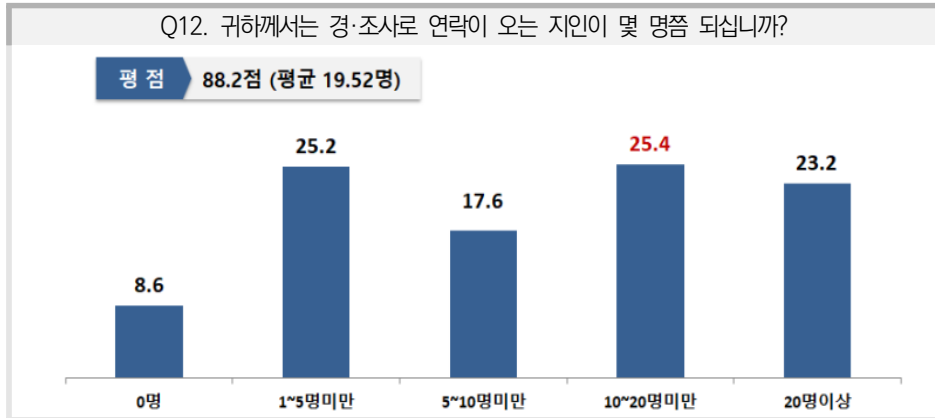


## ■ 경조사 시 연락이 오는 지인 수

- 경·조사로 연락이 오는 인원수는 평균 19.52명으로 조사됨. 경·조사로 연락이 오는 인원수로 10~20명 미만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5명 미만(25.2%) > 20명 이상(23.2%) > 5~10명 미만(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경·조사 시 연락이 오는 지인이 없음(0명)의 비율은 8.6%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경조사 시 연락이 오는 평균 지인의 수가 9.51명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29.57명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지인의 수가 많았음. 1인 가구의 경우 평균 수준이 9.29명으로 다인 가구(21.20명) 대비 다소 낮게 나타

남. 계층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하층'과 '모르겠다'의 경우 평균 지인의 수가 각 9.72명, 9.11명으로 나타난 반면, '중상층'의 경우 38.55명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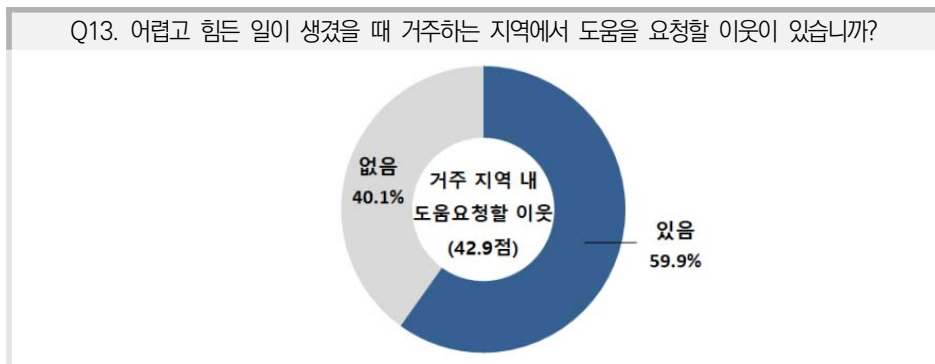
(n=417, 단위: %, 점)



## ■ 거주지역 내 도움 요청 이웃 여부

- 전체 응답자의 59.9%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거주지역 내 도움 요청 가능한 지인'이 있다고 응답함. 거주지역 내 도움 요청 이웃 여부 평점은 42.9점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거주지역 내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있다'가 66.2%로 나타나 여성(53.7%)에 비해 다소 높았음. 20대의 경우 이웃이 '없다'(53.4%)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있다'의 응답 비율이 58% 이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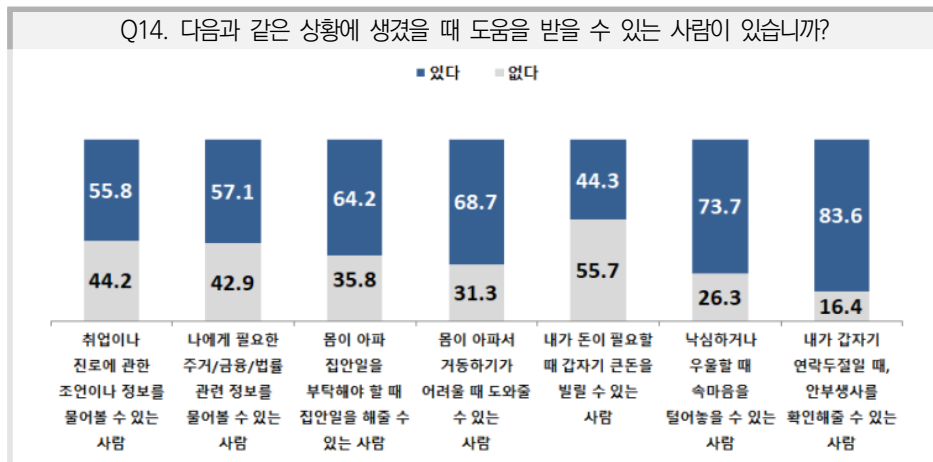
(n=417, 단위: %, 점)



## ■ 상황별 도움 요청 지인 여부

- 상황별 도움 요청이 가능한 지인 여부로 ‘내가 갑자기 연락두절일 때,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의 응답 비율이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이 여성보다 ‘돈이 필요할 때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도움 요청 지인이 있음’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20대와 30대의 경우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40대 이상의 경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적었음

(n=4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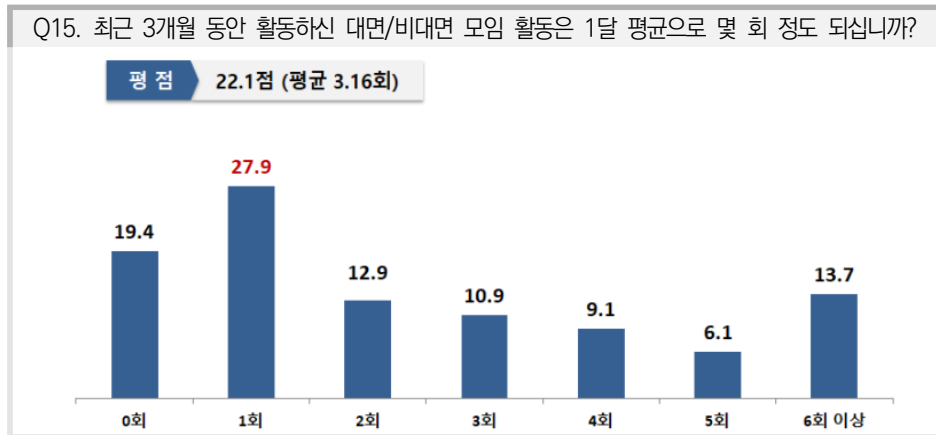


## ■ 대면 및 비대면 모임 횟수

- ‘최근 3개월 동안 활동한 대면 및 비대면 모임 활동’은 평균 3.16회로 조사됨. 대면 및 비대면 모임 활동이 있었던 경우, 1회가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회 이상(13.7%) > 2회(12.9%) > 3회(10.9%) > 4회(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면 및 비대면 모임 활동이 없음(0회)의 비율은 19.4%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대면 및 비대면 모임의 평균 횟수가 2.55회로 남성(3.78회)보다 낮게 나타남. 30대에서 2.08회로 모임 횟수가 가장 적고, 60대 이상에서 3.75회로 가장 많았

음. 30대 다음으로 40대(2.23회) > 50대(3.11회) > 20대(3.44회) 순으로 나타남. 1인 가구의 경우 평균 모임 횟수가 2.38회로 다인 가구(3.29회)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직업의 경우, 주부가 평균 1.82회로 가장 모임 횟수가 적었고, 농/임/어업이 7.88회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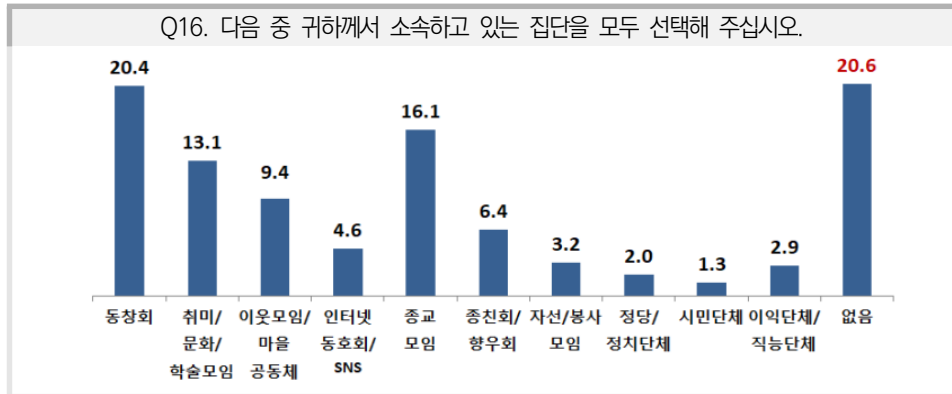
(n=417, 단위: %, 점)



## ■ 소속집단

- 전체 응답자의 20.6%가 '소속하고 있는 집단'이 없음. 소속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동창회가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모임(16.1%) > 취미/문화/학술모임(13.1%) > 이웃모임/마을공동체(9.4%) > 종친회/향우회(6.4%) > 인터넷 동호회/SNS(4.6%) > 자선/봉사모임(3.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여성의 경우 소속집단이 '없다'가 28.1%로 나타나 남성(14.7%)에 비해 다소 높은 응답을 보임. 소속집단으로 남성은 '동창회'가 26.0%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종교모임'이 22.3%로 높았음.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속집단이 '없다'를 많이 응답함.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동창회'의 응답 비율이 각 25.6%, 24.8%로 높았음. 계층 구분에 따라서는 하층에서 소속집단이 '없음'(29.9%)의 비율이 중상층(11.6%)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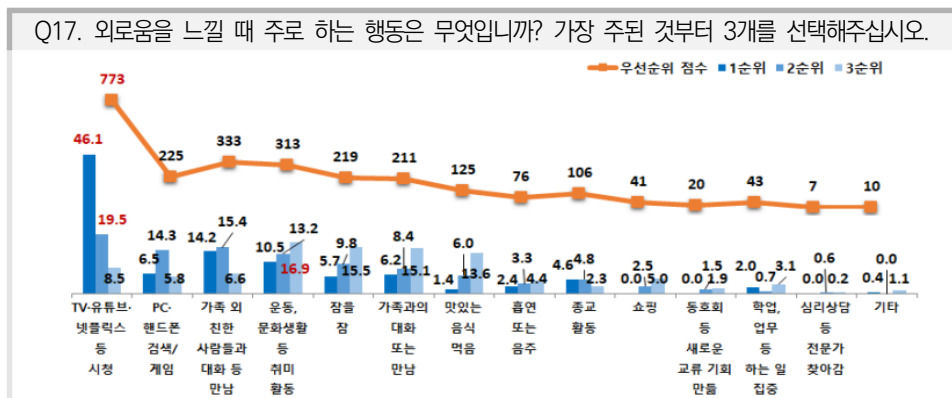
(중복n=649, 단위: %)



## ■ 외로움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

- ‘외로움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에 대해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점수화한 결과, ‘TV·유튜브·넷플릭스 등을 시청한다’가 7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44.8%)보다 여성(47.3%)에서 ‘TV·유튜브·넷플릭스 등을 시청한다’의 응답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으며, 남성은 ‘운동이나 문화생활 등 취미활동을 한다’(17.1%), 여성은 ‘가족 외 친구 등 친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16.7%)의 응답이 높았음. 1인 가구의 경우 ‘TV·유튜브·넷플릭스 등을 시청한다’가 65.5%로 ‘다인 가구’(42.9%)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n=4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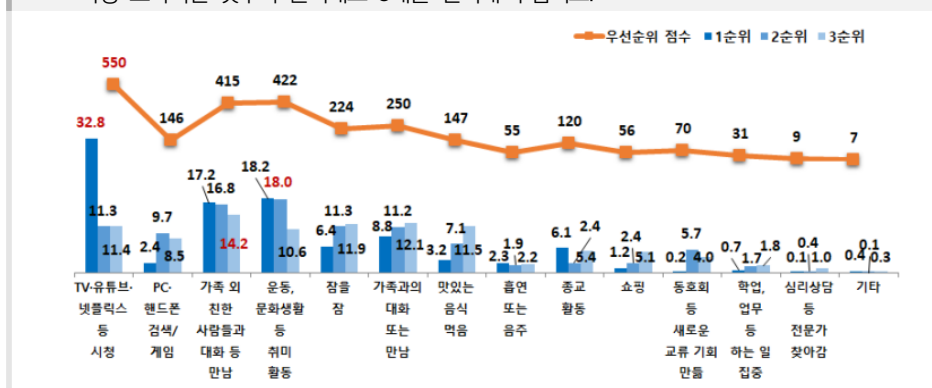


## ■ 외로움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

- 외로움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점수화한 결과, ‘TV·유튜브·넷플릭스 등을 시청한다’가 5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TV·유튜브·넷플릭스 등을 시청한다’를 외로움 해소의 효과적인 방법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함
- 남성(30.3%)보다 여성(35.2%)에서 ‘TV·유튜브·넷플릭스 등을 시청한다’의 응답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으며, 남성은 ‘운동이나 문화생활 등 취미활동을 한다’(25.8%), 여성은 ‘가족 외 친구 등 친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23.5%)의 응답이 높았음. 1인 가구의 경우 ‘TV·유튜브·넷플릭스 등을 시청한다’가 45.8%로 다인 가구(30.6%)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자영업(41.1%)과 학생(23.5%)은 ‘가족 외 친구 등 친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를, 판매/영업/서비스(32.5%)는 ‘종교활동을 한다’를, 무직/퇴직(34.0%)은 ‘운동이나 문화생활 등 취미활동을 한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차이를 보임

(n=417, 단위: %, 점)

Q18.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외로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효과적인 것부터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 3. 사회적 연결척도 분석 결과

#### 가. 분석 방법

##### ■ 사회적 연결지수 산출 방식

○ 문체부가 개발한 사회적 연결지수는 외로움 심리지수와 사회 관계지수에 의해 산출됨

$$\text{※ 사회적 연결지수} = (\text{외로움 심리지수} + \text{사회 관계지수}) / 2$$

##### 외로움 심리지수 = 8문항에 대한 산출 평균값

- 소원감(2문항)
- 고립감(2문항)
- 위축된 사교성(2문항)
- 자기 가치감(2문항)

- 총 8개 문항
- 각 문항별 4점 척도

외로움 심리지수 산출  
(100점 만점 기준)

##### 사회 관계지수 = 12문항에 대한 산출 평균값

- 개인환경(4문항)
- 자의적인 행동(4문항)
- 사회적 활동(4문항)

- 총 12개 문항
- 각 문항별 기준 척도

사회 관계지수 산출  
(100점 만점 기준)

##### ■ 외로움 심리지수에 대한 세부 산출 방식

| 문항 구분           |                                      | 척도                                     | 환산 방법                                            |
|-----------------|--------------------------------------|----------------------------------------|--------------------------------------------------|
| 소원감             | 1. 고민을 상의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 ① 전혀 아니다<br>② 아니다<br>③ 그렇다<br>④ 매우 그렇다 | 4점 척도를<br>100점<br>만점으로 환산<br>((응답 값-1)/3<br>*100 |
|                 | 2. 가까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                                        |                                                  |
| 고립감             | 3.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체하는 것 같다.       |                                        |                                                  |
|                 | 4. 내 생각과 의견이 무시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                                        |                                                  |
| 위축된 사교성         | 5. 사람들이 교류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                                        |                                                  |
| 사교성             | 6.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를 꺼리는 편이다.           |                                        |                                                  |
| 자기 가치감<br>(역문항) | 7. 나는 누군가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낀다. |                                        |                                                  |
|                 | 8. 나는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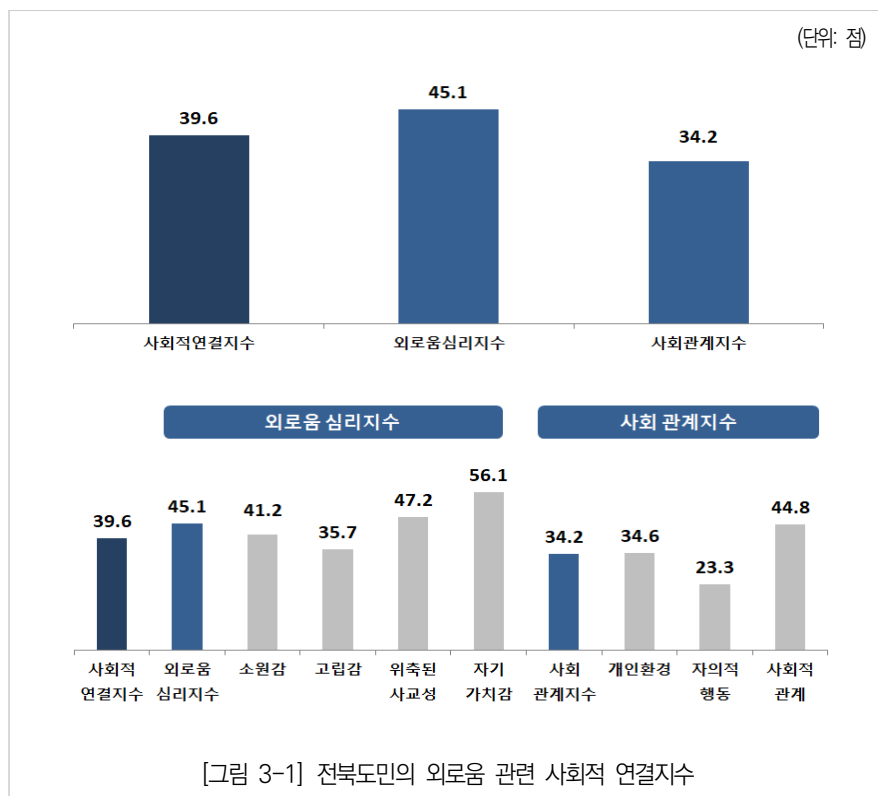
## ■ 사회적 관계지수에 대한 세부 산출 방식

| 문항 구분     |                                                                                                | 원척도                                                                 | 환산 척도                                  | 환산 방법                                                    |
|-----------|------------------------------------------------------------------------------------------------|---------------------------------------------------------------------|----------------------------------------|----------------------------------------------------------|
| 개인<br>환경  | 1.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br>동거하는 가족 외에 외부인이 얼마나 자주<br>방문하십니까?                                       | ① 하루 한 번 이상<br>② 1주 한 번 이상<br>③ 2주 한 번 이상<br>④ 1달 한 번 이상<br>⑤ 거의 없음 | ① 월 1회 이상<br>② 외부인 출입은<br>거의 없음        |                                                          |
|           | 2. 귀하께서는 현재 일(경제활동)을 하고<br>계십니까?                                                               | ① 예<br>② 아니오                                                        | ① 예<br>② 아니오                           |                                                          |
|           | 3. 현재 가구 내에서 일(경제활동)을 하는<br>사람은 본인 포함 몇 명입니까?                                                  | Open 질문                                                             | ① 1인 이상<br>② 없음                        |                                                          |
|           | 4. 귀하께서는 최근 1년 이내에 경제적인<br>이유로 식사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예<br>② 아니오                                                        | ① 아니요<br>② 예                           |                                                          |
| 자의적<br>행동 | 5. 귀하께서는 일주일에 혼자서 식사하는<br>빈도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① 하루 한 번 이상<br>② 1주 한 번 이상<br>③ 2주 한 번 이상<br>④ 1달 한 번 이상<br>⑤ 거의 없음 | ① 매일은 아니다<br>② 거의 매일 혼자<br>식사한다        | 각 환산된<br>척도를<br>100점<br>만점으로 환산<br>(① → 0점,<br>② → 100점) |
|           | 6. 귀하께서는 지난 1개월 동안 얼마나<br>자주 집 밖으로 외출하셨습니까?                                                    | ① 하루 한 번 이상<br>② 1주 한 번 이상<br>③ 2주 한 번 이상                           | ① 한 달 2회 이상<br>② 한 달 1회 이하             |                                                          |
|           | 7. 귀하께서는 평소에 여가 활동을 얼마나<br>자주 하십니까?                                                            | ① 하루 한 번 이상<br>② 1주 한 번 이상<br>③ 2주 한 번 이상<br>④ 1달 한 번 이상<br>⑤ 거의 없음 | ① 한 달에 1회 이상<br>② 여가 활동을<br>거의 하지 않음   |                                                          |
|           | 8. 귀하께서는 주말 시간에 혼자 있는<br>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Open 질문                                                             | ① 혼자 비율<br>50% 이하<br>② 혼자 비율<br>50% 초과 |                                                          |
| 사회적<br>활동 | 9. 귀하께서는 평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br>이야기 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br>요청할 수 있는사람(가족, 친적, 친구,<br>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습니까? | ① 있다<br>② 없다                                                        | ① 있다<br>② 없다                           | 각 환산된<br>척도를<br>100점<br>만점으로 환산<br>(① → 0점,<br>② → 100점) |
|           | 10. 귀하께서는 경·조사로 연락이 오는<br>지인이 몇 명쯤 되십니까?                                                       | Open 질문                                                             | ① 1명 이상<br>② 없음 (0명)                   |                                                          |
|           | 11.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거주하는<br>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있습니까?                                             | ① 예<br>② 아니요                                                        | ① 예<br>② 아니요                           |                                                          |
|           | 12. 귀하께서는 최근 3개월 동안 활동하신<br>대면/비대면 모임 활동은 1달 평균으로 몇<br>회 정도 되십니까?                              | Open 질문                                                             | ① 1회 이상<br>② 없음 (0회)                   |                                                          |

## 나. 분석 결과

### ■ 사회적 연결지수 산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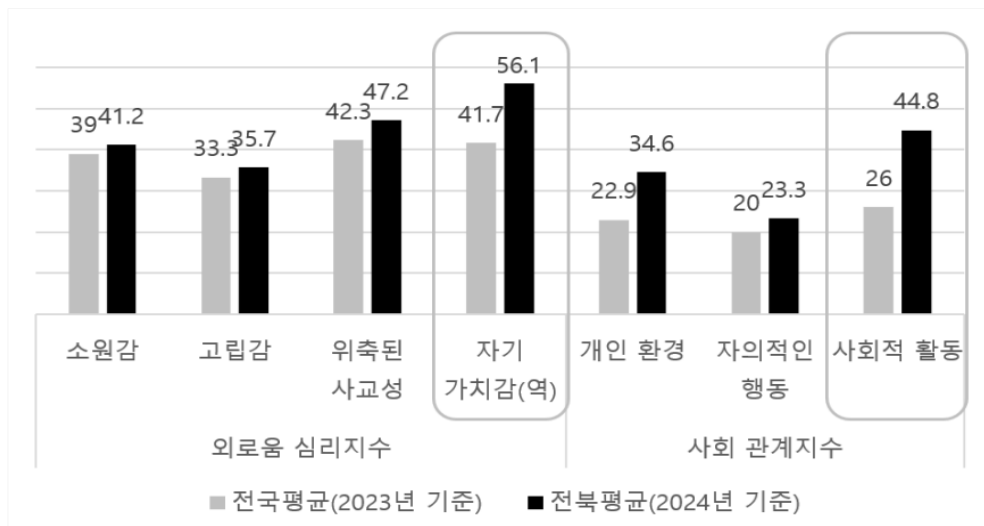
- 전북도민 실태조사에 따른 2024년 사회적 연결지수는 39.6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외로움 심리지수’ 45.1점, ‘사회 관계지수’ 34.2점 수준으로 나타남
- 각 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더 외롭고, 더 사회적 관계가 약함)이라는 의미



- 똑같은 지표로 조사(2023년 기준)한 지역문화진흥원 결과와 비교하면, 사회적 연결지수의 경우 전북평균이 전국평균(지역문화진흥원, 2024) 31.0점보다 8.6점이 높고, 외로움 심리지수도 전국평균 39.1점보다 6점이 높음. 사회관계지수의 경우 전국평균 23.0점보다 11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별 지표를 살펴보면 외로움 지수의 경우 전북평균이 전국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특히 자기 가치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전북평균 56.1, 전국평균 41.7), 이는 전북도민의 자기 가치감, 즉 사회적 참여와 몰입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의식을 획득하는 양상이 매우 낮음을 의미함
- 사회 관계지수의 지표에서는 사회적 활동의 경우 전북평균이 전국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음. 이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지인 등이 매우 적음을 뜻함. 개인 환경 지표에서도 전북평균이 전국평균보다 11.7점이 높아 더 외로움을 보여줌
  - 지역문화진흥원(2023년 기준, 2024년 결과, 전국 성인남녀 5,000명) : 사회적 연결지수 31.0, 외로움 심리지수 39.1(소원감 39.0, 고립감 33.3, 위축된 사교성 42.3, 자기가치감(역) 41.7), 사회 관계지수 23.0(개인 환경 22.9), 자의적인 행동 20.0), 사회적 활동 26)
- 결국, 전국평균 값과 비교하였을 때, 전북도민은 사회적 관계(특히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회적 자본)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획득하는 자기 가치감의 상대적 악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체적인 외로움 지수를 더 높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음

(단위: 점)



출처: 전국평균 값은 지역문화진흥원의 '2023년 국민 사회적 연결성 실태조사'를 참조

[그림 3-2] 전북평균 및 전국평균 값의 세부 지표 비교

## ■ 사회적 연결척도 유형화 산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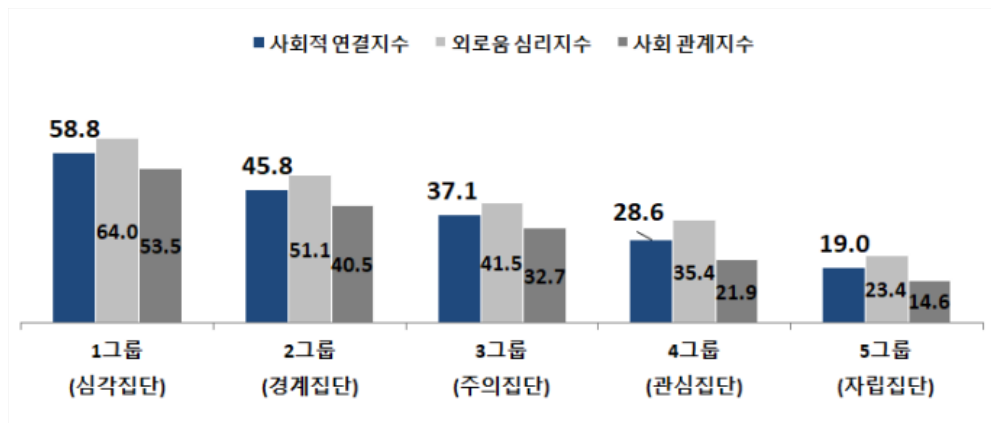
- 사회적 연결척도 유형화에 따른 5개의 그룹의 응답 분포는 ‘1그룹(심각 집단)’ 17.3%, ‘2그룹(경계 집단)’ 18.5%, ‘3그룹(주의 집단)’ 26.1%, ‘4그룹(관심 집단)’ 29.2%, ‘5그룹(자립 집단)’ 8.9%로 나타남

(단위: (명), %, 점)

| 구분         | 빈도    | 비중    | 핵심 주력 관리 필요성             |
|------------|-------|-------|--------------------------|
| 전체         | (417) | 100.0 | -                        |
| (1그룹) 심각집단 | (72)  | 17.3  | 우선순위 낮은 집단               |
| (2그룹) 경계집단 | (77)  | 18.5  | ★★★★★<br>(우선적인 관리 대상 집단) |
| (3그룹) 주의집단 | (109) | 26.1  | ★★★<br>(차선 관리 대상 집단)     |
| (4그룹) 관심집단 | (122) | 29.2  | ★<br>(지속적인 관리 대상 집단)     |
| (5그룹) 자립집단 | (37)  | 8.9   | 우선순위 낮은 집단               |

[그림 3-3] 사회적 연결척도 유형별 응답 분포

(단위: 점)



[그림 3-4] 사회적 연결척도 유형별 사회적 연결지수

- 집단 유형별 사회적 연결지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연결 강화를 위한 핵심 타겟인 ‘2그룹(경계 집단)’의 사회적 연결지수는 45.8점(외로움 심리지수 51.1점, 사회 관계지수

#### 40.5점) 수준으로 평가됨

- 다음으로, ‘3그룹(주의 집단)’의 사회적 연결지수는 37.1점(외로움 심리지수 41.5점, 사회 관계지수 32.7점), ‘4그룹’(관심 집단)’의 사회적 연결지수는 28.6점(외로움 심리지수 35.4점, 사회 관계지수 21.9점) 수준으로 나타남

[표 3-1] 사회적 연결척도 사회적 연결지수

(단위: 점)

| 구분     |            | 사회적<br>연결<br>지수 | 외로움<br>심리<br>지수 | 구성 요소(세부) |      |            |           | 사회<br>관계<br>지수 | 구성 요소(세부) |           |           |
|--------|------------|-----------------|-----------------|-----------|------|------------|-----------|----------------|-----------|-----------|-----------|
|        |            |                 |                 | 소원감       | 고립감  | 위축된<br>사회성 | 자기<br>가치감 |                | 개인<br>환경  | 자의적<br>행동 | 사회적<br>활동 |
| 전체     |            | 39.6            | 45.1            | 41.2      | 35.7 | 47.2       | 56.1      | 34.2           | 34.6      | 23.3      | 44.8      |
| 유<br>형 | (1그룹) 심각집단 | 58.8            | 64.0            | 71.5      | 61.4 | 75.2       | 47.7      | 53.5           | 45.3      | 45.9      | 69.2      |
|        | (2그룹) 경계집단 | 45.8            | 51.1            | 48.4      | 43.1 | 55.0       | 58.1      | 40.5           | 38.4      | 32.4      | 50.6      |
|        | (3그룹) 주의집단 | 37.1            | 41.5            | 36.9      | 30.8 | 43.4       | 54.7      | 32.7           | 35.6      | 19.7      | 42.9      |
|        | (4그룹) 관심집단 | 28.6            | 35.4            | 24.6      | 23.2 | 32.2       | 61.3      | 21.9           | 28.5      | 8.0       | 29.2      |
|        | (5그룹) 자립집단 | 19.0            | 23.4            | 13.8      | 5.2  | 16.1       | 58.6      | 14.6           | 13.5      | 4.3       | 25.9      |

[표 3-2] 사회적 연결척도 유형별 특징

| 구분                |          | 1그룹<br>(심각 집단)<br>(n=72)                                                                          | 2그룹<br>(경계 집단)<br>(n=77)                                                                          | 3그룹<br>(주의 집단)<br>(n=109)                                                                     | 4그룹<br>(관심 집단)<br>(n=122)                                                                      | 5그룹<br>(자립 집단)<br>(n=37)                                                                     |
|-------------------|----------|---------------------------------------------------------------------------------------------------|---------------------------------------------------------------------------------------------------|-----------------------------------------------------------------------------------------------|------------------------------------------------------------------------------------------------|----------------------------------------------------------------------------------------------|
| 비율(구성비)           |          | 17.3                                                                                              | 18.5                                                                                              | 26.1                                                                                          | 29.2                                                                                           | 8.9                                                                                          |
| 응답<br>자<br>특<br>성 | 성별       | 남성(42.1%),<br>여성(57.9%)                                                                           | 남성(36.1%),<br>여성(63.9%)<br>※ 여성 비율이 높음                                                            | 남성(52.9%),<br>여성(47.1%)                                                                       | 남성(55.0%),<br>여성(45.0%)                                                                        | 남성(68.4%),<br>여성(31.6%)<br>※ 남성 비율이 높음                                                       |
|                   | 연령별      | 20대(14.1%),<br>30대(11.3%),<br>40대(22.0%),<br>50대(22.9%),<br>60대이상(29.7%)<br>※ 40~60대 이상<br>비율이 높음 | 20대(15.0%),<br>30대(12.0%),<br>40대(25.0%),<br>50대(23.9%),<br>60대이상(24.1%)<br>※ 40~60대 이상<br>비율이 높음 | 20대(14.5%),<br>30대(8.0%),<br>40대(10.2%),<br>50대(14.0%),<br>60대이상(53.3%)<br>※ 60대 이상<br>비율이 높음 | 20대(10.9%),<br>30대(14.5%),<br>40대(13.5%),<br>50대(26.1%),<br>60대이상(35.0%)<br>※ 60대 이상<br>비율이 높음 | 20대(16.6%),<br>30대(3.1%),<br>40대(3.3%),<br>50대(16.2%),<br>60대이상(60.8%)<br>※ 60대 이상<br>비율이 높음 |
|                   | 1인<br>가구 | 1인(25.8%),<br>다인(74.2%)<br>※ 1인 비율이 높음                                                            | 1인(23.0%),<br>다인(77.0%)<br>※ 1인 비율이 높음                                                            | 1인(8.8%),<br>다인(91.2%)                                                                        | 1인(6.1%),<br>다인(93.9%)                                                                         | 1인(14.9%),<br>다인(85.1%)                                                                      |

|                  |                              |                                                              |                                                              |                                                           |                                                           |                                                          |
|------------------|------------------------------|--------------------------------------------------------------|--------------------------------------------------------------|-----------------------------------------------------------|-----------------------------------------------------------|----------------------------------------------------------|
|                  | 계층<br>구분                     | 중상층(15.6%),<br>하층(72.2%),<br>모름(12.2%)<br>※ 하층 비율이<br>높음     | 중상층(16.5%),<br>하층(64.3%),<br>모름(19.3%)<br>※ 하층 비율이<br>높음     | 중상층(48.4%),<br>하층(34.1%),<br>모름(17.5%)<br>※ 중상층 비율이<br>높음 | 중상층(48.2%),<br>하층(28.0%),<br>모름(23.7%)<br>※ 중상층 비율이<br>높음 | 중상층(21.1%),<br>하층(67.7%),<br>모름(11.2%)<br>※ 하층 비율이<br>높음 |
| 생<br>활<br>환<br>경 | 외부인<br>방문<br>빈도              | 거의<br>없음(81.2%),<br>월1회이상(18.8%)<br>※ 거의 없음의<br>비율이 다소 높음    | 거의<br>없음(59.1%),<br>월1회이상(40.8%)<br>※ 거의 없음의<br>비율이 높음       | 거의<br>없음(36.1%),<br>월1회이상(63.9%)                          | 거의<br>없음(31.5%),<br>월1회이상(68.5%)                          | 거의 없음(5.0%),<br>월1회이상(95.0%)                             |
|                  | 혼자<br>식사<br>하는<br>빈도         | 거의<br>매일(57.8%),<br>1회 이하(42.2%)<br>※ 거의 매일<br>혼자의 비율이<br>높음 | 거의<br>매일(60.9%),<br>1회 이하(39.1%)<br>※ 거의 매일<br>혼자의 비율이<br>높음 | 거의<br>매일(40.5%),<br>1회 이하(59.5%)                          | 거의<br>매일(13.6%),<br>1회 이하(86.4%)                          | 거의<br>매일(13.0%),<br>1회 이하(87.0%)                         |
|                  | 한 달간<br>외출<br>여부             | 거의<br>없음(10.2%),<br>월1회이상(49.9%)                             | 거의 없음(2.6%),<br>월1회이상(58.7%)                                 | 거의 없음(3.4%),<br>월1회이상(87.1%)                              | 거의 없음(0.8%),<br>월1회이상(96.3%)                              | 거의 없음(0.0%),<br>월1회이상(100.0<br>%)                        |
|                  | 평소여가<br>활동빈도                 | 거의<br>없음(50.1%),<br>월1회이상(49.9%)<br>※ 거의 없음의<br>비율이 높음       | 거의<br>없음(41.3%),<br>월1회이상(58.7%)                             | 거의<br>없음(12.9%),<br>월1회이상(87.1%)                          | 거의 없음(3.7%),<br>월1회이상(96.3%)                              | 거의 없음(0.0%),<br>월1회이상(100.0<br>%)                        |
|                  | 주말 혼자<br>보내는<br>비중           | 혼자 비율(45.4%)                                                 | 혼자 비율(49.6%)<br>※ 혼자 비율이<br>상대적으로 높음                         | 혼자 비율(29.6%)                                              | 혼자 비율(26.0%)                                              | 혼자 비율(15.3%)                                             |
|                  | 우울할 때<br>도움요청<br>가능한지<br>인여부 | 있음(39.9%),<br>없음(60.1%)<br>※ 없음 비율이<br>높음                    | 있음(75.0%),<br>없음(25.0%)                                      | 있음(78.4%),<br>없음(21.6%)                                   | 있음(92.8%),<br>없음(7.2%)                                    | 있음(97.9%),<br>없음(2.1%)                                   |
|                  | 거주지 내<br>도움요청<br>이웃여부        | 있음(10.3%),<br>없음(89.7%)<br>※ 없음 비율이<br>높음                    | 있음(39.2%),<br>없음(60.8%)<br>※ 없음의 비율이<br>다소 높음                | 있음(59.0%),<br>없음(41.0%)                                   | 있음(91.8%),<br>없음(8.2%)                                    | 있음(98.5%),<br>없음(1.5%)                                   |
|                  | 대면 및<br>비대면<br>모임횟수          | 1회 이상(48.9%),<br>없음(51.1%)<br>※ 없음 비율이 높음                    | 1회 이상(75.7%),<br>없음(24.3%)                                   | 1회 이상(79.0%),<br>없음(21.0%)                                | 1회 이상(98.2%),<br>없음(1.8%)                                 | 1회<br>이상(100.0%),<br>없음(0.0%)                            |

## ■ 전복 실태조사의 특징 분석

- 외로움 심리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t=3.393$ ), 연령( $t=2.107$ ), 학력( $t=-2.610$ ), 결혼상태( $t=-2.669$ ), 지역( $t=-2.100$ ), 직업( $t=2.231$ ) 그리고 감정상태( $t=6.312$ )와 사회적 관계지수( $t=10.468$ )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관계지수도 성별( $t=-3.879$ ), 연령( $t=-4.193$ ), 학력( $t=1.790$ ), 가구형태( $t=2.548$ ), 지역( $t=3.388$ ), 직업( $t=-2.298$ ), 감정( $t=-4.284$ )과 외로움 심리지수( $t=10.468$ )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연결지수는 학력( $t=-2.050$ ), 직업( $t=-3.667$ ), 직장지위( $t=-2.090$ ), 그리고 감정( $t=-2.628$ )과 사회적 관계지수( $t=314.173$ ), 그리고 외로움 심리지수( $t=335.817$ )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제시됨
- 즉, 사회적 연결지수는 고졸이상의 학력보다는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이 오히려 사회적 연결고리가 취약하고 외로움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에서는 주부나 학생이 무직이나 퇴직자보다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 사회적 연결지수 영향요인 분석

| 구분       |           | 외로움 심리지수 |                |        | 사회적 관계지수 |                 |        | 사회적 연결지수 |               |        |
|----------|-----------|----------|----------------|--------|----------|-----------------|--------|----------|---------------|--------|
|          |           | 베타       | t              | VIF    | 베타       | t               | VIF    | 베타       | t             | VIF    |
| 성별       | 성별_남성     | 0.191    | 3.393<br>(**)  | 1.889  | -0.207   | -3.879<br>(***) | 1.873  | -0.004   | -1.831        | 1.944  |
| 연령       | 연령        | 0.150    | 2.107<br>(*)   | 3.019  | -0.279   | -4.193<br>(***) | 2.923  | 0.000    | -0.086        | 3.053  |
| 학력       | 고졸        | -0.122   | -2.610<br>(**) | 1.300  | 0.080    | 1.790<br>(*)    | 1.312  | -0.003   | -2.050<br>(*) | 1.323  |
| 결혼<br>상태 | 미혼        | -0.134   | -1.507         | 4.695  | -0.065   | -0.769          | 4.715  | -0.002   | -0.489        | 4.722  |
|          | 기혼        | -0.216   | -2.669<br>(*)  | 3.894  | 0.114    | 1.476           | 3.943  | 0.000    | -0.035        | 3.964  |
| 가구형태     | 가구_1인     | 0.030    | 0.588          | 1.518  | 0.121    | 2.548<br>(*)    | 1.495  | -0.002   | -1.065        | 1.519  |
| 지역       | 지역_도시     | -0.090   | -2.100<br>(*)  | 1.096  | 0.137    | 3.388<br>(**)   | 1.077  | -0.001   | -0.691        | 1.108  |
| 직업       | 직업_농어업    | 0.177    | 2.161<br>(*)   | 3.994  | -0.121   | -1.555          | 4.017  | 0.000    | 0.058         | 4.041  |
|          | 직업_자영업    | 0.247    | 1.585          | 14.465 | -0.137   | -0.927          | 14.526 | -0.006   | -1.098        | 14.557 |
|          | 직업_판매서비스업 | 0.126    | 1.250          | 6.038  | -0.063   | -0.657          | 6.056  | -0.004   | -1.102        | 6.062  |

|                 |           |        |                 |        |        |                 |        |        |                  |        |
|-----------------|-----------|--------|-----------------|--------|--------|-----------------|--------|--------|------------------|--------|
|                 | 직업_생산기능직  | 0.103  | 0.857           | 8.634  | -0.186 | -1.627          | 8.592  | -0.006 | -1.411           | 8.650  |
|                 | 직업_사무전문직  | 0.231  | 1.456           | 14.979 | -0.220 | -1.464          | 14.979 | -0.006 | -1.049           | 15.060 |
|                 | 직업_주부     | 0.042  | 0.743           | 1.903  | -0.057 | -1.069          | 1.900  | -0.007 | -3.667<br>(***)  | 1.906  |
|                 | 직업_학생기타   | 0.129  | 2.231<br>(*)    | 1.995  | -0.126 | -2.298<br>(*)   | 1.993  | -0.004 | -2.163<br>(*)    | 2.020  |
| 직장<br>직위        | 직장직위_정규직  | 0.071  | 0.435           | 16.046 | -0.128 | -0.824          | 16.026 | -0.012 | -2.090<br>(*)    | 16.053 |
|                 | 직장직위_비정규직 | 0.058  | 0.469           | 9.093  | 0.001  | 0.012           | 9.098  | -0.006 | -1.299           | 9.098  |
|                 | 직장직위_자영업자 | -0.213 | -1.377          | 14.324 | -0.001 | -0.005          | 14.392 | 0.001  | 0.104            | 14.392 |
| 소득              | 월평균 가구소득  | -0.065 | -1.368          | 1.360  | -0.065 | -1.434          | 1.359  | 0.001  | 0.490            | 1.366  |
| 감정              | 감정상태      | 0.278  | 6.312<br>(***)  | 1.154  | -0.184 | -4.284<br>(***) | 1.214  | -0.004 | -2.628<br>(**)   | 1.271  |
| 사회적<br>연결<br>지수 | 사회적 관계지수  | 0.490  | 10.468<br>(***) | 1.306  |        |                 |        | 0.562  | 314.173<br>(***) | 1.506  |
|                 | 외로움 심리지수  |        |                 |        | 0.442  | 10.468<br>(***) | 1.180  | 0.633  | 335.817<br>(***) | 1.668  |
| 상수              |           |        | 6.904*          |        |        | 6.877***        |        |        | 3.990***         |        |
| F               |           |        | 10.021***       |        |        | 13.219***       |        |        | 223.389***       |        |
| R2              |           |        | .336            |        |        | .400            |        |        | .999             |        |
| adjusted R2     |           |        | .303            |        |        | .370            |        |        | .999             |        |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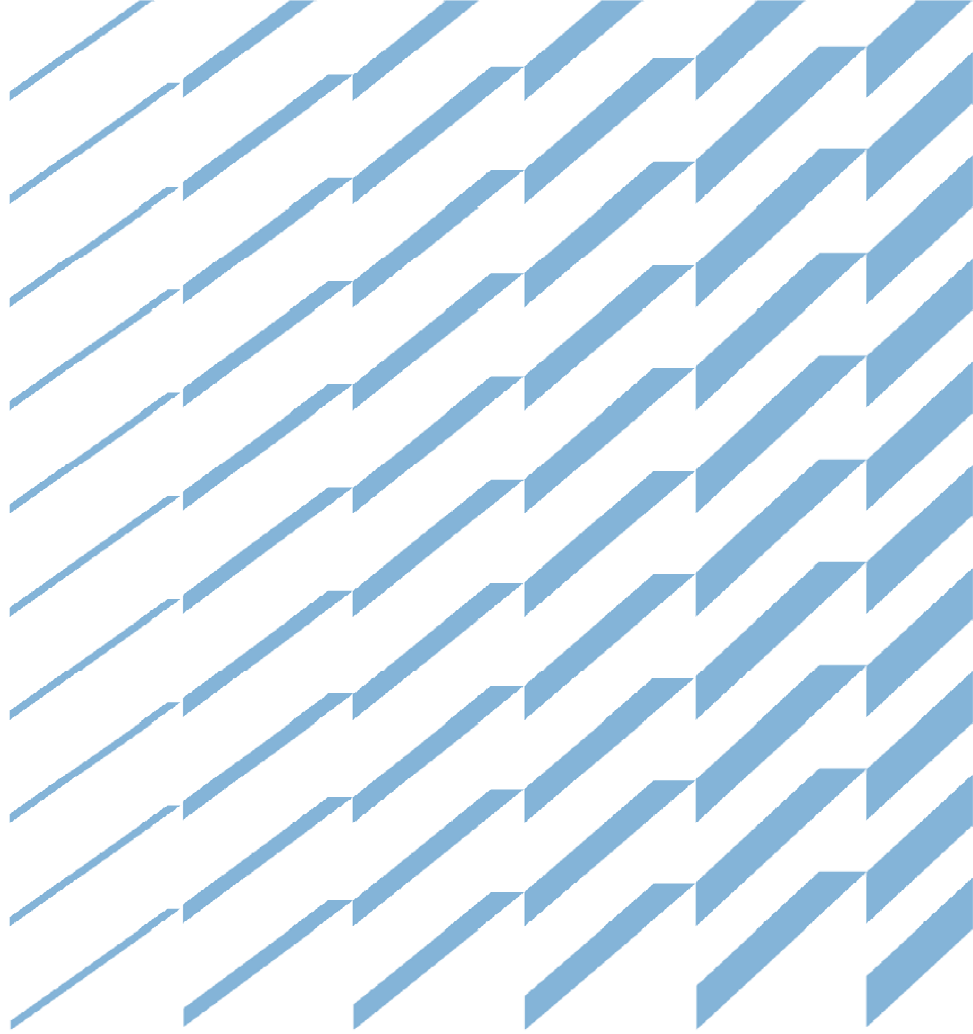
- 인구집단별 주요변인의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외로움 심리지수는 결혼 상태와 가구형태, 직업 그리고 직장지위와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가구형태에서는 1인 가구가 비 1인가구에 비해서 외로움 심리지수가 높았고, 직업에서는 농업과 판매서비스업 그리고 사무관리직이 다른 직업보다도 외로움심리지수가 높은 수준임
- 직업지위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는 외로움 심리지수가 높았고 소득수준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 심리지수가 높게 나타남
- 사회적 관계지수는 성별, 연령, 지역, 결혼상태, 가구형태, 직업 그리고 직장지위와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연결지수도 성별과 연령 결혼상태, 가구형태, 직업, 직장지위 그리고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회적 연결지수는 1인가구와 낮은 소득수준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하고 외로움이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인구집단별 사회적 연결지수 변인 차이 분석

| 구분       |                | 외로움 심리지수      |        | 사회관계지수        |        | 사회연결지수        |        |
|----------|----------------|---------------|--------|---------------|--------|---------------|--------|
|          |                | M(SD)         | t/f(p) | M(SD)         | t/f(p) | M(SD)         | t/f(p) |
| 성별       | 남자             | 44.54 (13.81) | -1.135 | 27.51 (14.63) | -5.935 | 36.02 (11.83) | -3.765 |
|          | 여자             | 44.73 (14.31) |        | 36.43 (16.04) |        | 40.58 (12.85) |        |
| 연령       | 20대            | 42.86 (15.77) | 2.357  | 35.48 (17.02) | 3.904  | 39.10 (13.93) | 3.043  |
|          | 30대            | 43.08 (17.05) |        | 34.81 (16.13) |        | 38.92 (13.28) |        |
|          | 40대            | 49.43 (14.06) |        | 35.13 (16.00) |        | 42.31 (12.61) |        |
|          | 50대            | 44.21 (13.09) |        | 32.98 (17.57) |        | 38.66 (13.19) |        |
|          | 60대            | 44.03 (12.71) |        | 28.40 (13.96) |        | 36.10 (11.06) |        |
| 지역       | 도시             | 44.47 (14.66) | -5.18  | 32.70 (16.59) | 1.961  | 38.58 (13.07) | .954   |
|          | 농촌             | 45.39 (10.91) |        | 28.74 (12.42) |        | 37.07 (9.82)  |        |
| 학력       | 고졸이하           | 44.17 (14.95) | -4.469 | 33.39 (17.03) | 1.256  | 38.78 (13.99) | .535   |
|          | 대학재학 이상        | 44.86 (13.61) |        | 31.30 (15.42) |        | 38.08 (11.80) |        |
| 결혼<br>상태 | 미혼             | 44.27 (16.57) | 3.780  | 33.83 (17.08) | 4.728  | 39.01 (13.84) | 5.752  |
|          | 배우자있음          | 43.96 (12.85) |        | 30.57 (14.90) |        | 37.22 (11.51) |        |
|          | 기타(별거/이혼/사별)   | 50.57 (14.07) |        | 38.22 (18.76) |        | 44.38 (14.50) |        |
| 가구<br>형태 | 1인가구           | 50.44 (13.59) | 3.467  | 39.28 (17.84) | 3.847  | 44.86 (13.68) | 4.421  |
| 직업       | 비 1인가구         | 43.68 (13.91) | 2.521  | 30.78 (15.34) | 6.433  | 37.23 (12.03) | 3.112  |
|          | 농/임/어업         | 50.87 (4.18)  |        | 30.85 (10.84) |        | 40.81 (5.36)  |        |
|          | 자영업            | 38.78 (15.52) |        | 23.79 (15.35) |        | 31.28 (12.87) |        |
|          | 판매/영업/서비스      | 49.18 (11.56) |        | 36.93 (13.89) |        | 43.12 (11.65) |        |
|          | 생산/기능/노무       | 42.14 (13.61) |        | 23.20 (13.28) |        | 32.83 (12.01) |        |
|          | 사무/관리/전문       | 47.20 (14.86) |        | 28.55 (15.26) |        | 37.97 (12.42) |        |
|          | 주부             | 42.97 (11.05) |        | 38.00 (14.77) |        | 40.43 (10.69) |        |
|          | 학생             | 45.35 (13.21) |        | 33.37 (13.96) |        | 39.19 (11.02) |        |
|          | 기타             | 43.00 (17.96) |        | 40.41 (16.14) |        | 41.70 (13.13) |        |
|          | 무직/퇴직          | 42.10 (15.08) |        | 36.01 (17.45) |        | 38.74 (14.24) |        |
| 직장<br>지위 | 정규직 임금근로자      | 46.06 (14.61) | 4.262  | 27.30 (14.96) | 12.079 | 36.80 (12.45) | 4.301  |
|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47.94 (10.42) |        | 33.51 (13.86) |        | 40.75 (10.80) |        |
|          | 자영업자           | 38.03 (15.22) |        | 24.07 (14.92) |        | 31.03 (12.42) |        |
|          | 비경제활동          | 42.76 (14.23) |        | 36.66 (16.29) |        | 39.50 (12.91) |        |
| 소득       | 200만원 미만       | 48.70 (14.78) | 4.262  | 43.11 (16.75) | 12.079 | 45.84 (13.10) | 4.301  |
|          | 200만원~300만원 미만 | 45.21 (13.78) |        | 32.38 (14.19) |        | 38.79 (11.95) |        |
|          | 300만원~400만원 미만 | 41.36 (13.00) |        | 30.10 (16.98) |        | 35.59 (12.96) |        |
|          | 400만원~500만원 미만 | 48.72 (14.71) |        | 27.54 (17.05) |        | 38.31 (12.26) |        |
|          | 500만원~600만원 미만 | 42.79 (12.60) |        | 28.76 (11.58) |        | 35.68 (9.28)  |        |
|          | 600만원~700만원 미만 | 41.76 (15.83) |        | 26.16 (12.16) |        | 33.92 (11.07) |        |
|          | 700만원 이상       | 41.77 (13.79) |        | 29.21 (13.89) |        | 35.43 (12.39) |        |
| 전체       |                | 44.63 (14.05) |        | 32.06 (15.97) |        | 38.31 (12.5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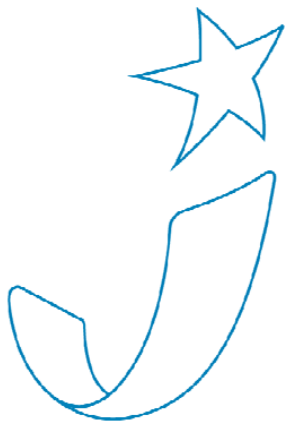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 제4장

### 외로움 대응 정책방향과 과제

1. 외로움 대응 정책 방향
2. 외로움 대응 추진 과제





## 제4장 외로움 대응 정책방향과 과제

### 1. 외로움 대응 정책 방향

#### 가. 방향 설정

##### ■ (정책 목표) 사회적 관계 확대를 통한 연결사회 실현

- 외로움 정책은 상담·치료의 일차적 접근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결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함. 외로움 지수와 사회적 관계 지수를 연계하여 사회적 연결척도를 도출하는 이유임
- 전북도의 외로움 정책 방향 역시 ‘누구도 외롭지 않은 지역’을 위하여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

##### ■ (정책 대상) 유형1(심각 집단) 제외, 전체 도민을 설정

-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정책은 정책 대상이 한정적이며 명확함. 사회적 고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표가 크다는 점에서, 외로움의 정책 대상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 즉 전북도민 전체임
- 다만, 외로움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적 연결척도에서 나타나듯이, 유형1의 경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집단, 또는 사회적 고립에 처하거나 처할 위기에 맞닿아 있는 집단이므로 이 유형은 외로움의 문화적 치유 사업 대상에서 제외함
- 유형5에 속한 사람은 외롭지 않은 자립집단이나 외로움을 예방하는 정책 대상이라는 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정책 대상에 포함함. 즉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집단(유형1)을 제외하고, 유형2부터 유형5까지를 전북도의 외로움 정책 대상으로 설정함

##### ■ (단계 전략) 외로움의 예방-치유-연결의 단계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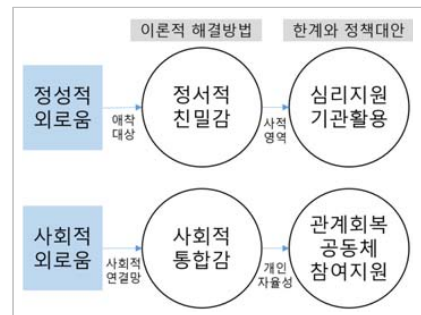
-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에서는 사회적 고립 전 단계인 외로움은 예방적 측면에서 다

뤄짐. 그런데 외로움 역시 사회적 질병이라는 점에서 치유가 필요함

- 외로움도 질병으로서 발병 이전의 예방적 측면과 발병(외로움 발생) 이후의 치유(또는 치료)가 필요하므로 예방-치유-연결의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전략을 추진함

## ■ (지원 범위) 사회적 및 정서적 외로움 포괄, 지원 대상 확대

- 신인철·최지원(2019)는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을 구분하며 외로움 정책 대상으로 사회적 외로움을 설정함. 정서적 외로움은 사회적 영역으로 심리 지원 기관을 활용하되, 사회적 외로움은 사회적 통합감이 해결 방법이므로 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체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 신인철·최지원(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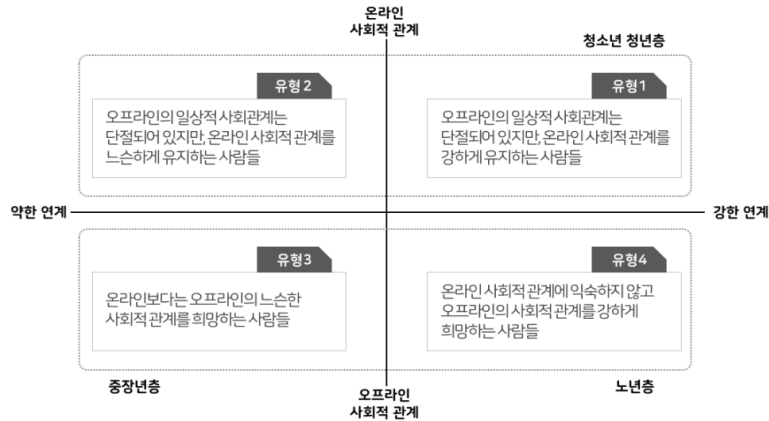
- 하지만 외로움을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으로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정서적 외로움의 원인이 사회적 외로움에서 비롯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정책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외로움을 포괄하되, 각 외로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협력 방향) 다양한 인프라·자원 활용, 중층 지원체계 구축

- 분야별 기존 인프라 및 유사 사업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특히 다양한 민간 자원(스포츠 등 신체활동, 문화·예술적 활동, 평생교육,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친교 및 자조모임 등)이 연계된 외로움치유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함
- 행정 측면에서 보면, 외로움은 전북도 1개 부서가 담당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청년·인구 등 계획처럼 총괄(전담) 부서를 설정하고 전북도 전체 부서가 합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함
- 특히 외로움은 정신적 측면의 사회적 질병이므로 보건의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고립 전 단계가 외로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지원과 공동 사업 발굴 등이 실행되어야 함

## ■ (사업 유형) 사회적 연결척도 유형 및 계층별 차별적 지원

- 생애주기별로, 개인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희망하는 연결방법이 다르므로 무조건적인 대면 연결이 옳은 것은 아님. 따라서 외로움에 처한 사람의 희망 연결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하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역시 다양해져야 함



출처: 신인철·최지원, 2019

[그림 4-1] 희망하는 사회적 관계의 유형화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2] 전북도 외로움 정책의 대상과 범위

## 나. 비전과 목표

### ■ 비전

- 문체부의 정책은 치료를 제외한 문화적 연결에 집중한 반면, 전북형 정책은 치유를 위하여 보건정책과의 연계를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함. 즉 전북형 정책은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과 차별점을 둠
- 이러한 맥락에서 전북에서는 외로움의 해소 전략으로 문화적 치유와 ‘연결사회’를 강조하고, 외로운 사람이 없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지향점을 포괄하여, 전북도의 외로움 정책 비전을 “문화로 연결, 외롭지 않은 전북”으로 설정함

[표 4-1] 전북도 외로움 대응 정책의 비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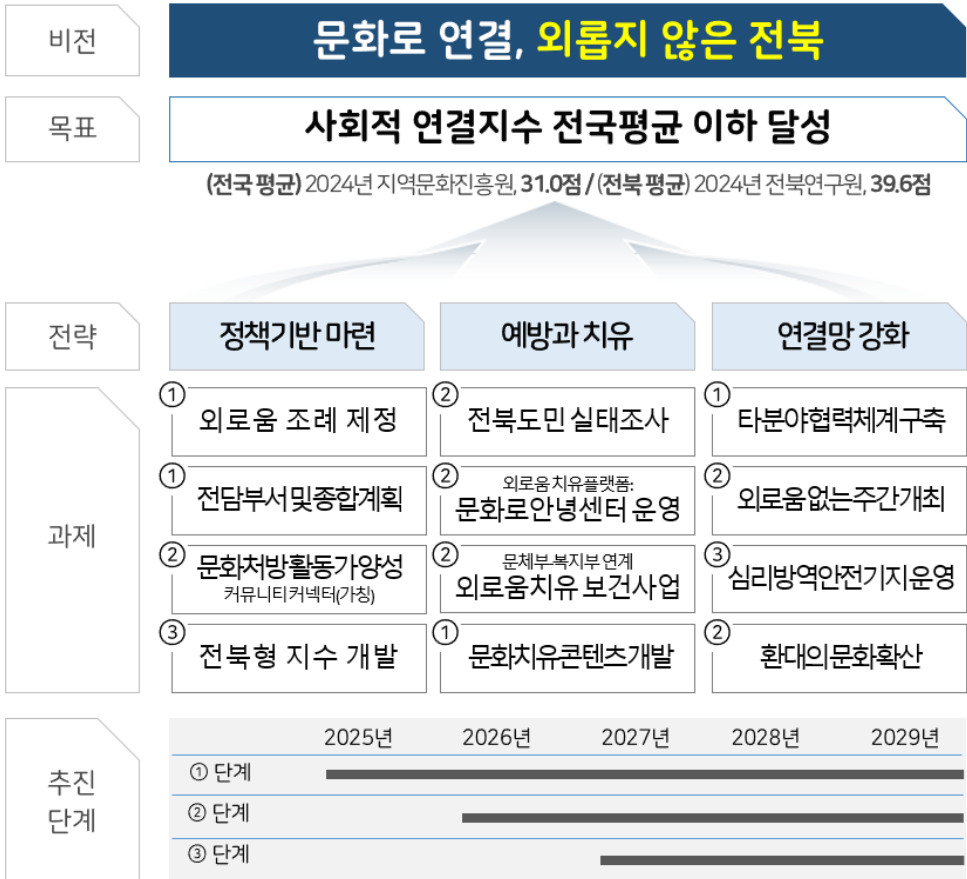
| 키워드       | 주요 내용                                                                                                                                                                                            |
|-----------|--------------------------------------------------------------------------------------------------------------------------------------------------------------------------------------------------|
| 문화로 연결    | · 외로움의 중요한 원인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 혹은 부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의 제고를 통한 연결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되, ‘문화적 활동’과 ‘문화적 치유’를 연결사회의 실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                                                                               |
| 외롭지 않은 전북 | · 전북도민 누구나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도시 비전이자,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의 중요한 전략으로서 ‘현대’의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선언<br>· 지역주민, 이주민, 관광객 등 생활인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 브랜드<br>· 외롭지 않다는 것은 외로움이 해소, 즉 치유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외로움을 해소하는 치유의 개념이 포함 |

### ■ 목표

- 사회적 연결지수 개선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사회적 연결지수는 외로움 심리지수와 사회 관계지수의 평균으로 계산, 사회적 연결지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연결이 약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음
-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민의 사회적 연결지수는 39.6점으로, 2024년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조사한\* 사회적 연결지수 31.0점보다 높음. 즉 전북도민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연결이 약하고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 온라인 패널 활용, 만 18세 이상 5,000명, 2024.1.2~1.23
- 전북도의 외로움 정책의 목표는 전국 평균 수준인 30점 이하로 설정함

## ■ 전략과 과제

- 첫 번째 전략은 정책 기반 마련임.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정책이 아니라 외로움 정책이 전북도에서 독자적으로 실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외로움에 대한 지역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둬
  - 외로움 관련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 제정, 전북의 특성을 담은 전북형 외로움 실태조사 지표 및 지수 개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전담 부서 지정 등
- 두 번째 전략은 전북의 외로움 실태에 따른 예방과 치유임. 전북도민은 사회적 관계(특히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회적 자본)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획득하는 자기 가치감의 상대적 악화로 이어짐. 따라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회적 관계의 강화(영국의 링크 워커를 통한 링크의 활성화)를 통해 자기 가치감이 높아지는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외로움에 따른 정신·신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외로움에 처한 이를 발굴하여 치유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함
  - 전북도민의 외로움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적 처방 인력(영국의 링크 워커, 커뮤니티 커넥터<sup>가칭</sup> 양성, 외로움 치유 플랫폼으로서 외로움치유센터 설립, 보건의료와 연계한 외로움 통합치유 서비스체계 구축, 외로움의 치유효과를 높이는 연구개발 등
- 세 번째 전략은 연결망 강화임.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뿐 아니라, 외로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 간의 협력,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을 포괄함. 외로움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고, 외로움의 해소 방법이 연결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제고되도록 사회적 인식·활동을 개선·확산하는 데 목표를 둬
  -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의 문제를 확산하는 행사 개최, 외로움 주민의 발견과 연결로의 초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림 4-3] 전북도의 외로움 대응 정책의 비전 체계

## 2. 외로움 대응 추진 과제

### 가. 전북도민 외로움 예방·치유 조례 제정

#### ■ 사업의 목적

-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외로움’을 직접 대상으로 삼는 광역 단위 조례는 부산(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 조례)·경북(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 조례임
- 외로움과 관련한 상당수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이를 준용한 조례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또는 청년·노인 등 특정 계층 대상의 조례임

| 조례명(제정일)                                        | 주요 내용                                                                                                                                   |
|-------------------------------------------------|-----------------------------------------------------------------------------------------------------------------------------------------|
|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2022.9.22)               | ·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외로움 척도의 개발, 지원사업(연구 및 조사,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                                          |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2019.8.30)            | ·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외로움 지표의 개발·활용, 지원사업(연구 및 조사 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 치유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등), 외로움 치유센터 설치·운영,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 위원회 설치               |
| 무안군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2024.9.9)         | ·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심리 정서 지원,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                                                                                       |
| 황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2020.12.30)               | · 예방계획의 수립(실태조사, 관리체계, 치유 활동가 양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협력체계),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심리상담·치료,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긴급복지지원, 사회적 관계형성 모임 지원)                 |
|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2023.12.22) | ·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사회적 향상 지원, 심리·정서 지원, 사회적 참여 활동 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위원회 설치                                           |
|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2021.12.15)           | ·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아이디어 공모, 심리검사·치료 지원, 치유 전문가 상담), 추진위원회 설치                                                                       |
|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2024.12.31)              | ·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심리상담·치료,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여가 생활 지원, 민간복지 발굴·연계 서비스)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2024.9.20)         | ·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심리상담·치료, 안부확인, 방문간호서비스, 사회적 관계형성 주민 모임 지원, 반찬·건강음료 제공,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서비스, 민간복지 발굴·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립예방 지원) |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외로움’ 키워드로 검색된 조례(2025.1.4. 기준)

- 전북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만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전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외로움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함

## ■ 사업의 방향

-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정책처럼 특정 대상에 한정된 조례가 아니라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외로움 예방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추진함
- 타 지역의 조례를 참조하되, 예방과 치유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대응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차별적인 내용을 발굴하여 조례에 담음

## ■ 사업의 내용

-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 외에 외로움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조례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 도의회 주관으로 개최, 사회적 고립 조례와의 차별점 및 제정의 필요성, 타 지역 사례와 전북 조례의 주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
- **(조례 제정 추진)**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고립과 연계하여 제정된 외로움 조례와 달리,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독자적인 외로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함

|                              |                                                                                                                                                                                                                                                                                                                                                                                                                                                                                                                                                                                                                                                                                                                                       |
|------------------------------|---------------------------------------------------------------------------------------------------------------------------------------------------------------------------------------------------------------------------------------------------------------------------------------------------------------------------------------------------------------------------------------------------------------------------------------------------------------------------------------------------------------------------------------------------------------------------------------------------------------------------------------------------------------------------------------------------------------------------------------|
| 전북 외로움<br>관련 조례의<br>주요 내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명) 전북도민 외로움 예방과 치유를 위한 조례</li> <li>· (조례 목적) 전북도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예방하고 외로움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li> <li>· (계획의 수립·시행) 5년 단위의 '전북도민 외로움 예방 및 치유 계획' 수립</li> <li>· (실태조사) 전북도민 대상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외로움 지수 및 사회적 연결지수 분석, 전북만의 외로움 원인, 사회적 병리 현상, 해소 방안 등)</li> <li>· (예방·치유 지원)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연구 및 조사, 문제해결 공모사업, 사회적 처방 활동가(인력) 양성 및 배치, 사회적 연결 활동 지원, 외로움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등)</li> <li>· (외로움치유센터 설립·운영) 광역 단위의 외로움 플랫폼으로서 외로움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운영(기초 단위의 외로움치유센터 병행 추진 유도)</li> <li>· (위원회 및 협력체계) 외로움 예방·치유 민관위원회 구성,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통합적 치유 서비스체계를 위한 협력 강화</li> <li>· (외로움 없는 주간) 특정 시기에 외로움의 인식 확산과 연결을 위한 행사 개최</li> </ul> |
|------------------------------|---------------------------------------------------------------------------------------------------------------------------------------------------------------------------------------------------------------------------------------------------------------------------------------------------------------------------------------------------------------------------------------------------------------------------------------------------------------------------------------------------------------------------------------------------------------------------------------------------------------------------------------------------------------------------------------------------------------------------------------|

## 나. 전북형 외로움 지수 개발과 실태조사

### ■ 사업의 목적

-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나, 예방 단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외로움 단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음. 문체부에서도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머물
- 전북에서는 2024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도 거주 18~39세 청년·가족, 1,075명)를 수행
- 사회적 고립의 전 단계인 외로움에 관한 전북도민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사회적 고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

### ■ 사업의 방향

- ‘한국적 외로움’이 존재하듯(서영석 외, 2020), 전북도민의 외로움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으므로, 사회문화적 여건 및 생애사에 따른 전북도민의 외로움 특성을 반영한 ‘전북 외로움 지수’를 개발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관리함
- 도민 대상의 기존 조사(예: 사회조사)를 활용하거나, 독자적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시계열적으로 외로움 지수를 관리하고, 일상에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외로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상적 지수 측정 지원체계를 갖춰져야 함

### ■ 사업의 내용

- **(전북의 외로움 지수 개발)** 전북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생애주기별 및 외로움 위험 정도별로 예방 및 치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외로움 실태를 파악하고 시계열적으로 관리하는 지표·지수를 개발함
- 스코틀랜드의 지표 사례 : 교류하는 장소, 외로움, 아동의 웰빙과 행복,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아동, 정신적 웰빙, 문화활동 참여, 아동과 청년에 대한 신뢰, 육체적 활동
- **(전북도민 외로움 실태조사)** 개발된 전북의 외로움 지수를 활용하여 도민의 외로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적 척도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연차별로 관리함

## 다. 외로움 치유 플랫폼 : <sup>가칭</sup>문화로안녕센터 조성 및 운영

### ■ 사업의 목적

-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질병으로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지역사회 문제이나, 지역 차원에서의 통합 대응체계가 부재함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화적 해법 모색 및 지역민의 웰빙(Well-being)을 위한 실질적인 문화사업이 필요함
  - (WHO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 (웰빙/Well-being)'한 상태를 의미, 건강을 의료적 개념에서 벗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개념으로 설정
  - (문화비전 2035 기본방향 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화적 해법 모색
-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를 통한 사회적 연결을 통해, 문화로 '안녕'(well-bing)하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지원함

### ■ 사업의 방향

- 문화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민이 지역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Well-being)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함
  - (개방형 치유 공간) 누구나 방문하여 문화를 통해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치유 공간
  - (맞춤형 문화처방 거점) 보건·복지 분야와 제도적 협력을 통해 참여 주민 연계 발굴, 관계 중심 맞춤형 문화적 처방 연계, 통합 케어를 통한 심화된 외로움 해소(경감)에 주력
- '문화+복지'와의 제도적 협력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성공 모델이 필요한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주제로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문화 및 복지 영역과의 제도적 협력 추진 및 이를 통한 공동성과를 창출함
  -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례) 각각 개별 정책이었던 '문화예술'과 '교육' 영역이 영역도 관련 법, 제도 도입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신규 확대
  - 다양한 기관·자원과의 연계·협력 기반 구축을 통하여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 서비스체계가 필요

## ■ 사업의 내용

- 사업기간: 2026 ~ 2029
- 사업범위: 전북 문화로안녕센터 조성 및 운영 ※ 2026년 국가사업(문체부)의 시범사업 추진
- 총사업비: 3,600백만원 (국비 1,800, 도비 1,800)
  - 치유플랫폼 조성 2,000백만원, 프로그램 개발 및 센터 운영 연간 400백만원×4년=1,600백만원
- 추진기관: 전북소재 필수공간 보유 기관(단체)
- (필수공간) 맞춤형 문화처방 운영 및 연결을 위한 상담 공간, 커뮤니티 활동공간
- (필수역할) 지역 내,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둘러싼 관련 단체, 기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협력망 구축

- **(지역 커뮤니티 거점 운영)** 문화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문화를 통해 주민이 '안녕'(웰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을 운영함
  - (참여자 발굴) 일반 주민 참여자와 심화된 외로움(및 사회적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는 주민 참여자를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참여자 모집·발굴
- **(일반 주민) 지역의 웰빙과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의 상설 특화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일반 주민의 심화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주력함
  - \* (상설 특화프로그램) 웰니스 프로그램: 정신적, 신체적 건강 연계(스트레스, 비만, 치매 등) 문화 프로그램, 개방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주민기획 소모임 운영, 생활문화 프로그램
  - 상설 특화프로그램은 <사례3>과 같이 프로그램이 아닌, 거점센터에만 있는 유일한 정보, 서비스를 기획하여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경험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획 필요
- **(심화된 외로움 경험 주민) 보건·복지 분야와 제도적 협력\***을 통해 연계 발굴, 관계 중심 맞춤형 문화처방 연계, 통합 케어를 통한 심화된 외로움 해소(경감)에 주력함
  - \* (보건·복지 분야와 제도적 협력) 지역 내 외로움 대응을 위한 관련 분야(문화·복지·보건) 간 원활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서라도 일시적인 협약체결이 필요
  - [맞춤형 문화처방] 거점센터 혹은 협력기관(단체)에 방문한 외로움 경험 주민을 대상으로 관계 중심의 맞춤형 문화처방 실시(커뮤니티 커넥트<sup>가칭</sup> 활동)

- **(맞춤형 문화처방)** 거점 센터 및 협력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문화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동아리, 텃밭가꾸기 등 공동활동 연계, 상담, 공간 등의 맞춤형 처방을 실행함

\* (운영 방향 ①) 거점센터 상설프로그램 외, 센터 자체 기획 운영 및 신규 사업 운영은 최소화, 협력네트워크 내 자원 활용 및 기존 지역자원·프로그램 활용 연계로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

\* (운영 방향 ②) 협력분야(복지기관) 프로그램 적극 연계 및 연계 + 참여자 모니터링 관련 역량 협조를 통한 협력 (예: 전북청년미래센터 상담연계 및 참여자 상담후 변화과정 피드백 등)

- (커뮤니티 커넥터의<sup>가칭</sup> 역할) 관계 형성과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문화영역+복지영역' 통합적 전문성을 갖춘 커뮤니티 커넥터의 역할 필요, 커뮤니티 커넥터는 지역사회 내 문화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을 매핑하고,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연결하는 핵심 인력

- **(외로움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 및 참여형 축제 운영을 통한 외로움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대를 추진함

- <사례 2>와 같은 팝업형 행사 추진 등 외로움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대 및 접근성 증대 계기 필요

- 사업 추진 방안

- 연도별 사업 추진 단계 (문체부 주관 사업 추진 시: 2026년 전북도 시범사업 추진)

| 2026년: 1년 차            | → | 2027년: 2년 차            | → | 2028년: 3년 차            | → | 2029년 ~                        |
|------------------------|---|------------------------|---|------------------------|---|--------------------------------|
| 문화로안녕센터<br>시범운영<br>1개소 |   | 문화로안녕센터<br>시범운영<br>3개소 |   | 문화로안녕센터<br>시범운영<br>3개소 |   | 문화로안녕센터<br>본 사업 운영<br>전국 설치 확대 |
| 2,400백만원*              |   | 5,200백만원               |   | 5,200백만원               |   | 미정                             |

\* 센터 조성비 2,000백만원, 센터 운영비 4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 지표의 변화) 측정도구 선정 혹은 개발 필요
- 사업의 핵심 인력으로 '외로움 치유 플랫폼'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나, '문화영역+복지영역' 통합적 역량이 필요한 인력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필요

### 외로움 처방 대상자 발굴과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 운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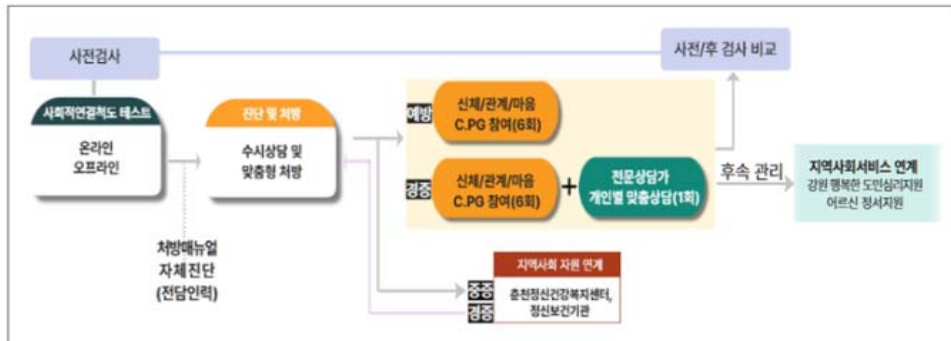
· 주요 역할 및 사업내용 예시

| 참여자 발굴                           | 진단 및 상담                                    | 맞춤형 프로그램                             | 지역자원 네트워크                |
|----------------------------------|--------------------------------------------|--------------------------------------|--------------------------|
| 지역사회 특성 고려<br>중점 대상자(고위험군)<br>발굴 | 사전검사지 제작과<br>심화진단 대상자<br>전문·전문가 상담체계<br>구축 | 수요자 맞춤형 처방<br>프로그램 기획 운영             | 지역 내 자원공유 및<br>협력체계 구축   |
| ▼                                | ▼                                          | ▼                                    | ▼                        |
| 일상 스트레스에<br>노출된 직업군과<br>시민으로 확대  | 전담인력/상담전문가<br>발굴운영                         | 지역자원, 동네장소<br>직업특화 마음산책<br>프로그램으로 확대 | 사회적 관계·안전망<br>구축과 지속적 활동 |

- 참여자 발굴 : 지역특성을 고려 고위험 직업군 및 일상적 스트레스 유형 도출
- ex) 극심한 민원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공공업무 종사자, 지나친 생업경쟁 속에 일상의 삶을 사는 운송업 종사자, 반복되는 패턴과 사람응대의 감정노동 종사자 등

· 진단 및 상담

- 운영체계 구축 : 예시 (춘천문화재단 도시마음산책 진단상담 체계)



- 사전검사지 :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 진단지 작성과 진단방법, 진단결과 고려 상담포인트 설계 등
- 수요자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 지역, 동네, 사람 자원 연계 상시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지역자원 네트워크 : 상시적 지속적 연계 활동 네트워크 구축

|                                                                                                                                                                                                                                                                                                                                                                                                                                                                                                                                                                                                                                               |                                                                                                                                                                                                                                                                                                                                                                                                                                                                                           |
|-----------------------------------------------------------------------------------------------------------------------------------------------------------------------------------------------------------------------------------------------------------------------------------------------------------------------------------------------------------------------------------------------------------------------------------------------------------------------------------------------------------------------------------------------------------------------------------------------------------------------------------------------|-------------------------------------------------------------------------------------------------------------------------------------------------------------------------------------------------------------------------------------------------------------------------------------------------------------------------------------------------------------------------------------------------------------------------------------------------------------------------------------------|
| <p>〈사례 1〉 싱가포르 통합 커뮤니티 및 라이프스타일 허브 〈Our Tampines Hub아우어 탬피니스 허브〉<br/>(2017년 싱가포르 정부(문체부 등)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특징) 주민들을 위한 문화, 스포츠, 의료,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센터 곳곳에 위치한 사회적처방 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스포츠 활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운영방식이 특징</li> <li>· (주요공간) △ 문화/스포츠 공간(수영장, 도서관, 전시공간), △ 건강/복지 서비스 공간(사회적처방센터, 공공병원클리닉, 상담실 등), △ 커뮤니티 공간(도서관, 워크숍 공간 등), △ 푸드, 상업시설 등</li> <li>· (성과) 지역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를 촉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음</li> </ul> <p>※ 출처: <a href="https://www.dpa.com.sg/projects/our-tampines-hub/">https://www.dpa.com.sg/projects/our-tampines-hub/</a></p>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span>〈Our Tampines Hub 내부 모습〉</span> <span>〈사회적 처방과 연결 서비스센터〉</span> <span>〈건물 내 사회적 처방센터〉</span> </div>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처방 관련 문화연결 정책사업과 문체부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관계중심 문화 연결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 싱가포르 문체부 외에도, WHO(세계보건기구) 동아시아지부에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포함한 국내 문화처방 관련 외로움 대응 문화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문화처방 관련 사업 추진시, 향후 국제교류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임</li> <li>· 싱가포르의 사회적처방은 문체부(Ministry of Culture, Community, and Youth/MCCY)와 예술위원회(National Arts Council) 차원에서 정책목표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특징</li> </ul> <p style="text-align: right;">* 출처 : <a href="https://www.nac.gov.sg/about-us/oursartsplan">https://www.nac.gov.sg/about-us/oursartsplan</a></p>                                                                        |                                                                                                                                                                                                                                                                                                                                                                                                                                                                                           |
| <p>〈사례 2〉 저마다의 외로움이 문화로 연결되는 곳<br/>체험형 반짝공간 〈외:로움이의 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특징) ‘외로움’ 이해, 문화적 연결 통한 예방·치유 관련 대화·공감의 장 마련 팝업 축제</li> <li>· (주요프로그램) 공감콘서트, 고립,은둔 청년 대상 가상회사 프로젝트 〈니트컴퍼니〉 및 작은워크숍 운영, 고립청년경험 전시 〈시간의방〉, 5개 지역거점 센터 문화 체험프로그램 등</li> <li>· (성과) △ 참여자 목표 1000명 대비 실방문자 1478명, 목표대비 147% 초과달성, △ 문화, 복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체험형 팝업을 통한 외로움에 대한 국민 접근성 증대, 외로움에 대한 대중적 관심 유도</li> <li>· 외로움 주제의 문화 프로그램 구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처방과 연계하여 외로움에 대한 문화적 해석으로 무겁지 않은 공감과 이해의 장 마련</li> </ul>                                                                                                            | <p>〈사례 3〉 신개념 관광안내소, 광주 여행자의 필수코스:<br/>광주 동구 〈여행자의 z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특징) 광주 여행 전, 여행자들의 필수코스인 입소문이 난 곳으로, 기존 관광안내소 운영방식을 탈피한, 팝업스토어 방식의 구성으로, 광주를 기획적으로 큐레이션하여 모아놓은 정보공간이면서, 정보관서비스+간단한 요거거리까지, 여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종합 쉼터</li> <li>· (주요공간,기능) 스낵바, 정보관소, 굿즈샵, 관광안내서 배포, 피크닉세트대여 서비스 등</li> <li>· (성과) 기존 정보공간이었던 관광안내소 기능에서, 체험중심공간으로 변화하면서, 공공공간이면서, 핫플레이스로 변모</li> <li>· 공간 주기능을 ‘정보제공’에서 ‘여기’에만 있는 ‘특별한 체험’과 ‘휴식’경험공간으로 변모시켜 자발적 방문을 유도함</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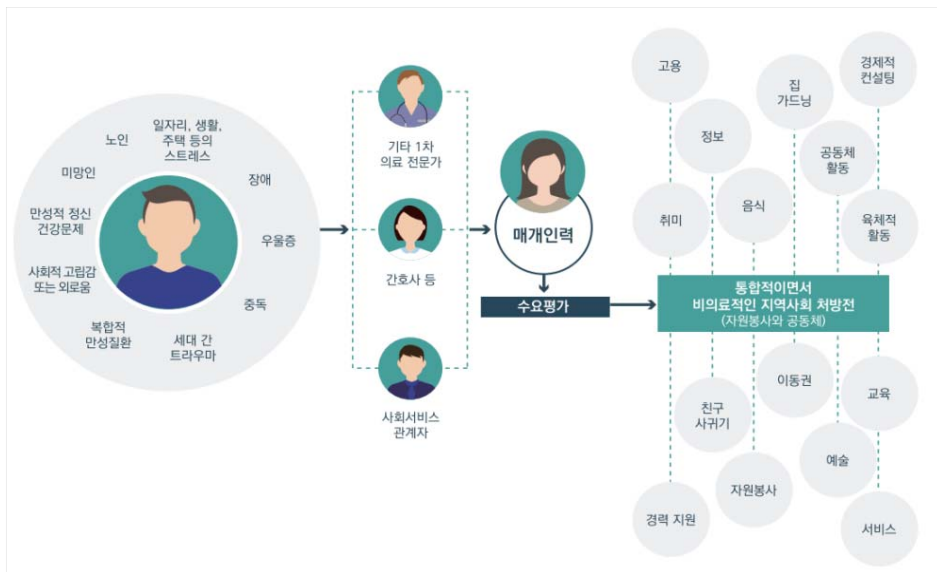
## 라. 의료기관의 사회적 처방 연계, ‘외로움 치유 보건 시범사업’

### ■ 사업의 목적

- 외로움은 사회적 질병으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며, 영국에서 의료기관과 연계된 사회적 처방이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적 처방과 연계된 외로움 치유 사업이 필요함
- 의료기관의 사회적 처방과 연계된 외로움 치유 사업이 추진되려면 문체부와 복지부가 협력하여야 하며, 의료적 처방과 비의료적 치유를 병행하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전북에서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 사업의 방향

- 1차 의료기관(병·의원)과 지역보건소의 임상처방 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결하는 사회적 처방 체계 구축에 대한 국가적 시범사업을 전북에서 추진함
- 1차 의료기관의 사회적 처방을 ‘링크 워커’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는 영국의 모델



출처 : 장세길·이중섭·이주연, 2023

[그림 4-4] 매개 인력을 활용한 지역의료와 지역자원의 연계 모델(영국의 사회적 처방 사례)

## ■ 사업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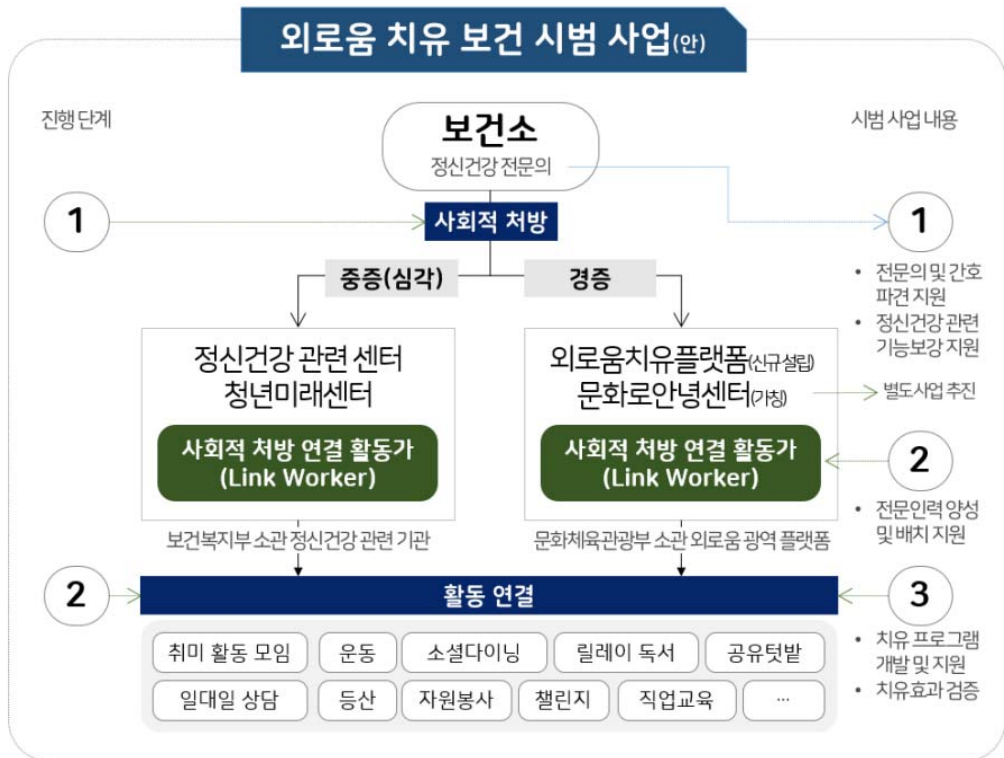
- 사업기간: 2026~2027년 (시범사업)
- 사업범위: 전북도 중 1개 시·군
- 총사업비: 2,000백만원 (국비 2,000) ※ 연간 1,000
  - 정신건강 전문의 및 간호사 파견, 보건소 정신건강 상담 기능 보강(시설 개선), 사회적 처방 활동가 양성,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등
- 추진기관: 복지부 및 문체부 소관 전북도 내 기관 협의체 및 시·군 보건소

- **(사회적 처방 지원체계 구축)** 보건소에서 외로움에 처한 주민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해 사회적 처방을 내리고, 이 처방을 외로움의 정도에 따라 복지부 소관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 문체부 소관 외로움 광역플랫폼으로 연계되는 사회적 처방 지원체계를 구축함
  - 시범사업으로 1개 보건소를 지정, 정신건강 전문의 및 간호사를 파견(지원)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전북의 외로움 지수에 따른 외로움 측정과 임상 진단 후에 사회적 처방을 내림
  - 외로움에 따른 질병의 정도에 따라 복지부 및 문체부 소관 플랫폼을 구분하여 활동 지원
- **(사회적 처방 매개인력 양성과 활동)** 영국의 ‘링크 워커’ 형식의 사회적 처방 연결 활동가를 양성하고, 관련 기관 내 배치한 뒤 사회적 처방에 따른 연결 활동을 지원함
  - 외로움 실태에 대한 개별 조사 결과와 보건소 전문의에 의한 사회적 처방에 맞춰 사회적 처방 활동가가 지역 내 다양한 자원 및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단체를 연결해 줌
  - 일정 시간의 사회적 처방 활동 이후에 외로움 지수의 재 측정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효과를 검증

| 사회적 연결 척도      |                                     | 외로움 요인에 따른 사회적 처방 예시 |
|----------------|-------------------------------------|----------------------|
| <b>소원감</b>     | 사회적 관계에서 생기는 소원함(부재, 단절, 결별)에 의해 초래 | 공유주방 식사나눔 프로그램       |
| <b>고립감</b>     | 주변사람과 좁힐 수 없는 거리감, 정서적 동화가 안되는 소외   | 스포츠 동아리   공동제작 활동    |
| <b>위축된 사고성</b> | 사회적 상황에 놓이는 기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        | 알대일상담 공유타발 라레이독서     |
| <b>자기가치감</b>   | 사회적 참여와 몰입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의식을 획득     | 등산   자원봉사   챌린지      |

출처 : 지역문화진흥원, 2024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안내

[그림 4-5] 사회적 연결 척도에 따른 사회적 처방 예시



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림 4-6] '사회적 처방 연계, 외로움 치유 보건 시범사업' 체계도

## 마. RISE 연계, 외로움 치유 사회적 처방 활동가 양성 및 지원

### ■ 사업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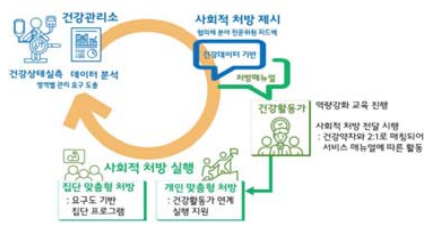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사, 지역문화전문인력 등 다양한 인력이 활동하나, 이들은 의료적 활동이 필요한 사회적 처방에 대한 전문 역량이 부족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처방에 대한 역량을 갖춰 전문인력(링크 워커)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함

### ■ 사업의 방향

- 사회적 처방이라는 의료적 역량, 지역의 다양한 연결 자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치유하도록 매개하는 역량 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함

| 광주시 광산구 사회적 처방 건강활동가 양성 사업 사례                                   |                      |      |             |
|-----------------------------------------------------------------|----------------------|------|-------------|
| · 교육 과정 및 대상<br>- 호남대학교 연계(공모로 선정), 활동가 양성과정 진행: 300명, 총16회기 운영 |                      |      |             |
| 과정명                                                             | 대상(인원)               | 인원   | 회기/시간       |
| 건강활동가기초교육                                                       | 현 건강활동가(노인일자리)       | 100명 | 총4회기 / 12시간 |
| 건강활동가실무교육                                                       | 지역활동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100명 | 총4회기 / 12시간 |
| 건강코칭 실무자과정                                                      |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현장 실무자 | 50명  | 총4회기 / 16시간 |
| 건강활동가심화과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 50명  | 총4회기 / 12시간 |





### ■ 사업의 내용

- 전북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RISE와 연계하여 대학 내 교육과정을 개설함
- 전문기관(병원)과 대학이 협력하도록 유도, 외로움 치유와 관련된 사회적 처방 활동가(연결치유활동가<sup>가정</sup>)를 양성하는 교육과정(학사과정 및 평생교육과정 구분)을 운영함

## 바. 심리방역 안전기지 발굴 : ‘마음챙김, 우리동네 마음 둘 곳’

### ■ 사업의 목적

-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취미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 활동으로 교류하며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 건강을 챙기는 공간이 필요함

### ■ 사업의 방향

- 이웃과 연결과 만남의 장소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동 거점을 조성, 이웃과의 적극적인 관계맺기와 이해, 배려, 존중의 가치 발현으로 서로의 마음 안전기지 및 문화안전망을 구축함
- 공간·생각·경험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커뮤니티 활동의 선한 영향력을 이웃과 동네로 확산하도록 단계별 사업을 추진함

### ■ 사업의 내용

- 사업기간: 2026~2030년
- 사업범위: 전북도 내 시·군 (공모사업 추진)
- 총사업비: 2,500백만원 (국비 500, 도비 1,000, 시군비 1,000) ※ 연간 500백만원
- (연간) 공간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 연간 5백만원×50곳=250백만원, 공간 및 커뮤니티 공동홍보비 : 50백만원, 공간 주인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모임 운영 (워크숍 2회, 모임 4회) : 50백만원, 사업 운영 관리비(전담인력, 심의, 컨설팅, 기타 사무관리비 외) : 150백만원
- 추진기관: 전북문화관광재단, 시군 문화공간 연계 문화단체 등(공모 선정)

- **(마음 둘 곳 공간 운영)** ‘마음 둘 곳’ 공간과 주인장 발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공간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모집(공모) : 50개 발굴  
※ 생활권 내 카페, 공방, 서점, 바 등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
- 선정 기준: 공간의 접근성, 운영자의 의지, 프로그램 운영 적합성 등
- 지원 내용: 커뮤니티 운영 지원금 (3~5백만원), 주인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네트워킹,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공동 홍보 등

|                                     |                                |                             |
|-------------------------------------|--------------------------------|-----------------------------|
| 공간의 발굴                              | 주인장 역할 부여                      | 커뮤니티 활동 지원                  |
| 동네 소규모 민간 공간<br>(카페, 서점, 바, 레스토랑 등) | 공간의 <u>호스트</u> 로<br>커뮤니티 기획·운영 | 공간 및 프로그램<br>공동 홍보와 참가자 모집  |
| ▼                                   | ▼                              | ▼                           |
| 생활권 내 이웃과 마음 연결<br>거점               | 다채롭고 흥미로운<br>취미·취향·관계 프로그램     | 동네에서 공간 인지도 상승 및<br>공간 간 연결 |

-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원)** 공간 주인장 모임 운영 및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함
  - 주인장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관련 워크숍, 프로그램, 소모임 운영
  - 커뮤니티 기획부터 운영까지 노하우 공유와 주인장들의 새로운 욕망 발견과 자극으로 커뮤니티 운영의 지속적인 동력 제공
  - 관심사가 비슷한 주인장 네트워크 조직 및 공동 프로젝트 추가 지원으로 공간 주인장에서 커뮤니티 시민 리더로 성장·활동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마음마켓 개최)** 취미·취향의 마음마켓을 연 1회 개최함
  - 공간 및 커뮤니티 활동 공유 축제 개최로 사업 홍보 및 관계망 확대
  - 공간 주인장과 커뮤니티 참여자가 주도하는 마켓으로 시민 주도의 축제 운영 통해 커뮤니티 활동 확장

|                                                                                                                                                                                                                                                    |                                                                                      |
|----------------------------------------------------------------------------------------------------------------------------------------------------------------------------------------------------------------------------------------------------|--------------------------------------------------------------------------------------|
| <p>문화도시 춘천 ‘도시가 살롱’ 사업 사례</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도시 춘천 ‘도시가 살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시민들의 일상에서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 제안 및 동네 장소 거점 조성으로 살롱 중심의 도시문화 발현</li> <li>- 도시가살롱 공모 공고 : 2020년부터 매년 번주하며 진행</li> </ul> </li> </ul> |  |

| 외로움 지원책 대책과 중 모임 관련 예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 및 전시 모임, 몸을 사용하는 모임, 함께 텃밭이나 정원 가꾸기, 여행 모임, 동네 독서모임, 뜨개질 등의 공예 &amp; 수다, 자서전 글쓰기 모임, 해가 짙해질 때만 만나는 모임, 일상 나눔 서클, 계모임, 동네 밥모임, 가상 가족 및 가상 회사 조직하기, 묵언차회, 지지가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좋아하는 것을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센터(2024), 외로움 지원책 대책과)</li> </ul> |

## 사. 외로움 없는 주간(Loneliness-Free Week) 개최

### ■ 사업의 목적

- 문체부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체험 행사가 개최되고, 지역의 사업추진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제 외로움에 처한 사람과 연결하는 행사가 개최된 사례는 거의 없음
  - 서울시가 외로움 없는 주간 개최를 포함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에 관한 종합계획(2024)을 발표
- 외로움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병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외로움에 처한 사람을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성 행사가 필요함

### ■ 사업의 방향

- 영국의 ‘더 그레이트 갯 투게더’ 행사처럼, 외로움, 사회적 고립,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소수자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과 함께 행사를 개최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되, 지자체는 최소한의 모임·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함

#### 영국의 ‘더 그레이트 갯 투게더’(The Great Get Together) 사례

- 2016년 사망한 조 콕스(Jo Cox) 의원이 말한 "우리는 우리를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에서 출발, 영국의 지역사회 단합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매년 6월 개최
- (주요 목적) 커뮤니티 연대 강화, 사회적 고립 해소, 다양성 존중
- (주요 행사) 커뮤니티 이벤트(공원, 거리, 광장 등에서 피크닉, 바비큐, 거리 파티 등에서 식사, 교류), 문화 공연(예술 행사와 주민 참여), 스포츠 활동(축구, 크리켓 등 스포츠 경기, 주민 참여), 워크숍 및 세미나
- (사업 효과) 2024년 행사: 행사 이후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40% 증가, 영국 전역에서 열린 모임 이벤트 626건, 더 그레이트 갯 투게더 이벤트 참석자 97,600명
- (참여 방법) 주민, 단체, 기관이 직접 행사를 기획·주최, 공식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지원 가능



- 국외 사례처럼, 외로움 주제로 인식을 확산하거나, 정신건강에 대한 예술행사를 개발·진행하거나,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을 통한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하는 주간을 설정함

[표 4-2] 외국의 외로움 관련 행사 사례

| 행사명                                                         | 주요 내용                                                                                                                                                                                                        | 비고                                                                                  |
|-------------------------------------------------------------|--------------------------------------------------------------------------------------------------------------------------------------------------------------------------------------------------------------|-------------------------------------------------------------------------------------|
| 영국<br>외로움 인식 주간<br>(Loneliness Awareness Wee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셋째 주에 개최.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li> <li>· 워크숍, 세미나, 예술 행사 등이 열리며, 지역 사회의 참여를 독려</li> </ul>                                          |   |
| 스코틀랜드<br>정신건강예술축제<br>(Scottish Mental Health Arts Festiv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10월 10일~27일 개최</li> <li>· 예술과 창의성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주제</li> <li>· 시각예술, 연극, 정신건강 예술네트워크, 예술가와 지역사회의 협력 전시, 정신건강과 예술 주제 Writing Awards 등</li> </ul> |   |
| 호주<br>네버 앨론 위크<br>(Never Alone Wee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네버 앨론 위크'를 개최</li> <li>· 커뮤니티 모임, 예술 전시, 음악 공연 등을 통해 사람들 간의 연결을 촉진하고, 외로움에 대한 담론을 형성</li> </ul>                                         |  |

## ■ 사업의 내용

- **(외로움 없는 주간 설정)** 전국 최초로 조례에 따른 ‘외로움 없는 주간’을 지정함. 전북도민의 실태조사를 통해 가장 외로워하는 시기를 분석하여 1주일을 설정함
- **(전북형 Get Together)** 영국의 The Great Get Together를 참조, 전북형 Get Together 행사를 개발·추진함.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민관협력조직위를 구성(영국의 조콕스 재단), 민간의 기획·개최·참여와 공공의 간접적 지원으로 진행함
  - 전북도정 캐치프레이즈의 핵심 키워드인 ‘함께’를 활용, (가칭)‘함께 연결, 함께 행복’ 등
- **(전담기관 지정과 계획 수립)** 사업을 지원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함

## 아. 외로움의 문화적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 사업의 목적

- 사회적 질병인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사회적 연결이나, 외로움에 따른 병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적 치료 외에 문화적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함
-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지만, 치유 효과에 관한 관심이 많지 않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적 치유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지 않음
- 따라서 사회적 질병인 외로움에 관한 처방을 통해 치유 효과가 나타나는 ‘문화적’인 ‘치유’ 프로그램·콘텐츠를 개발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함

### ■ 사업의 방향

- 치유농업 사례와 같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치유적 효과가 나타나는 문화적 프로그램, 즉 문화적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 검증을 추진함
- (문화적의 의미) 첫째, ‘문화’라는 정책분야. 대체로 예술과 여가 활동 의미. 둘째, 문화의 특징인 공유와 집단성, 공감과 소통, 참여, 다양성이 등이 포함. 셋째, 사람을 모이게 하고 함께 활동하게 만드는 매개로서의 의미. 즉 문화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수단

### ■ 사업의 내용

- (문화적 치유 프로그램 개발 지원) 실태조사에 따른 사회적 연결 척도(2~4등급), 외로움 원인, 사회적 처방에 따른 외로움의 유형(소원감, 고립감, 위축된 사교성, 자기가치감)에 따른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함

### 외로움 해소를 위한 문화치유 프로그램 사례

✓ 나를 행복하게 해준 마이펫 이야기

**펫로스 증후군**  
반려동물 우울증



반려동물이 죽은 후

- (배경) 반려동물을 잃었거나 준비 중인 펫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들의 좌절감과 우울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극복할 수 있는 치유가 필요
- (목적)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해하고 위로하며 추억을 회상하여 등화책을 만듦으로 우울증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 회차: 총 11회
- 참여인원: 회차별 4~10명, 총 12명 참여

✓ 할머니의 라떼

- (배경) 혼자 식사를 대충 때우고 혼자 무료하게 계시는 할머니들에게 식사와 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 (목적) 고생하신 할머니의 정돈과 삶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들어드리면서 주인공이 되는 기회와 인정, 칭찬받는 시간을 만들어드리며 치유의 시간을 만들어 드림
- 어르신이 가능한 쉬운 조리, 그림그리기와 함께 음식 나누며 이야기하기회차: 총 8회
- 참여인원: 회차별 6명, 총 48명 참여(중복포함)

[그림 4-7] 원주 문화도시 사업의 문화치유 프로그램 사례(2023년)

- **(문화적 치유의 효과 검증 및 확산)** 개발되거나 운영되는 외로움 관련 프로그램·콘텐츠에 대하여 치유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큰 프로그램·콘텐츠를 확산하도록 지원함
- 의료기관(예, 요양병원)과 연계한 R&D, 개발 프로그램의 사회적 효과 및 확산 사업 추진

[그림 4-8] 치유 효과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방향 사례; 원예치유 활동

| 목적      | 원예활동 내용                                                                                                                                         | 대상                   | 사례 |
|---------|-------------------------------------------------------------------------------------------------------------------------------------------------|----------------------|----|
| 창의성 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물자원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고, 감상하기</li> <li>식물의 변화를 관찰하고 표현하기</li> <li>식물자원을 활용해(허브향 말기, 맛보기 등) 오감각 자극하기</li> </ul> | 유아, 청소년 등            |    |
| 유능성 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원을 디자인하고, 식물을 정식하여 정원 완성하기</li> <li>텃밭의 시기에 적절한 관리를 통해 식물의 성장에 도움주기</li> </ul>                          | 유아, 청소년, 성인 등        |    |
| 스트레스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필요한 가지와 뿌리를 자르고 손질하기</li> <li>꽃을 자르고 꽃는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몰입 경험하기</li> </ul>                               | 청소년, 성인, 신체·정신 장애인 등 |    |
| 대인관계 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께 협동하여 지주대를 세우고, 내 주변의 지지자에 대해 알아보기</li> <li>수확물을 활용한 팍파티를 함께 계획하고 즐기기</li> </ul>                       | 청소년, 성인, 신체·정신 장애인 등 |    |
| 인지기능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물과 관련된 추억을 상기하며 식물 이름 기억하기</li> <li>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씨앗을 만져보고 집으며 손가락의 소근육 자극하기</li> </ul>                   | 노인,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등    |    |

- **(외로움의 치유 행사 개발·운영)** 외로움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사회적 처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행사를 개발하여 진행함



## 자. 전담부서 지정 및 종합계획 수립

### ■ 사업의 목적

- 외로움은 사회적 질병으로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부서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을 총괄할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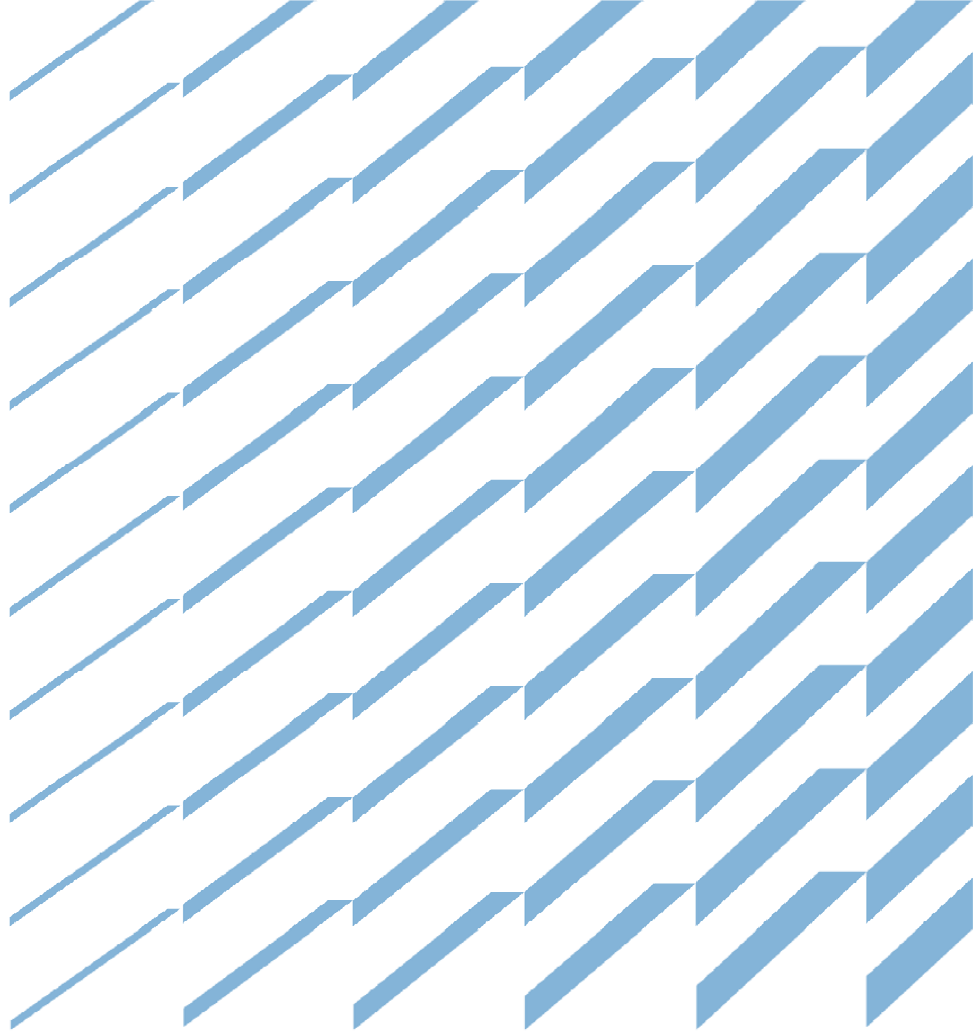
### ■ 사업의 방향

-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안은 원인이 사회적이므로 해결 역시 사회적이어야 함. 따라서 부서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되, 외로움 정책 전담부서는 영국 사례를 준용함. 또한 민간 영역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공적 영역의 기존 인프라와 민간 영역의 자원을 연결하는 중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

### ■ 사업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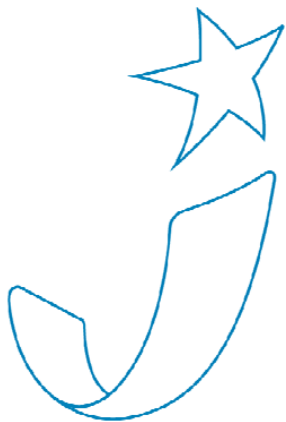
- **(전담부서)** 영국 사례처럼, 외로움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 담당하고,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연계 협력함
  - 전국 지자체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등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는 복지 부서임. 전북에서 외로움 전담 부서로 문화체육관광국을 지정하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됨
- **(종합계획)**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가칭 ‘전북도 외로움 예방·치유 및 연결사회 구현 기본계획’을 수립함.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되, 전북도 부서 합동 계획으로 추진함
  - 경상북도에서 외로움만을 대상으로 하는 ‘K-외로움 대책사업’을 추진하였고, 서울시가 2024년에 외로움 및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 **(거버넌스)** 다른 지역 위원회 사례를 참조하여 외로움 관련 민관협력 위원회를 구성함
  - 부산시 조례에는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 위원회, 경북도 조례에는 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가 명시
  - 보건복지 분야 정신건강 기관·단체, 문화 분야 공적 기관·단체, 치유(농업치유, 산림치유, 해양치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종합 대책 마련 및 사회적 처방 서비스를 운영





# 제5장

## 요약 및 제언





## 제5장 요약 및 제언

### ■ 외로움 실태조사 결과

- ‘사회적 연결지수’는 39.6점, ‘외로움 심리지수’는 45.1점, ‘사회적 관계지수’는 34.2점 수준으로 나타남. ‘1인 가구’와 ‘하층 계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연결지수를 보였으며, 주요 개선 대상인 ‘경계 집단(2그룹)’의 사회적 연결지수는 45.8점으로 나타남. 이는 외로움 심리지수와 사회적 고립이 동시에 심화된 집단을 의미함
  - 최근 한 달 동안 ‘걱정’이 53.0점으로 가장 높은 감정 상태를 보이며, ‘외로움’은 34.9점으로 나타남
- 외로움 심리지수는 45.1점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성요소별로는 ‘소원감’ 41.2점, ‘고립감’ 35.7점, ‘위축된 사교성’ 47.2점, ‘자기 가치감’ 56.1점의 수준임. 전북도민은 외로움을 ‘자기 가치감’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자기 가치감: 사회적 참여와 몰입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의식을 획득
- 사회적 관계지수는 34.2점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성요소별로는 ‘개인 환경’ 34.6점, ‘자의적 행동’ 23.3점, ‘사회적 관계’ 44.8점 수준으로 나타남. ‘여성’, ‘1인 가구’, ‘무직·퇴직자’에서 외로움이 두드러졌음
  - 응답자의 44.1%가 외부인 방문빈도가 거의 없으며, 특히 ‘여성’(53.0%)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남.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60.7%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가구 전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음.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있는 사람은 4.0%로, 특히 ‘1인 가구’(14.7%)와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12.3%)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혼자 식사하는 빈도가 ‘하루 한 번 이상’인 응답자는 37.0%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 한 달간 외출 빈도는 대부분이 ‘1번 이상’(96.6%)으로 나타남. 식사 빈도와 외출 빈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음. ‘여성’의 경우 여가 활동 경험에 대해서도 ‘거의 없음’(33.7%)의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음
  - 주말에 혼자 있는 비율은 평균 33.73%로, ‘1인 가구’(71.75%)와 직업별 ‘농·임·어업’(59.97%),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48.88%), 계층구분별 ‘하층’(38.49%)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우울할 때 도움 요청 가능한 지인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7.0%이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거주지역 내 도움 요청 가능한 지인은 59.9%가 있다고 응답함. 경조사 시 연락받는 지인의 평균은 19.52명으로, '남성'(29.57명)이 '여성'(9.51명)보다 다소 많았음. 대면 및 비대면 모임 활동은 평균 3.16회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20.6%가 소속집단이 없다고 응답함

- 외로움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과 효과적인 방법은 성별에 따라 행동이 비교적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모두 'TV·유튜브·넷플릭스 등을 시청'으로 나타남. 다만, 외로움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에서 '남성'은 '운동이나 문화생활 등 취미활동'(17.1%)이, '여성'은 '가족 외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남'(16.7%)이 'TV·유튜브·넷플릭스 등을 시청' 다음으로 나타남

## ■ 전국 조사와의 비교 및 전북 조사의 특징

- 똑같은 지표로 조사(2023년 기준)한 지역문화진흥원 결과와 비교하면, 사회적 연결지수의 경우 전북평균이 전국평균(지역문화진흥원, 2024) 31.0점보다 8.6점이 높고, 외로움 심리지수도 전국평균 39.1점보다 6점이 높음. 사회관계지수의 경우 전국평균 23.0점보다 11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별 지표를 비교 분석을 살펴보면 외로움 지수의 경우 전북평균이 전국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특히 자기 가치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전북평균 56.1, 전국평균 41.7), 사회 관계지수의 지표에서는 사회적 활동의 경우 전북평균이 전국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음
- 결국, 전국평균 값과 비교하였을 때, 전북도민은 사회적 관계(특히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회적 자본)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획득하는 자기 가치감의 상대적 약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체적인 외로움 지수를 더 높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외로움 심리지수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회적 관계지수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게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외로움은 심화되지만 사회적 관계성은 낮아졌으며, 결혼 상태에서는 기타(별거, 이혼, 사별)보다도 기혼의 경우가 외로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지역에서는 외로움지수의 경우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외로움은 낮지만 사회적 관계는 농촌이 도시보다 낮게 나타남

## ■ 사회적 연결 척도 분석 결과

- 사회적 연결척도 유형화에 따른 5개의 그룹의 응답 분포는 ‘1그룹(심각 집단)’ 17.3%, ‘2그룹(경계 집단)’ 18.5%, ‘3그룹(주의 집단)’ 26.1%, ‘4그룹(관심 집단)’ 29.2%, ‘5그룹(자립 집단)’ 8.9%로 나타남
- 집단 유형별 사회적 연결지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연결 강화를 위한 핵심 타겟인 ‘2그룹(경계 집단)’의 연결지수는 45.8점(외로움 심리지수 51.1점, 사회 관계지수 40.5점) 수준으로 평가됨. ‘3그룹(주의 집단)’의 연결지수는 37.1점(외로움 심리지수 41.5점, 사회 관계지수 32.7점), ‘4그룹’(관심 집단)’의 연결지수는 28.6점(외로움 심리지수 35.4점, 사회 관계지수 21.9점)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5-1] 사회적 연결척도 유형별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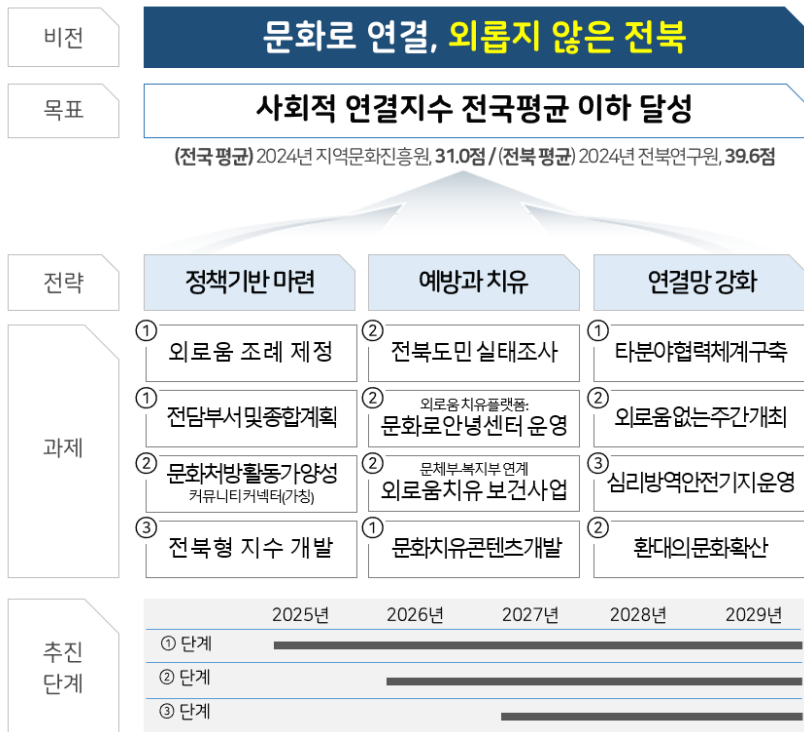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 구분         | 빈도    | 비중    | 핵심 주력 관리 필요성             |
|------------|-------|-------|--------------------------|
| 전체         | (417) | 100.0 | -                        |
| (1그룹) 심각집단 | (72)  | 17.3  | 우선순위 낮은 집단               |
| (2그룹) 경계집단 | (77)  | 18.5  | ★★★★★<br>(우선적인 관리 대상 집단) |
| (3그룹) 주의집단 | (109) | 26.1  | ★★★<br>(차선 관리 대상 집단)     |
| (4그룹) 관심집단 | (122) | 29.2  | ★<br>(지속적인 관리 대상 집단)     |
| (5그룹) 자립집단 | (37)  | 8.9   | 우선순위 낮은 집단               |

## ■ 외로움의 문화적 치유 방향과 과제

- 문화적 치유와 ‘연결사회’를 강조하고, 외로운 사람이 없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지향점을 포괄하여, 전북도의 외로움 정책 비전을 “문화로 연결, 외롭지 않은 전북”으로 설정함. 목표는 사회적 연결지수 개선으로 설정하고 전국 평균 수준인 30점 이하를 세부 목표로 제시함
- 첫 번째 전략은 정책 기반 마련임. 두 번째 전략은 전북도민 외로움 실태의 특징에 따른 예방과 치유임. 외로움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외로움에 처한 전북도민을 발굴하여 치유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함. 세 번째 전략은

연결망 강화임.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과 더불어, 외로움의 해소방법이 연결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제고되도록 사회적 인식·활동을 개선·확산하는 데 목표를 둠



[그림 5-2] 전북도의 외로움 대응 정책의 비전 체계

- 외로움 대응 추진 과제는 ①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정책처럼 특정 대상에 한정된 조례가 아니라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외로운 관련 조례를 제정함
- ② 생애주기별 및 외로움 위험 정도별로 예방 및 치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외로움 실태를 파악하고 시계열적으로 관리하는 지표·지수를 개발함. 전북의 외로움 지수를 활용하여 외로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단계별 외로움 수준 목표를 설정하여 연차별로 관리함
- ③ 문화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민이 지역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으로 ‘안녕(Well-being)’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 거점, 가칭 문화로안녕센터를 조성하고 맞춤형 문화처방, 외로움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를 추진함

- ④ 1차 의료기관(병·의원)과 지역보건소의 임상처방 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결하는 사회적 처방 체계 구축에 대한 국가적 시범사업을 전북에서 추진함
- ⑤ RISE와 연계하여 대학 내 교육과정을 개설함. 전문기관(병원)과 대학이 협력하도록 유도, 외로움 치유와 관련된 사회적 처방 활동가(가칭, 연결치유활동가 또는 커뮤니티 커넥터)를 양성하는 교육과정(학사과정 및 평생교육과정 구분)을 운영함
- ⑥ 이웃과의 연결·만남의 장소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는 문화커뮤니티 프로그램 활동 거점을 조성함. 이를 통해 이웃과의 적극적인 관계맺기와 이해, 배려, 존중의 가치 발현으로 서로의 마음 안전기지 및 문화안전망을 구축함
- ⑦ 전국 최초로 조례에 따른 ‘외로움 없는 주간’을 지정함. 전북도민의 실태조사를 통해 가장 외로워하는 시기를 분석하여 1주일을 설정함. 전북형 Get Together 행사를 개발·추진함.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민관협력조직위를 구성(영국의 조콕스 재단), 민간의 기획·개최·참여와 공공의 간접적 지원으로 진행함
- ⑧ 사회적 질병인 외로움에 관한 처방을 통해 치유 효과가 나타나는 ‘문화적’인 ‘치유’ 프로그램·콘텐츠를 개발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함. 개발되거나 운영되는 외로움 관련 프로그램·콘텐츠에 대하여 치유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큰 프로그램·콘텐츠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함
- ⑨ 외로움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 담당하고, 가칭 ‘전북도 외로움 예방·치유 및 연결사회 구현 기본계획’을 수립함. 다른 지역 위원회 사례를 참조하여 외로움 관련 민관협력 위원회를 구성함
- 각 과제는 사업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함. 1단계(2025년~)로 외로움 조례 제정, 전담부서 지정 및 종합계획 수립, 문화치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타 분야와의 협력체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함. 2단계(2026년~)로 문화처방 활동가 양성, 전북도민 실태조사, 문화로안녕센터 운영, 외로움 치유 보건사업, 외로움 없는 주

간 개최, 현대의 문화 확산을 추진함. 3단계(2027년~)로 전북형 지수 개발, 심리방역 안전기지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진행함

## ■ 국가시범 사업화와 문화적 치유의 법제화

- 발굴된 정책과제 중에서 전국에서 처음 진행되거나 다부처 연계형 사업의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국가예산 사업화를 추진함
  - 첫째, 복지부에서 202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청년미래센터(은둔형 외톨이 대상 지원 기관 및 광역 거점)처럼 외로움을 전담하여 진단·처방·연결하는 광역 단위의 외로움 치유 플랫폼 ‘문화안녕센터’(가칭)를 전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조성·운영한 다음에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문체부 주관 사업으로 제안함
  - 둘째, 복지부의 정신건강 지원체계와 문체부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체계를 융합하여 ‘외로움 치유 보건 시범 사업’의 국가사업화를 추진함. 정신건강 전문의 및 간호사 파견, 보건소 정신건강 상담 기능 보강(시설 개선), 사회적 처방 활동가 양성,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지원 등 계획을 구체화하고 다부처 사업으로 제안함
  - 셋째, 문화예술교육 중간처럼, 전국 최초로 조례에 따른 ‘외로움 없는 주간’을 지정한 전북의 선도적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국가사업화를 요청함
- 농업치유,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에 따른 치유 정책이 추진되나, 문화 분야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일반적인 문화 활동처럼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바, 문화 치유, 특히 외로움과 관련한 문화적 치유에 대하여 법제화를 추진함
  - 외로움 대응으로서 문화적 처방(문화적 치유)에 대한 독자법률을 제정하거나(예: 외로움 예방 및 치유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또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에 문화치유 조문을 추가
  - 문화적 처방 및 문화적 치유의 법적 개념화 : 생활문화, 공동체 회복 등이 아닌 질병의 치료 방법으로서 의학적 행위 개념을 설정하고 법제화를 추진
  - 생활문화·문화예술교육 등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정책분야로서 문화적 처방(문화적 치유) 정책을 정립

## 참 고 문 헌

### REFERENCE

- 강대선, 오영란, 조혜정, 김혜정. (2021). 성인기 연령집단별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연구: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NGO연구*, 19(2), 301-337.
- 고창균. (2019). 고창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치유사업 개발 연구보고서. 고창군.
- 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이상미. (2013). 한국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4), 909-936.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 연구.
- 바우만, 지그문트. (2000). 액체근대. 펠로소픽(2020 증보판).
- 박민진, 김성아. (2022).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127-141.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22).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 서영석, 안수정, 김현진, 고세인. (2020). 한국인의 외로움(loneliness):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2), 205-247.
- 서울연구원. (2019). 외로움은 개인만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사회적 관계 고려 공동체 지원 다각화 필요. *ISSUE PAPER*(신인철·최지원).
- 송인주, 고선규, 박선영. (2018).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 모형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안수정, 고세인, 김수림, 서영석. (2023).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외로움(loneliness)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5(1), 131-176.
-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가족 사업 안내(자료집).
- 이려정, 김선호, 정병용. (2022). 외로움과 사회적 유대감에 있어서 문화예술여가활동 참여의 매개효과.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6(5).
- 이상현. (2021). 코로나 블루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목회상담적 고찰.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2, 473-508.
- 임주애, 윤혜진, 남해권, 천아영, 김혜경, 홍석미, 남은우. (2023). 농촌 노인 우울감 및 외로움 경감을 위한 사회적 처방 시범사업 효과평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40(1), 13-31.
- 장세길, 신지원. (2021).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기능에 관한 사례 연구. *전북연구원*

기본과제보고서.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748>

장세길. (2022). 지역문화의 반격: 위협에 맞서다. 놀지출판.

장세길, 이중섭, 이주연. (2023). 사회적 질병 '외로움'과 사회적 처방 '연결사회'.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86호.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47>

정보람, 윤소영, 이성우. (2022).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현안연구보고서.

정순돌, 배은경, 유재연, 조미정. (202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연구. 보건복지부·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연구보고서.

정한울. (2018).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인식 보고서. 여론속의 여론.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2018.4.

최보연. (2019). 고독해결을 위한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 확산과 문화정책적 함의: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6(1), 233-268.

최현영, 이동혁. (2016). '홀로 있음'에서 고독과 외로움 간의 차이 탐색. 청소년학연구, 23(1), 77-103.

통계청.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한국행정연구원. (2022). 사회통합실태조사.

한병철. (2010). *Mudigkeitsgesellschaft*, 김태환 역(2012),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황수진, 홍진표, 안지현, 김명현, 정서현, 장혜인. (2021).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60(4), 291-297.

Arts Council England. (2021). *Impact of creative & cultural activity during the pandemic on loneliness, isolation & wellbeing*.

Beller, J., & Wagner, A. (2018). Loneliness, social isolation, their synergistic interaction, and mortality. *Health Psychology*, 37(9), 808-813

Calati, R., Ferrari, C., Brittner, M., Oasi, O., Olié, E., Carvalho, A. F., & Courtet, P. (2019).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and social isolation: a nar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45, 653-667.

DCMS.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Giddens, Anthony, 1991,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포스트모더니티(이윤화·이현희 역), 민영사.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 *Tackling loneliness*.

OECD. (2005). *Society at a Glance 2005 : OECD Social Indicators*.

OECD. (2020), "Social Connections", in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787/b2090ea8-en>.

Perlman, D., & Peplau, L.A. (1981).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Loneliness*. In:  
Duck, S.W. and Gilmour, R., Eds., *Personal Relationships in Disorder*,  
Academic Press, London.

UK Government.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UK Government. (2020). *Loneliness Annual Report: The First Year*.

UK Government. (2021). *Loneliness Annual Report: The Second Year*.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neliness-annual-report-the-second-year/loneliness-annual-report-january-2021>

UK Government. (2022). *Loneliness Annual Report: The Third Year*.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neliness-annual-report-the-third-year/tackling-loneliness-annual-report-february-2022-the-third-year>

内閣官房. (2021). 孤独・孤立対策の重点計画(고독·고립대책의 중점계획).

국민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23.9.6.). 국민통합위,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 발표  
아시아경제(2024.05.18.). WHO, '고립문제' 대응위한 글로벌 지수 만든다.

노컷뉴스. (2025.1.4). 외로운 사람 수명 더 짧았다...“악성 단백질 수치 높아”.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2024.7.16). 외로움 지원책 대백과.

## SUMMARY

---

### A Study on the Cultural Therapy Policy Tackling Loneliness as a Social Disease

Segil Jang · Jiwon Shin · Soyoung Yoon

#### 1. Research Objective and Method

##### ■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as a social disease, the loneliness resulting from the risks of modern society while mapping out and suggesting the direction and tasks of the cultural therapy policy of Jeonbuk State as a plan for resolving the issue.

##### ■ Research Scope and Method

-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e of loneliness among adult female and male respondents aged 19 or older in Jeonbuk State.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 “social connection criteria” measurement index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responses of the 417 respondents were weigh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demographics by region, gender, and age (Oct. 2024).

##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 Results of the Social Connection Criteria Analysis

- The social connection index of Jeonbuk State residents according to the social connection criteria categories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ame in at 39.6 point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of 31.0 points according to the Regional Culture & Development Agency Survey (2024), demonstrating a weak social connection among the residents of Jeonbuk State and suggesting that they feel lonelier than the average citizen.
- - The response rates according to the five groups of Jeonbuk State residents are as follows: Group 1 (severe group) 17.3%, Group 2 (borderline group) 18.5%, Group 3 (caution group) 26.1%, Group 4 (attention group) 29.2%, Group 5 (self-reliant group) 8.9%
- A comparison with the values of the national average shows that the residents of Jeonbuk State are relatively lacking in social relationships (especially social resources that can help to resolve difficulties), leading to a deterioration in their sense of self-worth, which is derived from social activities that provide meaning in life, and, consequently, a higher loneliness index.

### ■ Direction and Tasks of the Cultural Therapy of Loneliness

- The vision of the policy was established as, “Connecting through culture, Jeonbuk that is not lonely.” The objective was set as an improvement in Jeonbuk’s social connection index, with a specific goal of 30 points or lower, the national average, presented.
- The policy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cludes

therapy, focusing only on cultural connection. In contrast, the policy direction of Jeonbuk State emphasizes connection through health policies based on therapy.

- To break it down, the first strategy is establishing a policy foothold while the second is prevention and therapy. The project take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psychological and physical problems due to loneliness but also supports the discovery and treatment of those who are already lonely. The third strategy is strengthening networks: Collaborating with professionals in diverse fields, the goal is to improve and spread social awareness and activities by promoting the idea that enhancing social connections and relationships represents the optimal way to resolve loneliness.
- Among the discovered policy tasks, the “Stability Through a Culture Center (tentative name)”, a wide-area loneliness therapy platform, the “Loneliness Therapy Health Pilot” project, which integrates the mental health syste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Social Connection Through Culture” project system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e proposed.
- Although therapy policies are being carried out in various fields, such as farming, forest, and marine therapy, according to the law, in the field of culture, therapy programs are currently being run as general cultural activities without legal grounds. Therefore, legislation on cultural therapy, especially related to loneliness, is required

#### Key Words

Loneliness, Social Disease, Cultural Therapy Policy, Social Relationship, Social Connection Index, Mental Health System



정책연구 2025-01

##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의 문화적 치유 정책 구상

발행인 | 이 남 호

발행일 | 2025년 1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62-3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

###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전북자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전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발자국 정책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공간계획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 기획연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예코뮤지엄 구축 방안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전북자치도 지역상권 활력제고 전략 수립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연구

### 미래전략연구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 방안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연구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 육성 전략 연구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연구

###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방안 연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연구  
프로스포츠클럽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시설농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적용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방안 연구  
농지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별도청사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 현안연구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익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기준 연구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

